

정답과 해설

고등학교
문학
강호영 외

1. 나를 깨우는, 문학

1 문학의 본질과 미적 기능

작품 1 첫사랑

★ 확인 문제

본책 010~011쪽

01 ③ 02 ④ 03 눈꽃이 지고 봄에 꽃이 핌. 04 ④

01 이 시에서는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도전과 눈꽃이 진 후 봄에 피어나는 꽃의 아름다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 이 시는 눈꽃이 피는 자연 현상에서 발상을 떠올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02 이 시는 눈이 내리는 모습을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공감각적 심상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어 표현되는데, 이 시에는 그러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직유, 은유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첫사랑의 과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3연의 '햇숨 같은 마음'은 직유법을 사용한 시구로 눈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② '아름다운 상처'와 같이 의미상 모순되는 단어를 결합하여 성숙한 사랑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③ 화자는 흔들리는 나뭇가지에서도 눈꽃을 피우려는 눈의 노력을 송고하게 바라보며 예찬하고 있다.

⑤ '눈'을 도전하고 춤추는 존재로 그리는 의인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03 ▶ 세설형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4연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서 눈꽃이 녹고 눈이 녹은 자리에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시의 시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됨을 고려하여 4연의 내용을 썼다.	☐
4연에 드러나는 계절적 배경인 '봄'을 포함하여 썼다.	☐

04 '황홀'은 눈이 피워 낸 '눈꽃'을 의미하므로 ㉠은 첫사랑이 이루어진 기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1연의 '꽃'은 '첫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은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② ㉠은 나뭇가지에 내려앉은 '눈'의 움직임에 의해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사소한 시련이나 외부의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고 흩어질 수 있는 '눈꽃'의 특성을 사랑에 투영하여, 아직은 견고하지 못한 첫사랑의 불안정함을 드러낸 것이다.

⑤ '아름다운'은 정신적 성숙을, '상처'는 첫사랑의 아픔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름다운 상처'는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도달한 정신적 성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단원 평가 문제

본책 012~013쪽

01 ② 02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첫사랑의 아픔을 딛고 이룬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 03 ① 04 ⑤ 05 ② 06 ① 07 ① 08 ② 09 ③

01 이 시의 1~2연에서는 겨울철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한 도전을 보여 주고, 3연에서는 마침내 피어난 눈꽃을 제시한다. 4연에서 봄이 되어 눈꽃이 녹은 자리에 봄꽃이 피어나는 변화를 보여 줌으로써,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시에서는 청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③ 이 시는 자연 풍경을 묘사한 후에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선경후정 방식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 현상을 제시하여 이를 통해 사랑의 의미를 그려 내고 있다.

④ 이 시의 1연과 4연에는 유사한 시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수미상관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화자는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는 모습과 눈이 녹고 나서 꽃이 피는 모습을 보고 있으나, 시선이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고 있지는 않다.

02 ▶ 세설형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눈이 그치고 난 후에 핀 봄꽃으로,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난 후에 도달한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시구의 의미를 적절하게 썼다.	☐
역설적 표현이 드러난 시구를 포함하여 썼다.	☐

03 화자는 자연 현상에서 발견한 첫사랑의 의미를 생각하며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다.

04 이 시는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며 눈꽃이 진 자리에 봄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통해 첫사랑의 아픔을 딛고 이룬 성숙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독자는 작가가 담아 놓은 이러한 미적 가치를 파악하면서 정서적 충만감을 느낄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첫사랑의 아픔을 딛고 나서 느끼는 성숙한 사랑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 뿐, 눈꽃을 피우려다 실패한 모습을 아름답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

② 눈이 흘날리는 모습은 첫사랑의 순간성이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쉽게 잊을 수 있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 시에서는 쉽게 흘날려 버리는 눈이 나뭇가지에 쌓이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③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려 노력하는 눈의 모습을 숭고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이를 이루어질 수 없는 첫사랑과 연관 짓기는 어렵다.

④ 눈이 녹은 자리에 꽃이 피는 모습은 역경을 이겨내고 도달한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

05 이 시는 눈의 마음을 ‘햇숨’에 직접 비유하거나, 눈꽃을 ‘황홀’에 암시적으로 비유하는 표현을 활용하여 첫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06 [A]는 ‘짜그락’과 같은 음성 상징어와, ‘난분분’ 등과 같은 시어를 반복하면서 시의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눈 내리는 모습을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07 ㉠이 약간 불어도 사라지는 눈꽃의 연약함을 표현함으로써 첫사랑의 위태로운 속성이 드러난다.

08 이 시는 겨울에 눈이 내리고 봄에 눈이 내렸던 자리에 꽃이 피는 자연 현상을 보고 첫사랑과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보기 2>는 봄이 와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매화를 바라보며 나이 든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연관 짓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시에는 계속된 바람에도 끊임없이 눈꽃을 피우려는 ‘눈’의 노력은 드러나지만 화자의 반복된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보기 2>에는 매화가 피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기다림이 드러날 뿐 적극적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시와 <보기 2>에서는 자연 현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은 드러나지만 감정 이입의 대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시는 겨울에서 봄으로 설정되어 있어 바뀌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보기 2>는 계절적 배경이 봄으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시는 첫사랑의 상처에도 끝내 성숙한 사랑을 이루는 봄꽃을 예찬하는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 이해 더하기

매화, 「매화 옛 등걸에」

갈래	시조
성격	애상적, 중의적
제재	매화, 춘설
주제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한탄, 늙음에 대한 한탄
특징	• 중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처지를 표현함. •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삶을 연결시켜 사상을 전개함.

09 이 시에서는 눈꽃을 피우기 위해 계속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땅 위에 쌓인 눈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02 문학의 인식적·윤리적 기능

작품 1 빙그레의 영역

+ 확인 문제

본책 014~017쪽

01② 02 작가는 과거에 선물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지금은 선물보다 선물이 되는 추억(사건, 시간, 사람, 말, 표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03③ 04④ 05② 06④ 07⑤ 08③

01 이 글은 작가의 경험과 이로 인해 얻은 깨달음을 진솔하게 표현한 수필이다. 인간의 내면을 사회적 현상과 연관 지어 서술하고 있지 않다.

02 **인사형** (나)에서 과거의 작가는 선물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꼈다. (다)에서 현재의 작가는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쌓이는 추억을 선물의 물질적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선물’에 대한 작가의 인식 변화를 (나)와 (다)에서 찾아 적절하게 썼다.	☐
제시된 문장 형태를 지켜 썼다.	☐

03 ㉠에서 작가는 선물을 오래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껴서 사라지게 되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선호하였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작가는 선물에 사연이 쌓이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했다.

② 작가는 영영 간직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선물을 좋아했다.

④ 작가는 남지 않는 선물을 주고받을 때 흥분함을 느꼈다.

⑤ 작가는 선물에 사연이 쌓이면서 추억이 선물보다 커지게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여린 마음을 가졌었다.

04 ㉡은 선물 자체보다 선물이 되는 사건, 시간, 사람, 말, 표정 같이 선물을 주고받는 순간의 총체적 경험에 선물의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05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선물의 의미를 제시하고, 선물의 의미를 확장하여 일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06 ‘빙그레의 영역’은 선물들을 보며 선물에 얹힌 사연과 감정을 떠올리는 공간과 시간을 의미한다.

07 (아)에서 작가는 선물로 줄 라디오를 고르는 과정에서 자신이 선물 받은 라디오를 바라보며 자신을 생각하며 그 선물을 골랐을 친구의 배려와 정성을 깨닫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서 작가가 선물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이 글의 작가는 받는 이의 취향을 분석하는 것의 중요성이 아니라 받는 이를 떠올리며 선물을 고르는 배려와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③ (아)에서 작가는 선물을 주고받는 경험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가 깊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④ (아)에 선물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08 작가는 선물을 받았을 때의 상황, 선물을 준 사람들의 말과 표정을 떠올리며 선물에 담긴 사연과 추억을 떠올릴 때 비로소 진정한 선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작품 2 쉽게 씌어진 시

★ 확인 문제

본책 018~019쪽

01 ③ 02 ① 03 ⑤ 04 최초의 악수

01 1연의 ‘밤비’에서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육첩방’에서 타지라는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현재 화자가 타지에서 밤을 보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02 ㉠ ‘밤비’는 어둠의 이미지로 암울한 시대, 부정적 현실을 의미한다. ㉡ ‘등불’은 밝음의 이미지로 희망, 긍정적 미래를 의미한다.

03 [E]는 부정적 현실로 인해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로 분열되었던 화자의 자아가 ‘최초의 악수’를 통해 서로 화해하고 현실 극복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A]는 나라를 잃은 식민지 청년이 현실감 없는 지식을 배우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며 시대적 소명과 개인의 삶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과 부끄러움이 나타난다.

② [B]는 현실에 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쓰는 화자의 부끄러움이 나타난다.

③ [C]는 1연을 변주하여 화자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재인식함으로써 당시의 부정적 현실을 부각하여 드러낸다.

④ [D]는 ‘등불, 아침’이라는 밝음의 이미지와 ‘어둠’이라는 어둠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선명하게 대비시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 준다.

04 **시술형**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분열되었던 자아가 ‘눈물과 위안’으로 화해하며 통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단원 평가 문제

본책 020~023쪽

01 ① 02 ⑤ 03 ⑤ 04 ⑤ 05 선물을 준 사람의 말과 표정을 떠올리며 빙그레 웃는 시간이 선물이다. 06 ⑤ 07 ⑤ 08 ④ 09 ⑤ 10 ③ 11 ⑤ 12 ‘어둠’은 부정적 현실인 일제 강점기를, ‘아침’은 다가올 희망과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 13 ③ 14 ④

01 이 글의 ‘처음’에서는 간직해야 하는 선물이 부담스러웠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했던 과거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가운데’에서는 현재 사연과 추억이 담긴 선물의 의미를 깨달았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은 ‘선물’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선물’에 대한 작가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이 글에는 선물로 인한 작가의 주변 인물들 간의 갈등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이 글은 작가가 받은 선물들을 통해 작가가 가지고 있던 선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소재로 삼고 있다.

④ 이 글은 선물 자체의 가치보다 선물을 주고받는 총체적 경험의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⑤ 이 글은 선물에 대한 작가의 경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02 이 글의 제목인 ‘빙그레의 영역’은 작가가 받은 선물들을 바라보며 선물을 주고받을 당시 생겼던 추억을 떠올리고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과 공간이다.

03 이 글에서 ‘나’는 과거에는 오래 간직할 필요가 없는 선물을 선호하거나 선물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하지만 현재는 선물 자체의 가치보다는 선물을 주고받는 총체적 경험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의 ‘나’가 선물의 실용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서 과거의 ‘나’는 영영 간직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선물이라야 주고받는 마음이 홀가분하였다고 하였다.

② 2문단에서 과거에 선물을 받는 것과 주는 것 중에서 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백 프로 공감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③ 7문단에서 현재의 ‘나’는 받았던 선물을 보며 선물을 주고받을 때의 표정과 말투를 떠올리고 이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④ 8문단에서 현재의 ‘나’는 라디오를 고르며 라디오를 선물해줬던 친구가 ‘나’에게 해 주었던 배려를 고맙게 여기고 있다.

04 <보기>는 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설명한 글이다. 선물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바탕으로 독자는 선물의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일반적 인식에서 벗어나 선물을 주고받는 경험이 소중한다는 점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

04 정답과 해설

- 05 **시술형** 지금의 ‘나’는 과거에 받은 선물들을 쳐다볼 때마다 그때의 그 표정과 말투를 떠올리며 행복감을 느끼고 선물의 총체적 경험을 모두 선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현재의 ‘나’가 새롭게 인식한 선물의 의미를 적절하게 썼다.	☐
선물을 대할 때 ‘나’가 짓는 표정과 생각을 적절하게 썼다.	☐

- 06 ㉔에는 작가가 라디오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받았던 라디오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선물을 줬던 친구가 선물을 준비하면서 가졌을 배려와 정성을 깨닫는 모습이 드러난다.

- 07 화자는 무기력한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부끄러워하지만 이후 부정적 현실에 대응하며 부끄러웠던 자신의 자아와 화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므로 화자가 삶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보인다고 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7연에서 화자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에서 부정적 시대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② 6연에서 화자는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③ 9연에서 화자는 부정적 시대 현실을 이기고 긍정적인 미래가 도래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④ 10연에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해 분열된 두 개의 자아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08 8연은 1연을 변형하고 반복하면서 부정적인 현실을 다시 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1연은 ‘밤비’, ‘육첩방’과 같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암울한 시대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② 3연의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에서 청각적 심상과 촉각적 심상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고 있다.

③ 6연의 ‘침천하는 것일까?’에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⑤ 9연에서는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는 ‘어둠’과 긍정적 미래를 의미하는 ‘아침’을 대립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09 [E]는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현실적 자아와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닌 내면적 자아가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 오답 풀이 | ① [A]는 ‘밤비’, ‘육첩방’을 통해 시간적 배경인 ‘밤’과 공간적 배경인 ‘일본’을 나타내고 있다.

② [B]는 화자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나서지 못하고 시를 쓰는 자신의 처지를 ‘슬픈 천명’으로 표현하며 시인으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다.

③ [C]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현실과 거리가 있는 지식인의 삶을 보여 준다.

④ [D]는 현실에 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쓰는 화자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드러난다.

- 10 <보기>는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설명한 글이다. 이 시는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화자가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신을 성찰하고 현실 극복 의지를 보여 주는 시이다. 따라서 이 시를 읽은 독자도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③의 ‘외부 환경과 타협하여 화해’하는 것은 이 시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와 관련이 없다.

- 11 <보기>는 이 시를 쓴 작가 윤동주에 관한 설명이다. 그는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지식인의 삶을 부끄러워했다. 작가는 이 시에서 이러한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최초의 악수’라는 시구를 통해 분열된 자아를 통합하고 무기력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현실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한 줄 시’는 시인이라는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작가가 시를 쓰는 모습을 의미한다.

② ‘죄다 잃어버리고’는 친구들을 잃은 상실감이 드러나는 시구이다.

③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는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로 인해 살기 어려워진 삶을 인식한 것임을 나타낸다.

④ ‘등불을 밝혀’는 ‘어둠’이라는 부정적 현실을 밀어내려는 작가의 의지를 의미한다.

- 12 **시술형** ‘어둠’은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므로 일제 강점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아침’은 화자가 기다리는 것으로 ‘어둠’에서 벗어난 희망적, 긍정적 미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어둠’과 ‘아침’이 서로 대립적인 시어임을 밝혔다.	☐
‘어둠’과 ‘아침’의 의미를 모두 적절하게 썼다.	☐

- 13 ㉔는 현실적 자아로 부정적 현실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㉔는 내면적 자아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니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하는 자아이다.

- 14 ㉔은 화자의 무기력함과 좌절감을 의미하는 하강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운명에 순응하거나 포기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비극적 현실 속에서 무력한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향한 치열한 자기 성찰과 괴로움의 표현을 나타낸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㉔은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암울한 시대를 의미한다.

② ㉔은 화자가 타지에 있음을 의미한다.

③ ㉔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쓰는 것에 대한 서글픔을 의미한다.

⑤ ㉔은 부정적 현실로 인해 화자의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분열된 모습을 의미한다.

2. 다양한 빛깔로 만나는, 문학

1 서정 갈래의 이해

작품 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확인 문제

본책 028~029쪽

01 ⑤ 02 ② 03 그 복숭아나무 그늘 04 ① 05 ②

01 이 시는 ‘흰 꽃과 분홍 꽃’이라는 시어를 통해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지만, 두 색채를 대비시키고 있지는 않다. 또 ‘흰 꽃과 분홍 꽃’은 화자의 심리 변화가 아니라 화자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복숭아나무’의 피상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 오답 풀이 | ①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외로웠을 것’ 등 인간의 속성을 ‘복숭아나무’에 부여하는 의인화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② ‘눈부서’, ‘여러 겹의 마음’, ‘그 나무’ 등 같은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시의 마지막 행인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에는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도치법이 사용되어 시적 어운을 형성하고 있다.

④ ‘-버니다’라는 경어체의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고백하는 듯한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2 화자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는 선입견으로 복숭아나무를 멀리하였다가, ‘수천의 빛깔’이라는 참모습을 발견하며 진정한 이해에 이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했던 일을 반성하였다는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③ 이 시는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대상과의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편견을 버리고 대상과 진심으로 마주하려는 심리적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거리(멀리/가까이)만이 진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하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 시는 외면의 아름다움이나 인생의 무상함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여 다다를 수 있는 진정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⑤ 화자가 깨달은 것은 대상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과 오해를 해소하고 대상의 본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지, 자연을 통해 인간의 근원적 고독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

03 **시술형**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에서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대상과 교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04 [A]에서 화자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 그 복숭아나무’,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에 대해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며 피상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치며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③, ⑤ [A]에서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너그럽게 감싸는 태도를 보이거나, 연민하며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히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다.

④ 화자는 ‘복숭아나무’를 무심하게 지나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판단하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05 ㉠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화자가 피상적으로 인식한 대상의 모습을 의미하며, 불변하는 속성이 아니라 선입견에 의한 제한적 인식을 나타낸다.

작품 2 흰 바람벽이 있어

* 확인 문제

본책 030~033쪽

01 ④ 02 ④ 03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 04 ④ 05 ④
06 ⑤ 07 ② 08 ⑤

01 이 시는 ‘흰 바람벽’에 비치는 화자의 방 풍경,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화자의 내면 의식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담담하고 절제된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시에서 격한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격정적 어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화자는 현재 시점에서 ‘흰 바람벽’에 비친 자신의 현재 삶과 생각을 성찰하고 있을 뿐, 이 시에서 화자의 과거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시는 여러 시어가 내포하는 의미를 통해 화자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실을 담아 강조하는 역설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이 시에는 시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구로 구성되어 의미를 강조하는 수미상관은 사용되지 않았다.

02 화자는 자신의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③ 화자는 ‘좁다란 방’에서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며 자신의 처지를 담담한 태도로 성찰하고 있다.

②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와 / 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⑤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는 시구에서 고단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욕구가 드러난다.

06 정답과 해설

03 **시술형** 11행의 ‘시퍼러등둥하니 추운’은 축약적 심상인 ‘춥다’를 시각적 심상인 ‘시퍼렇다’로 전이하는 감각의 전이를 통해 어머니가 처한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표현한 시구이다.

04 ‘흰 바람벽’에는 전등의 ‘지치운 불빛’, ‘무명 샤쯔’의 ‘어두운 그림자’와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화자의 외로움과 쓸쓸함, 그리움과 같은 내면의 정서를 시각화하여 보여 준다. 이런 점에서 ‘흰 바람벽’은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스크린이자 성찰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③ ‘흰 바람벽’은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낼 뿐, 화자가 이를 통해 휴식을 취하거나 위로받고,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흰 바람벽’은 화자를 외부와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다.

⑤ 화자가 ‘흰 바람벽’을 통해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맞으나, 과거의 기억이 아닌 화자의 생각이며 행복한 기억으로 보기 어렵다.

05 ①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는 화자의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화자는 추위에 시달리며 노동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흰 바람벽’을 통해 떠올리고 있다.

06 <보기>에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처한 사회·문화적 상황과 함께 이 작품을 창작할 당시 시인 백석이 만주에서 어렵게 생활했다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이 시에 드러난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모습에는 일제 강점기에 고향을 떠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 우리 민족의 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07 화자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며 자신의 가난과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의 숙명으로 여기며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자신의 가난과 고독에 대해 차분히 성찰하고 있을 뿐, 이를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지는 않다.

③ 화자는 자신이 처한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를 스스로 성찰할 뿐 절대자에게 의탁하려 하지는 않는다.

④ 화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고 그 속에서 고결함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⑤ 화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삶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다.

08 ① ‘초승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는 소박하고 순수한 존재들을 나열한 것이고, ⑥ “프랑시스 잠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고독한 삶 속에서 고결하게 시를 쓴 시인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다. 화자는 이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고결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해 더하기

- 프랑시스 잠(1868~1938): 프랑스 시인. 일생을 자연 속에 살면서 사랑과 생명을 노래함.
- 도연명(365~427): 중국 시인. 일생을 전원에서 보내며 자연과 서민들의 삶을 노래함.
- 라이너 마리아 릴케(1875~1926): 독일의 시인. 고독, 불안, 죽음, 사랑 등의 문제에 관한 시를 씀.

단원 평가 문제

본책 034~035쪽

01 ① **02** ④ **03** 복숭아나무의 곁으로 다가가 그늘에서 교감함. **04** ① **05** ③ **06** ④

01 (가)의 시적 대상인 ‘복숭아나무’는 화자가 바라보면서 화자의 인식이 변하는 대상이다. 화자와 ‘복숭아나무’는 유사한 속성이나 대립적인 속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② (나)에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와 같이 3음보 율격이 나타난다.

③ (가)는 ‘-비니다’라는 종결 어미를, (나)는 ‘-네’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가)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오해를 푸는 모습을 통해 ‘타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이라는, (나)는 ‘산에 피는 꽃’의 모습을 통해 ‘존재의 근원적 고독’이라는 관념적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⑤ (가)는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등에서, (나)는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등에서 시각적 심상을 통해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해 더하기

김소월, 「산유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민요적, 관조적
제재	산에 핀 꽃
주제	인생과 자연에서 느끼는 근원적 고독
특징	• 3음보 율격과 종결 어미 ‘-네’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함. • 1연과 4연이 반복·변주되는 수미상관 구조를 이룸.

02 (가), (나)와 <보기>는 서정 갈래로, 일정한 구성 단계를 따라 서사가 전개되는 것은 서사 갈래의 특징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⑤ 서정 갈래는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를 압축적인 언어로 노래하는 문학으로, 운율과 같은 음악적 요소로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심상과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한다.

이해 더하기

이조년, 「이화에 월백하고」

갈래	평시조
성격	애상적, 감각적
제재	배꽃, 은하수
주제	봄밤에 느끼는 애상적 정서
특징	• 흰색의 색채 이미지 등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짐. • 봄밤의 경치를 먼저 제시하고 화자의 심정을 나중에 드러내는 선경후정 구성을 취함.

03 **서술형** (가)에서 화자는 ‘복숭아나무’와 거리를 두었으나 ‘복숭아나무’가 품은 ‘수천의 빛깔’과 ‘여러 겹의 마음’을 알아보고, 시간이 흐른 뒤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 아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교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복숭아나무’의 그늘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썼다.	☐
‘복숭아나무’와 교감한다는 내용을 썼다.	☐

04 화자는 ‘그런데 이것은 ~’,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와 같이 앞의 상황을 전환하는 접속 부사를 사용하여 외롭고 쓸쓸한 감상에서 벗어나 고독한 삶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여 준다.

05 독자 맥락은 독자의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여 이해하는 것이므로 이 시에 나열된 옛 시인들에게 시인이 공감했을 것이라는 내용은 독자 맥락에서의 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②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상한 것이므로, 작가 맥락을 고려한 감상으로 볼 수 있다.
④ 독자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작품을 통해 삶의 태도를 배우고 있으므로, 독자 맥락을 고려한 감상으로 볼 수 있다.
⑤ 작품 창작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감상으로 볼 수 있다.

06 ㉠ ‘이러한 글자들’은 ‘흰 바람벽’에 비치는 화자의 내면을 의미한다. 화자는 벽에 비친 ‘글자들’을 통해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와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화자의 외로운 생각, 그리워하는 대상을 비추며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② ㉡는 좁고 쓸쓸한 방에서 홀로 지내는 화자의 외로운 내면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③ ㉢는 화자의 곁에 부재하는 존재로,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따뜻한 공간에 놓여 있어 화자의 고독감을 심화하는 대상이다.
⑤ ㉤는 소박하고 순수한 존재로, 화자와 동일시되며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대상이다.

서사 갈래의 이해

작품 1 이생규장전

확인 문제

본책 038~045쪽

01 ④ **02** ⑤ **03** 첫 번째 이별의 원인은 이 서생 아버지가 두 사람의 사랑을 반대한 것이고, 두 번째 이별의 원인은 홍건적(도적)의 침입으로 최 여인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04** ④ **05** ⑤ **06** ① **07** ⑤ **08** ① **09** ① **10** ② **11** 첫 번째는 담장 너머로 만나 인연을 맺은 것이고, 두 번째는 혼인하여 부부가 된 것이고, 세 번째는 죽은 최 여인이 환신하여 이승에 있는 이 서생과 재회한 것이다. **12** ③ **13** ② **14** ① **15** ①

01 이 글은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사건을 모두 파악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었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들의 행동과 심리를 모두 파악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주인공인 이 서생이나 최 여인이 서술자의 역할을 하며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홍건적의 침입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두 사람의 이별을 유발하는 등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② 이 글은 이 서생과 최 여인의 ‘만남 - 이별’이 반복되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첫 번째: 담장 너머로 만남. → 이 서생 아버지의 반대로 이별함, 두 번째: 혼인함. → 홍건적의 침입으로 이별함, 세 번째: 최 여인이 환신하여 이 서생과 재회함. → 저승의 법으로 최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가며 이별함.)

③ 이 서생은 ‘얼굴은 말쑥하며 재주가 뛰어났다’, 최 여인은 ‘맏시가 아리답고 자수에 능하며 시부에도 뛰어났다’는 점에서 재자간(才子佳人)형 인물이다.

⑤ ‘송도’, ‘낙타교’, ‘선죽리’ 등 구체적 공간 배경을 제시하여 사실감을 더하고 있다.

02 이 서생은 최 여인과의 사랑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여 지방으로 내려갔을 뿐, 아버지의 반대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았다. 오히려 최 여인이 부모에게 간곡히 청하여 두 인물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오답 풀이 ①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최 여인의 부모는 이 서생과 혼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최 여인의 간곡한 청에 따라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 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이 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했다’고 하였다.

③ (가)를 통해 이 서생이 담 안을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 여인에게 반하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이 서생과 최 여인이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④ (나)에서 이 서생이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고 하였다.

- 03 **시술형** '중략 부분 줄거리'에 이 서생 아버지의 반대로 이 서생과 최 여인이 이별한 상황과, 홍건적의 침범으로 도적에게 쫓기다가 최 여인이 죽임을 당한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첫 번째, 두 번째 이별의 원인을 정확히 썼다.	☐
제시된 문장 형태를 지켜 썼다.	☐

- 04 ㉔은 이 서생이 과거에 최 여인과 함께한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대목으로 과거가 꿈처럼 느껴졌다는 의미이다. 이 서생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반성이 아니라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를 통해 슬픈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㉔은 사람들이 이 서생과 최 여인을 칭송하는 말로, 두 인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담고 있다.

② 제목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의 '규(窺)'와 '장(牆)'은 각각 '엿보다', '담장'이라는 뜻의 한자로, 이 서생이 담장 안을 엿본다는 내용의 ㉔과 의미상 관련이 깊다.

③ ㉔은 최 여인의 집이 홍건적의 침입으로 황폐해진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아내를 잃은 이 서생의 참담한 심경을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⑤ ㉔에서 이 서생은 최 여인이 '이승에 없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의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최 여인의 죽음을 알면서도 사랑의 감정을 우선하는 이 서생의 모습이 드러난다.

- 05 이 글에 나타난 전기적 요소는 두 인물의 지극한 사랑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내용 전개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부여하여 독자의 흥미를 높인다. 이 글에서 당대의 사회상을 드러내는 대목은 홍건적의 난과 같은 역사적 배경, 유교적 정절을 중시하는 최 여인의 태도, 이 서생과 삼세의 인연이 맺어져 있다는 최 여인의 말에 드러난 불교적 가치관 등이다.

- 06 (다)의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다는 최 여인의 말에서, 그가 유교적 도리인 정조를 지키기 위해 도적에게 맞서다가 목숨을 잃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최 여인은 규종의 법도를 익힌 인물로, “규종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라고 말한 데에서 규종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최 여인은 이 서생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이야기할 뿐,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을 후회하고 있지 않다.

④ 최 여인은 홍건적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나 환신을 통해 이 서생과의 인연을 이어 나가고자 하므로, 이 서생과의 이별과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 최 여인은 이 서생과 이별한 뒤 죽음을 맞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이 서생과 이별한 것이다.

⑤ (다)에서 최 여인은 이 서생에게 먼저 함께 지내자는 청을 하고 있고,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이요.”라고 이 서생이 답한 뒤 두 사람이 ‘서로 즐거워하며 심정을 털어놓았다’고 하였다.

- 07 ㉔은 과거의 행복이 현재의 슬픔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세상일은 순환되는 것임을 이르는 말인 ‘흥진비래(興盡悲來)’가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사면초가(四面楚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

② 부화뇌동(附和雷同): 좇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③ 가렴주구(苛斂誅求):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

④ 각골통한(刻骨痛恨):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 또는 그런 일.

- 08 ㉔에서 ‘삼세의 깊은 인연’은 불교의 윤회 사상에 기반한 표현으로, 세 생애에 걸친 인연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최 여인과 이 서생의 두터운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 09 (마)에서 최 여인은 “하느님께서,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이 몸을 환신시켜 잠시 낭군을 뵈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즉 최 여인이 환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느님의 허락 때문이지, 이 서생의 소망 때문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② (라)의 ‘이 서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천척과 손님의 길흉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라)에서 ‘두 집 부모의 해골을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펜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고 하였다.

④ ‘무산 선녀’는 사랑하는 이의 곁에서 계속 머무르는 존재로, 최 여인의 처지와 대비된다. 이를 통해 (마)에서 최 여인이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 선녀 될 수 없고’라며 무산 선녀처럼 이 서생 곁에 계속 있을 수 없음을 슬퍼함을 알 수 있다.

⑤ (마)에서 최 여인은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라며 저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 10 최 여인이 부른 노래의 내용은 이별의 슬픔과 애절함을 담고 있다. ‘도적 떼 밀려와서’, ‘원앙도 짝 잃었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등의 표현에서 비극적이고 슬픈 분위기가 형성되지만 최 여인과 이 서생 사이의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④ (마)의 노래는 이 서생에게 이별을 고하는 최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③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는 표현을 통해 두 사람이 이별하면 저승과 이승으로 나누어져 영원히 만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⑤ 서사적 전개 중간에 노래를 넣어 서정적 감흥을 일으켜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있다.

- 11 **❷ 서술형** 최 여인이 자신과 이 서생이 맺었다고 말한 '세 번의 가약'은, 담장 너머로 처음 만나 인연을 맺은 것, 이 서생의 아버지 반대를 이겨 내고 혼인을 한 것, 죽음을 넘어서서 남은 인연을 맺은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세 번의 가약의 내용을 모두 썼다.	☐
제시된 문장 형태를 지켜 썼다.	☐

- 12 ㉠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 주리'는 흥건적의 침입으로 죽은 사람들의 해골이 방치된 상황을 나타낸다. 이는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자신의 가족의 죽음과 백성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자책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 13 <보기>는 『금오신화』의 문학적 가치를 설명하며 전기 소설의 비현실성을 통해 남녀의 애정,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판 등을 작품에 담아냈다고 하였다. 이 작품에서 이승과 저승의 구분은 최 여인이 이 서생과 영원히 헤어져야 하는 원인이므로 저승을 이상적 공간으로 그렸다고 볼 수 없다. 저승은 이승에서 이 서생과 함께 있고 싶지만 저승의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하는 공간이다.

❷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송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유교(절개를 중시하는 최 여인의 태도), 불교(삼세의 인연으로 이 서생과 만났다는 최 여인의 말), 도교(최 여인이 환신하여 이 서생과의 인연을 이어 가는 것) 등 당대의 사상이 드러난다.

③ 죽은 최 여인이 환신하여 나타난다는 전기적 요소를 통해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이 서생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는 과정, 최 여인이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혼인을 청하는 모습 등에서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난 작가의 진보적 의식이 드러나 있다.

⑤ 이 서생과 최 여인이라는 우리나라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며, 혼례, 제사 등의 풍속과, 이승과 저승은 구분되어 서로 오고갈 수 없다는 당대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 14 (사)에서는 이 서생이 최 여인을 그리워하다 죽는 비극적 결말이 나타난다. 이는 죽음을 초월한 지극한 사랑을 통해 독자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고(ㄱ), 세 번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다가 결국 영원한 이별(최 여인의 저승행, 이 서생의 죽음)로 이어지는 구성을 통해 비극성을 더욱 강조한다(ㄴ).

- 15 ㉠은 슬픔에 겨워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조차 없는 최 여인의 심경을 직접적으로 서술한 부분으로, 이를 인물의 내면적 성숙이 드러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❷ 오답 풀이 ② ㉠에서 이 서생은 최 여인과 함께 황천에 가고 싶다며 죽음을 맞더라도 최 여인과 함께하고 싶다는 지고지순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에서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라는 최 여인의 말에 죽은 자는 저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당대의 생각관이 드러난다.

④ ㉠에는 자신이 저승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서생에게 죄가 미칠 것을 염려하는 최 여인의 사랑이 드러난다.

⑤ ㉠은 이 서생과 최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추가하여 이야기 밖의 이야기를 통해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작품 2 도도한 생활

+ 확인 문제

본책 046~053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② 05 ③ 06 ⑤ 07 '나'는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휴대 전화 버튼을 눌러 소리를 냄으로써 피아노를 치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고 있다. 08 ③ 09 ① 10 ⑤ 11 ⑤ 12 ② 13 ① 14 ⑤ 15 방에 빗물이 차오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현실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16 ③

- 01 (나)에서 '나'가 첫 월급을 받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고 하였을 뿐, 첫 월급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가는 것은 8월의 계획이다.

- 02 이 글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를 배경으로 하며, '나'와 언니는 반지하 셋방에서 살아가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니와 '나'로 대표되는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이해 더하기

배경의 종류

시간적 배경	인물이 행동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시간
공간적 배경	인물이 행동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특정한 장소
사회적 배경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민족 등의 사회적·역사적 상황
심리적 배경	인물의 심리 상황이나 독특한 내면 의식

03 (가)에서 ‘나’는 저축한 돈이 있으니 사소한 재해쯤이야 아무래도 좋다는 마음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경제적 자립에 대한 뿌듯함이 아니라 한 학기 등록금을 모았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의미한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서 ‘나’는 언니가 집에 없는 사이에 집을 관리하고 반찬을 만들며, 아르바이트로 문제지를 타이핑하고 문제를 푸는 일을 반복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일만 하다 죽을 수는 없다고 하며 반복적이고 고립된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② (나)에서 ‘나’는 집에 혼자 있는 생활에 지쳐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피로나 긴장을 느끼고 싶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나’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나’는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며,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가고, 화장을 배우고, 집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등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⑤ (나)에서 ‘나’는 가을이 올 것 같았지만 계절은 느릿느릿 지나가고 있었다며, 자신이 기대했던 삶의 변화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04 ‘피아노’는 중산층을 상징하던 물건으로, ‘앞부분 줄거리’ 중 엄마가 집안이 망한 상황에서도 피아노를 팔지 않으려고 했다는 데서 피아노가 가족의 자존심과 과거의 안정된 삶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나’가 집주인에게 피아노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피아노를 지키려는 모습도 이를 뒷받침한다.

05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인 ‘나’는 직접 작품 속에 등장하여 자신이 겪는 사건과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06 이 글에서 집주인은 공사 소음을 발생시키면서도 세입자의 피아노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의 곰팡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는 원래 그렇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에 민감한 이기적 태도가 드러날 뿐 어수룩한 면모는 보이지 않는다.

07 **서술형** ‘나’는 집주인의 반대로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휴대 전화 버튼을 눌러 소리를 냈으로써 피아노를 치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가 처한 상황을 썼다.	☐
‘나’의 행동에 담긴 욕구를 포함하여 썼다.	☐

08 ㉔ ‘습기 때문에 자글자글 운 공기가 미역처럼 나풀대며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는 습기를 미역에 빗대어 표현하여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㉕ ‘도는 방 안에 갇힌 나방처럼 긴 선을 그리며 오래오래 날아다녔다.’는 피아노의 ‘도’ 음을 나방의 움직임에 비유하여 소리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의태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이다. ㉔에는 ‘자글자글’이라는 의태어가 사용되었으나 ㉕에 사용된 ‘오래오래’는 ‘시간이 지나는 기간이 매우 길게.’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이다.

② ㉔, ㉕은 대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을 뿐, 시선 이동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④ ㉔, ㉕은 인물의 내면이 아니라 방 안의 눅눅한 공기와 피아노 소리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㉔와 ㉕의 종결 어미는 모두 과거형 시제로, 현재형 어미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㉔, ㉕에는 유사한 문장 형태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언어유희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09 이 글은 ‘나’의 반지하 셋방에서의 생활이라는 일상적 삶에서 발생한 사건을 서술함으로써 당시의 청년 세대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주거 환경이라는 사회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이 글은 인물들 간의 대화가 아닌 ‘나’가 서술하는 상황과 내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③ 액자식 구성은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구성으로, 이야기의 핵심 내용인 내부 이야기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이야기로 이루어진다. 이 글은 하나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액자식 구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시간의 역전 구성은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시간 순서가 뒤바뀌어 배치되는 구성 방식을 말한다. 이 글은 ‘나’의 과거에서 현재로 글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시간의 역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글에서는 반지하 셋방이라는 장소와 비가 오는 배경을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여 현장감을 전달하고 있다. 장소 이동이나 시간의 흐름에 대한 묘사는 드러나지 않는다.

10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인 ‘반지하 셋방’은 습기가 가득해 곰팡이가 피고, 비가 오면 빗물이 차오르는 열악한 곳이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당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이 마주하는 열악하고 고단한 삶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11 (마)에서 언니는 ‘나’가 빗물이 샌다고 전화하자 ‘그런 적이 몇 번 있다고, 걸레로 닦아 내면 괜찮을 거라고’ 말한다. 즉, 언니는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담담하게 반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2 (마)에서 ‘나’는 빗물을 닦아 냈지만 조금 전 물기를 닦아 낸 곳에 아까보다 더 많은 양의 빗물이 고여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리고 (바)에서 빗물이 계단과 창문을 타고 자꾸자꾸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나’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 속에서 빗물을 통해 전해지는 냉혹한 현실을 ‘매캐하고 비릿한 도시 냄새’로 느끼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빗물에 젖은 물건들의 냄새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은 빗물의 냄새에 대한 서술이다.

③ (바)에서 '나'는 집주인에게 도움을 청한 뒤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④ '나'는 언니의 무관심보다는 빗물을 치워도 치워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자체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⑤ (마)에서 '나'는 언니의 조언에 따라 걸레로 빗물을 닦아 내기를 반복하며 집 안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나'의 노력이 역효과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폭우로 인해 아무리 걸레질을 해도 빗물이 들이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3 이 글의 제목인 '도도한 생활'은 피아노 음계에서 가장 낮은 음인 '도'에서 '레'로 올라가지 못한 채 계속 '도'에 머물러 있는, 단조롭게 반복되는 '나'의 힘든 생활을 의미한다(ㄱ). 한편 '도도한'은 '잘난 체하여 주제넘게 거만한'이라는 뜻으로, 절망적 상황에서도 도도하게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나'의 태도를 나타낸다고도(ㄴ) 볼 수 있다. 즉 '도도한 생활'이란 경제적 몰락 속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려는 '나'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14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나'는 돈이 필요하다는 아빠의 전화를 받고, 술에 취해 찾아온 언니의 예전 애인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는 방 안에 빗물이 차오르는 문제에 더해 '나'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 오답 풀이 | ① 사내(언니의 옛 애인)의 미소는 술에 취해 자면서 지은 것으로 사내는 '나'와 언니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다.

② '나'는 (사)에서 주인집의 반응은 생각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편안하게 피아노를 연주한다.

③ (사)에서 빗줄기는 계속 거세졌다 잦아지길 반복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나'가 겪는 고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④ '나'는 피아노가 물에 잠겨 못 쓰게 될까 봐 걱정하며 그 순간 가슴이 굵히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15 **❖서술형** (사)에서 '나'는 빗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피아노가 잠기는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아빠의 전화를 받고, 설상가상으로 언니의 예전 애인이 술에 취해 찾아오기까지 한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나'는 집주인과의 약속을 깨고 피아노를 침으로써 현실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도도하게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가 처한 상황을 포함하여 썼다.	☐
'나'의 행동에 드러난 태도를 포함하여 썼다.	☐

16 ㉠ '깨끗한 건반이 한눈에 들어왔다.'는 현재 빗물이 들어와 엉망이 된 방과 같은 '나'의 암울한 처지와 달리, 하얗고 깨끗한 피아노 건반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단원 평가 문제

본책 054~057쪽

01 ④ **02** ② **03** 홍건적의 침입으로 죽은 최 여인이 환신하여 이 서생과 재회해 부부의 연을 이어 간다. **04** ② **05** ⑤
06 ① **07** ④ **08** ① **09** ③ **10** ④ **11** 방 안의 습기 때문에 피아노가 썩을까 봐 걱정되어 피아노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다. 주인집에서 내는 공사 소음 때문에 피아노를 치고 싶었다.
12 ④ **13** ③ **14** ① **15** ②

01 이 글은 주인공인 이 서생과 최 여인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인물의 행복과 불행이 반복되며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전기 소설로, 이 서생과 최 여인이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② 이 글은 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보다는 두 인물의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주제로 한다.

③ 영웅적 인물이 아니라 외모와 능력이 뛰어난 재자가인(才子佳人)형 인물이 등장한다.

⑤ 편집자적 논평은 작품의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상황을 설명해 주거나, 등장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서술자는 작중 상황이나 인물의 심리 등에 대해 파악하여 전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있지는 않다.

02 (다)에서 이 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이 서생은 죽은 최 여인이 환신하여 나타난 것임을 알면서도 의심을 품지 않았다.

03 **❖서술형** (나)에서 도적에 의해 죽임을 당한 최 여인은 (다)에서 환신하여 이 서생 앞에 나타나고, (라)에서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이어 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듯 이승에 속한 사람인 이 서생과 저승에 속한 영혼인 최 여인이 만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은 작품 전체에 신비한 분위기를 부여하는 전기적 요소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라)에서 전기성이 드러난 부분을 썼다.	☐

04 (나)에서 최 여인이 정조를 지키기 위해 도적을 크게 꾸짖다 도적의 손에 죽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의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서생의 혼인에 이 서생 아버지가 반대하고 최 여인의 부모가 두 사람을 이어 주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아, 당시 당사자의 생각대로 혼례를 올리는 것이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나)에서 이 서생이 산으로 간 것은 흥건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도교 사상과는 관련이 없다.

④ (나)에서 최 여인이 죽음을 당하고 이 서생과 최 여인이 헤어지게 되는 것은 흥건적의 침입 때문이지, 가혹한 정치나 탐관오리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다.

⑤ (나)에는 입신양명이라는 유교적 가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 (라)에서 이 서생이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여인과 함께 지냈다고 하였으나, 이는 그가 입신양명보다 최 여인과의 사랑을 더 중시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05 이 글의 내용에는 불교적 세계관(삼세의 인연, 윤회 사상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벗어나려는 시도는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송도(개성)를 배경으로 하고, 이 서생과 최 여인이라는 우리나라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여 당대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이 서생과 최 여인이 서로에 대한 애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난 작가의 진보적 의식을 엿볼 수 있다.

③ 이 글은 『금오신화』에 실린 한 작품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④ 이 글은 죽은 최 여인이 환신하여 이 서생과 다시 만나 사랑한다는 비현실적 요소로, 죽음을 초월하는 지극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06 (가)에 삽입된 노래는 이 서생과 이별해야 하는 최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건을 빠르게 진행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사건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독자의 시선을 주인공의 정서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 ②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는 이 서생과 최 여인의 영원한 이별을 암시한다.

③ 이 노래는 이 서생과 영원히 헤어져야 하는 최 여인의 슬픔과 애절함이라는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④ ‘도적 떼 밀려와서 ~ 원앙도 짝 잃었네’에 이전에 일어난 사건(흥건적의 침입)으로 이별을 겪은 최 여인의 사정이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⑤ 이 노래는 최 여인이 부른 것으로 최 여인의 비극적 처지와 정서를 드러냄으로써 독자에게 정서적 여운을 남긴다.

07 (나)에는 이 서생과 최 여인의 비극적 결말이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가치를 부각하며, 독자에게 슬픔과 감동의 여운을 남긴다.

08 ㉠은 이 서생과 최 여인의 인연이 깊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세 번의 가약’이란 첫 만남, 혼인, 환신 후 재회를 의미하며, 여성의 재가와는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 ② ㉠에서 최 여인이 죽은 이가 이승에 오래 머무르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뚜렷하다는 당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③ ㉠에서 사랑하는 이의 곁에 항상 있을 수 있는 무산 선녀와 달리, ‘이내 몸’ 즉 최 여인은 저승으로 돌아가게 되어 이 서생을 다시 만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④ ㉠에서 ‘깨진 거울’은 이별을 상징하며, 이 서생과 영원히 헤어져 만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최 여인이 느끼는 쓰라린 아픔이 나타나 있다.

⑤ ㉠은 이 서생과 최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덧붙여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강조한다.

09 (나)에 ‘나’와 집주인의 대화가 제시되어 있지만 ‘나’와 집주인의 갈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글은 세대 갈등이 아니라, 인물의 일상을 통해 청년 세대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주거 환경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10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은 반지하 셋방으로, 이곳에서 ‘나’와 언니가 살아가는 모습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당대 청년들을 대표하여 보여 주며, 이런 점에서 당대 청년들이 처한 고단한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타인과의 교류 부족으로 인한 고독함이 일부 나타나지만, 반지하 셋방이라는 공간이 주로 상징하는 것은 열악한 물리적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이다.

② 현실을 극복하려는 도전적 삶보다는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더 부각된다. ‘나’는 현실을 극복하기보다는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③ 기성세대로 볼 수 있는 집주인은 오히려 청년들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 “지하는 원래 그렇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이를 보여 준다.

⑤ ‘나’와 언니는 경제적 여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며, 심리적 안정감도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빚 물이 차오르는 등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

11 **새술형** ‘나’는 방 내부의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고 피아노가 썩을까 봐 걱정되어 피아노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방 외부에서 주인집의 공사 소음이 들려오자 피아노를 치고 싶은 생각이 밀려들었다.

평가 기준	확인 ☒
방 내부, 방 외부의 요인을 모두 썼다.	☐

12 (나)에서 집주인 남자는 ‘나’가 제기한 곰팡이 문제에 대해 “지하는 원래 그렇다”며 세입자의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뜨는 모습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13 (나)에서 ‘수천 개의 만두가 공기 방울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는 표현은 어린 시절에 엄마가 운영한 만두 가게와 연관된 기억이 떠오르는 것으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노력과 꿈이 좌절되어 ‘나’가 느끼는 절망감과 관련이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언니는 ‘나’에게 ‘그런 적이 몇 번 있다고’, 빗물을 ‘걸레로 닦아 내면 관찮을 거라며’ 담담하게 말한다. 이는 언니가 이미 열악한 환경에 익숙해졌음을 보여 준다.

② (가)에서 ‘나’는 언니의 말을 믿고 방 안에 고인 빗물을 걸레로 닦아 냈으나, 계속해서 빗물이 차오르자 크게 당황하여 언니에게 전화를 하였다.

④ (가)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언니가 전화를 급히 끊는 모습은 잠깐의 통화도 할 새도 없이 생계를 위해 분주하게 일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나타낸다

⑤ 이 글의 제목인 ‘도도한 생활’은 피아노 음계의 가장 낮은 음인 ‘도’가 반복되듯 정체된 삶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힘겨운 삶 속에서도 도도하게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14 (나)의 ‘도는 긴 소리를 내며 방 안을 날아다녔다.’, ‘하나 둘 손 끝에서 돌아나는 음표들이 녹눅했다.’에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소리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나’는 침수되는 피아노를 연주하며 비극적 상황을 예술적 정서로 승화시키고 있고, 사내는 그 곁에서 잠을 자며 미소를 짓고 있다. 두 인물의 모습이 서로 다르게 묘사되었으나, 이를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의 대비로 보기는 어렵다.

③ ‘도-’, ‘레-’는 피아노 연주에서 비롯된 소리일 뿐, 인물의 상황을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깨끗한 건반’은 빗물이 차오르는 반지하 셋방의 열악한 현실과 대비되는 소재이다. 이는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것일 뿐, ‘나’의 인격적 순수성을 비유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⑤ 오토바이의 소음은 피아노가 물에 잠기는 것을 보며 느낀 ‘나’의 당혹감과 고통스러운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15 피아노는 당시 중산층의 이미지를 보여 주는 소재로, 반지하 셋방에 빗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피아노를 치는 ‘나’의 행동은 남루한 현실을 버티려는 것이자 ‘나’의 자존감을 지켜 내려는 행위이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빗줄기는 거세졌다 잦아지길 반복’한다는 내용을 통해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은 절망적인 상황을 버티 내려는 것일 뿐, ‘나’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은 아니다.

③ ‘나’에게 ‘피아노’는 일종의 자존심으로, ‘나’가 피아노를 치는 것은 도도한 태도로 현실을 버티고자 하는 것에 가깝다.

④, ⑤ ‘나’가 반지하방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은 허영심이나 위로 때문이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4 국, 교술 갈래의 이해

작품 1 리바운드

확인 문제

본책 060~069쪽

01 ⑤ 02 ① 03 ② 04 재윤의 슛 능력이 전혀 없고, 이를 안 양고가 간파하여 부산 중앙고는 사실상 4명이 뛰는 것과 같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05 ④ 06 ③ 07 ㉠은 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강 코치의 말에 용기를 얻은 재윤의 심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08 ④ 09 ⑤ 10 ③ 11 ④ 12 ② 13 덩크 슛 14 ⑤ 15 ② 16 ⑤ 17 ② 18 ④ 19 ㉠은 화면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밝히는 조명으로,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인물들의 의지와 희망적 분위기를 드러낸다.

01 이 글은 영화 제작을 위해 만든 각본인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오는 무대에서 배우들이 직접 상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희곡과는 달리 시각적인 영상 구현을 위해 다양한 촬영 기법과 편집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다.

02 이 글에 제시된 ‘앞부분 줄거리’에 따르면 부산 중앙고 농구부는 ‘과거 고교 농구 명문 중 하나’였으므로 ㄴ은 적절하다. 또한, 현재 ‘협회장기 전국 농구 대회에 출전’하여 마침내 4강까지 올라간 상태이므로 ㄷ도 적절하다. 학교 측은 농구부 출신 졸업생인 공익 근무 요원 강양현을 코치로 발탁하며 형식적으로 농구부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강양현 코치는 농구부를 다시 일으키고자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불러 모았으므로 ㄹ도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ㄷ. 군산시장배 고교 농구 전국 대회의 첫 경기에서 부산 중앙고는 몰수 패를 당하는 처참한 성적을 얻는다.

ㄹ. 부산 중앙고 농구부는 해체 위기에 처해 있고 학교는 전통을 고려해서 농구부를 형식적 수준에서 유지하기를 바란다.

03 (가)에서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 소리에 경기가 시작되면 바로 재윤을 제외한 나머지 부산 중앙고 선수들에게 수비가 집중되는 상황이 제시된다. 그러므로 재윤은 경기 도중에 교체되어 들어가지 않았으며, (가)의 마지막에 재윤이 슛을 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중계 2의 대사를 통해 정진욱이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③ 경기 시작 전의 중계에서 진욱의 부상으로 인해 부산 중앙고가 교체 선수 없이 5명만으로 시합을 뒀다고 제시하였다.

④, ⑤ 지시문에서 안양고가 드리블해 들어가는 기법, 순규, 강호, 규혁에게 각각 밀착 마크를 하였고, 특히 전진하는 기법에게는 두 명의 수비수가 붙어 패스나 드리블 모두 여의치 않다고 하였다.

- 04 **시술형** 중계진이 재운에 대해 지적한 내용은 슛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며, 그로 인한 영향은 안양고가 이를 간파하고 재운을 무시한 채 다른 선수들에게 밀착 마크를 하여 중앙고가 사실상 4명으로 경기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재운의 슛 능력이 없다고 언급한 내용을 썼다.	☐
상대 팀(안양고)이 재운의 약점을 간파하고 다른 선수들을 밀착 마크하면서 부산 중앙고가 실질적으로 4명으로 뛰는 상황이 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 05 과거 시점의 연습 장면인 (나)에는 ‘통산 득점 뺑뺑’인 재운에게 3점 슛 찬스 두 번을 성공시켜 기적을 만들라는 강 코치의 전략 제시와 재운에게 용기를 주는 강 코치의 격려가 드러나 있다. 이는 재운이 첫 3점 슛을 성공시키는 (다)의 결과를 위한 발판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나)에 제시된 대화나 내용은 재운의 노력과 강 코치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재운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 이해 더하기

「리바운드」의 등장인물

강양현	부산 중앙고 농구부의 MVP였으나 프로에서 활약 없이 은퇴함. 공익 근무 요원으로 근무 중에 부산 중앙고의 코치로 발탁됨.
천기범	천재 가드로 주목을 받았으나 키가 크지 않아서 슬럼프에 빠짐. 부산 중앙고에 괴물 센터 한준영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 중앙고 농구부에 입단함.
배규혁	발목을 다쳤으나 집이 가난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함. 길거리 농구를 하다 강양현의 설득으로 농구를 다시 시작함.
허재운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농구를 했으나 벤치에만 앉아 있어 공식 기록이 없음. 기본기가 부족했지만 강양현의 코치로 연습하여 실력을 닦음.
정진욱	중학생 때부터 부산 중앙고 농구부에 들어오고 싶다고 할 정도로 열정이 넘침.
홍순규	원래는 축구 선수였으나 키가 커서 강양현의 눈에 띄어 농구부에 들어옴.
정강호	길거리 농구를 하다가 강양현의 눈에 띄어 농구부에 들어옴.

- 06 (다)에 제시된 기사 중 ‘기적의 부산 중앙고, 우승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다’에 안양고가 우승 후보로 지칭된 점을 볼 때, 부산 중앙고가 경기 전부터 안양고에 비해 실력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의미는 담겨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변을 일으켰다는 의미가 강하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④, ⑤ (다)에 제시된 기사인 ‘기적의 결승행’, ‘멈추지 않는 돌풍’, ‘우승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다’에는 부산 중앙고가 약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뒤엎고 연이어 승리를 거두며 불리한 상황을 극복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07 **시술형** ㉠은 강 코치의 격려를 듣고 재운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에 사용되어, 인물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행동을 크게 확대하여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이는 강 코치의 말에 용기를 얻어 3점 슛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재운의 심리를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

평가 기준	확인 ☒
클로즈업(C.U.)의 의미로 대상을 확대하여 촬영한다는 내용을 썼다.	☐
클로즈업을 통해 드러나는 재운의 내면 심리(결심, 용기, 의지 등)를 썼다.	☐

- 08 (다)에서는 화면과 화면 사이에 다른 화면을 끼워 넣는 기법인 ㉡을 활용하여, 재운이 던진 공이 그물에 들어간 직후 심판이 손가락 세 개를 펴 보이는 모습을 삽입하였다. 이는 중계 해설을 통해 알려 주는 ‘3점 슛’이라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확인시키고, 재운의 생애 첫 득점이자 경기의 분위기를 뒤집는 중요한 득점이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부각하여 관객의 이해와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 09 <보기>에는 과거 규혁의 무단 이탈로 인해 규혁과 기범이 다투는 사이가 틀어졌던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라)에서 규혁은 팀의 승리를 위해 부상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하며, 기범은 갈등하다가 결국 규혁에게 패스를 한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동료로 인정하며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 10 ㉢은 기범이 규혁의 부상 악화를 염려하여 무리한 플레이 대신 안전하게 경기를 하라는 걱정을 담고 있다. 규혁에게 경기에 집중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에서 용산고가 고교 농구의 최강자라고 하였으므로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내며 결승전에 올라온 부산 중앙고에게는 버거운 상대임을 알 수 있다.

② ㉡과 같이 효과음은 경기 중에 삽입하면 경기의 긴장감과 현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④ ㉢에서 규혁이 발목에 심각한 부상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부상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포기 대신에 도전을 선택하는 규혁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은 경기 중에 골대로 돌진하는 규혁 때문에 당황한 용산고 선수들의 반응이다.

- 11 ㉤ ‘로 앵글(low angle)’은 카메라가 대상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구도의 촬영 기법으로, 날아오르는 규혁의 점프력과 앵리움 슛의 기세를 극대화하여 역동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카메라가 규혁을 내려다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2 (마)에서 응원과 박수 소리로 떠들썩했던 경기장이 규혁의 덩크슛 후에 정적에 빠지는 것은 규혁의 멋진 슛에 대한 관객들의 놀라움이 표현된 것으로 용산고 농구부의 반응과는 상관이 없다.

| 오답 풀이 | ① (마)의 마지막에 비추는 전광판을 통해 ‘<부산 중양고 33:49 용산고>’라는 스코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참고할 때 부산 중양고가 경기에 최선을 다하였는데도 큰 점수 차로 용산고에 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규혁의 덩크 슛 장면 뒤에 인서트(Ins.)를 활용해 ‘관중석에서 함성을 지르는 중양고 동문과 관중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규혁 어머니’의 모습을 끼워 넣어 덩크 슛 성공의 감동을 극대화하고 있다.

④ 치열한 접전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강 코치와 진욱의 얼굴과 함께 경기 중에 들리는 득점 소리, 관객들의 박수 소리를 삽입함으로써, 두 사람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마)에서는 기범의 패스를 받아 규혁이 덩크 슛에 성공한 후, 두 사람이 서로를 응시하는 모습과 함께 전반전 종료 부저음을 삽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두 선수의 협력과 전반전 마무리를 동시에 부각하고 있다.

- 13 **새술형** ‘덩크 슛’은 ‘공을 들고 뛰어서 림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내리꽂는 형태의 슛’을 의미한다. (마)에서 덩크 슛은 심각한 발목 부상에도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규혁의 의지를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 14 (바)에서 강 코치는 리바운드가 슛을 쏘서 들어가지 않았을 때 노력에 따라 다시 기회가 생기는 순간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강 코치는 후반전 경기를 앞둔 선수들에게 공이 림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얻는 것이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 15 ㉠ ‘로키(low-key)’는 화면 전체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명암 대비를 크게 하는 조명 기법을 말한다. 로키(low-key) 조명을 사용하여 선수들이 있는 공간을 어둡게 처리함으로써 그들의 패배감과 좌절감을 시각적으로 강하게 드러낸다(ㄱ). 선수들에게 리바운드를 잡아 내듯이 기회를 잡아 최선을 다하자며 격려의 말을 건네는 강 코치 쪽은 밝게 비추어 긍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한다(ㄴ).

| 오답 풀이 | ㄴ. 조명이 아닌 카메라 앵글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ㄷ. 강 코치의 만족스러운 심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에게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16 이 시나리오에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으나 각 인물들의 이야기를 인물마다 전개하고 있지 않다. 이 작품은 부산 중

양고 농구부에 모인 다양한 인물들이 협회장기 전국 농구 대회에 참여하여 경기를 치르며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2012년 부산 중양고 농구부가 대한농구 협회장기 전국 대회에 출전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관객들이 이야기에 더 깊이 몰입하고 공감하며 현실감을 느낄 수 있다.

② 이 글에 제시된 ‘클로즈업(C.U.)’, ‘하이키(high-key)’, ‘와이프아웃(W.O.)’ 등은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쓴 각본인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카메라의 움직임, 화면의 분위기나 전환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함으로써 각 장면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③ 강 코치와 선수들의 대사에서 드러나듯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대화에 자연스러움과 생동감을 부여하며 작품의 사실성을 높인다.

④ 협회장기 전국 농구 대회에 참여한 고등학교 농구부의 도전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인물들이 내적, 외적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이야기 구조를 통해 관객의 흥미와 감동을 유도하고 있다.

- 17 ‘가짜 실패’는 겉으로는 실패였지만, 사실은 선수들이 서로 리바운드를 잡아 내며 협력의 가치를 깨닫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수들을 성장시켜 결승전까지 오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즉, 단순한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깨달음과 성장의 발판이 되었기 때문에 ‘가짜 실패’라고 부른 것이다. 따라서 좌절의 경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도전할 발판이 된 실패라는 ②의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 18 [A]에서 강 코치는 선수들에게, 농구 경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리바운드의 의미를 떠올리며 살아가라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이는 어떤 일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다시 일어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A]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을 강조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든 승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 19 **새술형** ㉠은 대기실을 나온 선수들이 복도를 지나 코트로 들어가는 순간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큰 점수 차이가 난 불리한 상황이지만 힘차게 돌입하는 장면을 시각화함으로써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수들의 강한 의지를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의 개념을 포함하여 썼다.	☐
㉠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효과를 썼다.	☐

작품 2 뒤지가 진적

★ 확인 문제

본책 070~073쪽

- 01 ③ 02 ④ 03 '뒤지'는 밀싹개로 쓰는 종이이지만, 수감되어 세상과 단절된 작가와 동료들에게 소중한 읽을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진귀한 책이라는 의미인 '진적'으로 여겨진 것이다.
04 ③ 05 ② 06 ④ 07 ② 08 ④

01 이 글은 교술 갈래로, 수필에 해당한다. 수필은 일상적 체험이나 관찰에서 얻는 생각이나 깨달음을 서술하여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 수필은 실제 체험이나 관찰에서 제재를 얻으므로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서술한다는 ③은 적절하지 않다.

02 (나)에서 '우리 동지들의 가족 중에서 음식물의 차입을 할 적에'라고 하였으므로 작가가 동지들과 같은 감옥에 갇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두 평쯤이나 뿔까 말까 한 좁은 감방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일본이 전쟁 중이라고 하였으므로 당사가 일본의 통치하에 있는 일제 강점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나)에서 작가는 감방 안에서 공급받은 뒤지가 도서관에서 책을 대하듯 귀중한 읽을거리였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경찰서나 형무소에서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바깥 세상의 소식을 아는 것을 지극히 꺼려 신문지 조각도 좀처럼 들여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 이해 더하기

조선어 학회 사건과 이희승

조선어 학회에서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우리말 사전 편찬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말기인 1942년 일본이 조선어 학회를 항일 독립운동 단체로 판단해 관련 인사들을 집단으로 체포 및 투옥했다. 이 사건으로 33명의 한글학자들이 옥고를 치렀다. 검거된 인사들 중 이윤재, 한징은 형무소 수감 중 옥사(獄死)하였다. 1945년 8월 17일에서야 투옥됐던 한글학자들은 석방되었고, 이후 조선어 학회를 재건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 출간을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이 글의 작가인 '이희승(1896~1989)'은 1930년에 조선어 학회에 들어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및 '표준어 사정'(1937) 사업에 깊게 관여하여 활동하다가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일어나 투옥된 뒤 1945년 8월 17일까지 복역하였다.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우리나라의 국어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03 **✎ 서술형** 이 글의 작가는 일제 강점기의 감방에서 열악한 수감 생활을 하며 외부 세계와 격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래 뒤지로 사용되어야 할 신문지나 잡지 조각들은 바깥세상의 글자를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식과 소통의 통로가 되고 있다. 작가는 이런 점에서 '밀싹개로 쓰는 종이'인 '뒤지'를, '진귀한 책' 즉 '진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수감되어 있는 작가의 처지와 관련지어 뒤지가 진적인 이유를 썼다.	☐
'뒤지', '진적'의 의미를 포함하여 썼다.	☐

04 ㉠은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의 수준이 높아 귀중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감방에서 읽을거리가 없었기에 뒤지에 쓰인 글들마저도 귀했다는 의미이다. 작가는 '뒤지'를 본래의 용도 외에 읽을거리로 사용하려고 애썼던 당시의 열악한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05 작가는 고달픈 옥중 생활에서 뒤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나날들을 담담히 서술하고 '마치 담배를 훔쳐 들이듯이'와 같이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작가의 긍정적 태도가 드러난다.

06 작가는 (마)에서 뒤지를 읽다가 봉변을 당하면서도 잡지 쪽 읽기를 단념하지 못하였다고 고백한 후,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은 벌을 받거나 모욕을 당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인력으로 좌우할 수 없는 본능이라고 말하고 있다.

07 작가와 동료들이 뒤지를 얻으려고 노력한 이유는 뒤지가 읽을거리가 되어 바깥세상 소식을 접하거나 지루한 시간을 견디게 해 주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뒤지 자체가 감방 내에서 권력의 상징이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모두가 함께 돌려 읽을 만큼 귀한 물건이었으므로, ②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은 뒤지를 얻기 위해 거짓으로 뒤를 보는 척했다는 의미로, 뒤지를 얻기 위한 작가와 동료들의 노력 중 하나이다. 작가와 동료들은 각자 뒤지를 읽고, 읽은 뒤지를 서로 돌려 읽었다고 하였으므로 먼저 읽으려고 경쟁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동지들이 읽기를 바라기 때문에 혼자 읽고 없앨 수 없었다는 것은 공유에 대한 의지와 동지애를 드러낸다.

② 간수의 눈을 피해 가며 몰래 읽었다는 것은 수감자들이 글을 읽는 행위조차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었다는 처지를 보여 준다.

③ 문초가 끝나고 구속만 되어 있는 동안 세월이 더더 지루하여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감방 생활의 무료함을 드러낸다.

⑤ 도둑글을 읽다가 들켜서 뒤지를 빼앗기고 뺨을 맞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글을 읽으려는 행위 때문에 작가와 동료들이 물리적인 고통을 겪었음을 보여 준다.

단원 평가 문제

본책 074~077쪽

01 ② 02 ④ 03 농구에 대한 애정으로 꾸준히 슛 연습을 한 재운의 노력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강 코치의 격려로 3점 슛을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04 ④ 05 가짜 실패 06 ⑤ 07 ④ 08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여 기회를 잡아 내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09 ⑤ 10 ⑤ 11 ④ 12 ④ 13 ⑤ 14 ②

01 이 글은 한 인물의 관점에서 이야기나 사건을 바라보고 진행하지 않고, 화면 밖에서 관객이 이야기나 사건을 바라본다는 것을 전제하여 장면이나 순서,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 등을 표현하고 있다.

02 이 글은 영화 제작을 위해 촬영을 전제로 쓴 시나리오이고, 〈보기〉는 무대에서 상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희곡이다.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은 시나리오에 비해 시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므로 시나리오를 희곡으로 바꾸어 쓸 때는 이러한 제약을 고려하여 무대 장치나 보조적 방법을 활용한다. 하지만 지시문, 대사, 해설은 시나리오와 희곡의 공통적 요소이고 〈보기〉는 오히려 (가)에서 재운이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을 “네.”라는 대사로 바꾸어 표현하였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② 희곡은 막으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바뀌는 것을 구분한다. 하지만 (가), (나)의 장면은 막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대 위의 공간을 나누고 각각의 무대 공간에 조명을 비추는 방법을 사용하여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바꾸는 효과를 내고 있다.

③ 시나리오의 장면은 카메라로 촬영되기 때문에 편집이나 영상 기법으로 3점 슛을 넣는 장면을 표현하기가 쉽다. 그러나 희곡에서는 무대 위에서 배우가 직접 3점 슛을 넣기 어려우므로 영상을 보조 장치로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⑤ 시나리오에서는 중계석과 중계하는 사람을 촬영하며 중계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나, 〈보기〉와 같은 희곡에서는 무대 위에 이미 설치된 무대 장치들 때문에 공간적 제약이 있어 효과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03 **| 시술형 |** 재운이 3점 슛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가)에서 강 코치가 언급했듯이 매일 밤 혼자 슛 연습을 해온 재운의 꾸준한 노력과, ‘통산 득점 시작일’이라고 용기를 북돋아 준 강 코치의 믿음과 격려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에서 강 코치가 한 격려가 재운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가)에서 강 코치의 대사에 나타난 재운의 노력을 포함하여 썼다.	☐

04 강 코치는 슛을 수십 번 쏘서 안 들어가도 그만큼 수십 번 리바운드 기회가 온다고 설명하며, 리바운드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는 발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리바운드는 실패 후 찾아오는 재도전의 기회를 의미한다.

| 오답 풀이 | ① 강 코치는 리바운드를 슛 실패라는 부정적인 상황 다음에 찾아오는 긍정적인 기회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리바운드는 새로운 기회로, 실패가 계속 이어지는 ‘연이은 실패와 좌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② 강 코치의 말은 선수들이 패배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 강 코치의 말 중에서 리바운드는 패배 의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패배 의식을 깨뜨리고 벗어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③ 강 코치가 말하는 리바운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기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리바운드는 수동적인 인내보다 적극적인 재도전과 관련이 있다.

⑤ 강 코치가 말한 리바운드는 노력하여 기회를 얻고자 하는 태도 변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훈련량을 늘리거나 실력 향상이라는 기술 향상의 의미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05 **| 시술형 |** (다)에서 강 코치는 선수로서의 실패와 모교에 돌아와서 겪은 실패를 뒤돌아보며 현재 전국 대회 결승전에서 선수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그 가짜 실패 덕분이었다’고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가짜 실패’이다.

06 ㉠ ‘로키(low-key)’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명암 대비를 분명하게 하여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기법이다. 이 장면에서는 조명 차이를 두어 선수들 쪽은 어둡게 하여 선수들의 패배감과 좌절감을 드러내고, 강 코치 쪽은 밝게 하여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 긍정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07 ㉡에서 ‘C.U.(클로즈업)’은 어떤 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촬영하는 기법이다. ㉡에서는 강 코치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에 가득 찬 부산 중앙고 농구부 선수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촬영 기법을 사용하면 관객은 인물의 심리에 공감하며 깊이 몰입하게 되므로 ④와 같이 인물의 심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 시술형 |** (가)에서 강 코치는 경기의 승패나 실패에 연연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슛 실패 후 공이 튕겨 나오면 다시 기회를 잡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눈앞의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다시 기회를 붙잡을 것을 인생의 교훈으로 전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내용을 썼다.	☐
'~이/가 중요하다.'와 같은 문장 형태를 지켜 썼다.	☐

- 09 이 글은 인물들의 대사에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작품의 사실성과 생동감을 높이고 있으며(ㄱ), 카메라 촬영 기법인 클로즈업(C.U.)과 와이프 아웃(W.O.) 등을 통해 선수들이 결의에 차 코트로 향하는 장면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ㄴ). 또한, (가)에서 강 코치의 “남은 경기, 그리고 …… 남은 인생. ~ 인생은 계속된다.”라는 대사를 통해 실패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의 중요성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ㄷ).

| 오답 풀이 | ㄷ. ‘뒷부분 줄거리’를 보면 부산 중양고는 결국 26점 차로 패배했으므로, 극적인 승리로 인한 반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 10 (가)와 (나)에서 선수들은 강 코치의 말을 통해 패배감을 극복하고 결의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초조함을 드러내도록 연기하라는 지시는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강 코치의 말이 끝난 후 선수들은 ‘리바운드!’라는 구호를 외친다. 이 구호는 결의와 의지를 상징하며, 직전까지 패배감에 젖어 있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따라서 구호를 힘찬 목소리로 외치도록 지시하는 것은 이 장면의 분위기에 적절하다.

② (가)에서 선수들은 강 코치의 격려를 듣고 ‘결의에 차 있다’고 하였다. 이는 경기에 대한 열망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마음을 담은 눈빛을 연기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강 코치의 말은 선수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연출가는 그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배우에게 진심과 설득력이 느껴지는 표정과 목소리를 요구할 수 있기에 적절하다.

④ (가)에 ‘손을 내미는 강 코치를 중심으로 모이는 아이들, 손을 포개는 기범, 규혁, 순규, 강호, 재윤, 진욱(클로즈업(C.U.). 포개지는 손들).’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손을 포개는 행동을 클로즈업하여 강 코치와 아이들이 의지를 다지는 장면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지시는 적절하다.

- 11 <보기>는 ‘하이키(high-key)’에 대한 설명으로, 이는 화면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밝히는 조명을 비추어 희망이나 긍정, 밝은 정서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된다.

| 오답 풀이 | ① ‘이펙트(E.: effect)’는 화면에 삽입되는 효과음과 같은 음향을 말한다.

② ‘인서트(Ins.: insert)’는 화면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화면과 화면 사이에 다른 화면을 끼워 넣는 것을 말한다.

③ ‘클로즈업(C.U.: close-up)’은 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⑤ ‘로 앵글(low angle)’은 카메라 위치를 낮은 곳에 두고, 높은 곳에 위치한 대상을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 12 이 글은 작가가 수감되어 지내던 당시, 뒤지와 같이 평소 하찮았던 물건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회고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작가는 뒤지를 얻으려는 노력에 대해 인간의 본능적인 의욕이라고 평가하고 있을 뿐, 이를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⑤ 작가는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도 당시의 상황을 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③ 작가는 일제 강점기에 감방에 갇혀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도록 통제받고, 읽을거리조차 없어 뒤지를 통해 읽고자 하는 욕구를 해소해야 하며, 어렵게 구한 뒤지를 몰래 읽다가 들켜 모욕을 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억압적 상황에 대하여 뒤지를 얻기 위해 헛뒤를 보거나 똥통 위에 앉아 뒤지를 읽는 등의 행위를 묘사하며, 비참한 현실을 해학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 13 (다)에서 작가는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은 벌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만으로 깨끗이 청산하여 버리지 못하는 것이 역시 인간인가 싶었다’며 인간 의욕의 본능적인 특성을 깨닫는다. 물질적 풍요는 이 글의 주제인 일제 강점기 감옥의 현실에 대한 폭로나 글을 읽고자 하는 강한 의지(본능)와 연관이 없다. 작가가 동료들과 협력한 것은 읽을거리를 구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함이며, 작가가 협력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얻은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뒤지를 읽다가 들켜 모욕을 당’한 것은 (다)의 ‘도둑글을 읽다가 들켜서 뒤지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뽀를 맞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를 통해 작가의 경험임을 알 수 있다.

② ‘뒤지를 입수하고자 청소꾼을 이용’한 것은 (다)의 ‘다량으로 뒤지를 입수하기에 청소꾼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다.’를 통해 작가의 경험임을 알 수 있다.

③ ‘뒤지를 보기 위해 일부러 뒤를 보기도’ 하였다는 것은 (나)의 ‘가다가는 뒤지를 얻기 위하여 헛뒤를 보는 일도 있었다.’를 통해 작가의 경험임을 알 수 있다.

④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의욕은 인력으로 쉽게 꺾을 수 없다’는 것은 (다)의 마지막 부분에서 직접 서술하며 이를 ‘인력으로 좌우할 수 없는 본능의 소치’라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가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임을 알 수 있다.

- 14 (다)에서 작가는 청소꾼을 이용하여 뒤지를 입수한다고 하였을 뿐, 간수들이 보는 신문지나 잡지를 직접 훔쳐 읽는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04 문학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작품 1 가 산이 날 에워싸고 나 저 산이 날더러

★ 확인 문제

본책 079~081쪽

01 ③ 02 ④ 03 ③ 04 산 05 ④ 06 ④ 07 ③

01 (가)는 ‘~ 살아라 한다’를, (나)는 ‘~라 한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각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부각한다. 즉 (가)에서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나)에서는 화자가 처한 비참한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02 (가)는 ‘산이 ~ 살아라 한다’와 같이 자연물인 산이 화자에게 한 말을 인용 표현의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산이라는 자연물을 의인화한 것은 맞지만, 자연물의 속성을 인간의 성격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② 청유형 어미가 아니라 명령형 어미(‘-아라’)가 활용되었으며, 이는 산이 화자에게 한 말을 전달하는 것으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날 뿐,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③ (가)에 다양한 심상이 활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연의 생명력이 아니라 화자가 지향하는 소박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자연물에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인 산이 화자에게 한 말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3 (가)는 ‘들쭉레처럼’, ‘쑥대밭처럼’, ‘그믐달처럼’과 같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을 형상화하고, (나)는 ‘흙이나 파먹으라’, ‘쑤이 되라’, ‘쑥국새마냥 올라’ 등을 통해 가난으로 인한 비참하고 서글픈 현실을 강조한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현재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자연 속 소박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나)는 과거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현재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낸다.

② (가)는 가족을 이루어 소박하게 사는 삶을 그릴 뿐 가족 공동체의 결속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고, (나)는 가족 공동체의 해체가 아니라 가난의 대물림을 보여 준다.

④ (가)는 자연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삶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상적 삶을 지향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나, (나)는 현실적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현실에 대한 절망을 드러낸다.

⑤ (가)는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에 대한 지향이 드러날 뿐 고난을 이겨 내는 민중의 힘과는 관련이 없으며, (나)는 고난을 버텨 내는 인내가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가난에 대한 절망을 드러낸다.

04 ✎ **서술형** (가)와 (나)는 모두 ‘산이 ~ 살아라 한다’, ‘산이 ~라 한다’와 같이 ‘산’을 화자에게 말을 건네는 발언의 주체로서 의

인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는 자연에 순응하는 소박한 삶의 모습을, (나)는 화자가 처한 참혹한 현실을 강조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5 (가)는 [A]-[B]-[C]로 전개되면서 생계(‘씨나 뿌리며’, ‘밭이나 갈며’) → 일상(‘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쭉레처럼’, ‘쑥대밭처럼’) → 정신의 달관(‘그믐달처럼’)으로 자연 지향적 삶의 모습이 점층적으로 고양되는 양상을 보인다.

06 ㉠ ‘들쭉레’는 들에 자생하는 소박한 자연물로,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스럽고 소박한 삶을 상징하며, 세속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시어이다.

07 ㉡ ‘쑥국새’는 화자의 괴로움과 절망감을 해소해 주는 자연물이 아니라, 울음을 통해 화자의 비애를 심화하며 처절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구체화하는 존재이다.

작품 2 하지 지나 백로

★ 확인 문제

본책 082~087쪽

01 ③ 02 ② 03 제대로 된 사위 04 ⑤ 05 ③ 06 ④
07 ④ 08 ③ 09 ④ 10 ⑤ 11 과거에는 서로 바짓가랑이를 움켜잡는 등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였으나, 현재는 화해를 이루어 연대하는 관계로 변화하였다.

01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은 1930년대 농촌 마을로, 철학적이거나 추상적 의미를 담은 관념적 공간이 아니라 인물들이 생활하는 삶의 터전이다. 또한 이 글은 배경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기보다, 인물들의 심리나 관계 변화를 보여 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앞부분 줄거리’의 ‘어제저녁 장인이 ‘나’를 찾아와’, ‘작년 가을을 회상한다’라는 내용, (다)의 ‘바로 어제저녁, 우리 집에 들른 장인님’에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②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가 겪은 일을 자신이 직접 서술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④ ‘천렵’, ‘관격’ 등 농촌의 향토적 분위기가 느껴지는 토속적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⑤ 이 글은 원작의 특징인 구어체 표현을 계승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02 (라)에서 장인은 막넛사위에게 ‘우리 끝순이가 웬만큼 크면’ 성례를 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바로 시켜 줄 것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나’는 막넛사위의 ‘족제비처럼 위로 솟은’ 눈꼬리가 어수룩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형님, 형님’ 굽실거리는 모습을 ‘그리 썩 미덥진 않’게 여겼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장인이 ‘나’에게 일을 시키려 찾아오자 점순이는 ‘나’가 ‘마실을 갔다는 등, 천렵을 갔다는 등’ 둘러댔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막넛사위는 ‘돌림병으로 부모도 잃고’, ‘이곳저곳 떠돌다가’, ‘나’가 사는 ‘동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⑤ (라)에서 장인은 ‘글도 잘 몰랐’고 ‘까막눈’이라고 하였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03 **새술형** (라)의 ‘제대로 된 사위’는 순진한 데릴사위들을 속여 부려 먹던 장인이 이번에는 막넛사위에게 속게 된 역전된 상황을 드러내는 반어적 표현이다.

04 막넛사위는 장인보다 교활하고 뻔뻔한 인물로, 글을 모르는 장인을 속여 계약을 맺고 계약대로 하겠다며 일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현재의 새로운 가치관과 인식에서 이러한 인물을 등장시켜 1930년대의 마름과 머슴이라는 계층 구조에 대한 저항의 모습을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는 1930년대 지주, 마름, 소작농이라는 계층 구조와 마름과 머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가족 관계의 변화를 보여 준다는 내용은 <보기>를 참고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이 글에는 계층 간 격차가 있는 당대의 상황이 드러나 있으며 평등한 관계를 맺는 현재의 사회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장인이 막내딸의 배필을 데릴사위로 들어 노동을 시키려는 데서 농촌에서 노동력이 중시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으나, 이 글에서 그러한 노동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는 <보기>의 내용과도 관련이 없는 감상이다.

④ (마)에서 ‘나’는 장인의 하소연을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였고, (바)에서 점순이의 말을 듣고 나서야 장인의 계약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게 되었으므로 현재의 가치관이 드러난 인물로 볼 수 없다.

05 (사)는 ‘나’와 장인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가는 장면이다. ‘나’가 장인에게 안쓰러운 심정을 느끼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와 연대로 나아갈 것임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 오답 풀이 | ① 그동안 ‘나’를 억압하던 장인의 모습이 초라하게 묘사되고 이를 지켜보는 ‘나’도 연민을 느끼고 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나’는 자신을 팔시하던 장인이 ‘짜부라지고 맥 빠진’ 모습을 보며 ‘잔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느꼈다.

④ ‘비릿한 풀내’, ‘두꺼비’, ‘부엉이 소리’ 등의 감각적 표현을 통해 여름밤의 서정적이고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⑤ ‘으스스대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어딘지 짜부라지고 맥 빠진 노인네’라는 표현에서 장인의 위축된 모습이 드러나 있다.

06 ‘나’는 막넛사위와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장인과 협력하여 막넛사위에게서 계약서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마)와 (사)를 통해 ‘나’가 장인의 말에 속아 육 년 동안 팔시를 받으며 일했음을 알 수 있다.

②, ③ (마)에서 막넛사위가 장인을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고, ‘빙장님, 빙장님, 저하고 계약을 했잖아요’라며 계약을 근거로 일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행동했다고 하였다.

⑤ (마)에서 ‘나’는 ‘역시, 사람은 글을 배워야 하는 것인데…… 나는 글을 모르니 육 년이나 데릴사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07 점순이는 ㉠에서 장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라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와 막넛사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장인이 협력하여 막넛사위의 계약서를 없애도록 조언하고 있다.

② 가문의 명예를 다시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계약서를 없애자고 제안하고 있다.

③ 점순이는 막넛사위를 찾아가 갈등의 원인인 계약서를 직접적으로 없애는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하는데, 이는 장인의 권위와 체면을 세심하게 고려하거나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⑤ 점순이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므로, 의욕만 앞세우는 인물로 보기 어렵다.

08 ‘백로’는 계층 간 불평등 해소나 경제적 풍요가 아니라, ‘나’와 장인의 관계가 대립에서 화해와 연대로 전환되는 성숙의 시기를 의미한다.

09 장인은 지주인 배 참봉 댁을 찾아가겠다는 ‘나’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점순이의 성례를 허락했다고 하였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10 장인이 힘없이 걷다가 ㉠과 같이 원래 모습을 되찾은 까닭은 ‘나’와 협력하여 막넛사위에게서 계약서를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11 **새술형** ‘나’와 장인은 원작 「봄·봄」에서 지계막대기로 때리고 얻어맞으며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였으나, 이 글에서는 장인이 ㉠과 같이 ‘나’에게 지계막대기를 들 것이냐는 농담을 던지며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화해와 연대의 관계로 변화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서 연대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하였다는 내용을 썼다.	☐
(아)의 내용을 활용하여 썼다.	☐

단원 평가 문제

본책 088~091쪽

01 ① 02 ② 03 ① 04 ④ 05 '그믐달'은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가늘어지는 달처럼 화자가 지향하는 삶 또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소멸하는 삶을 의미한다. 06 ④ 07 ① 08 ② 09 ④ 10 ① 11 본래 '집 나온 강아지'처럼 여겼으나 자신을 속여 계약서를 작성한 뒤 뻔뻔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호랑이 새끼'라며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12 '나'의 말을 듣고 자신감을 회복하였기 때문이다. 13 ⑤ 14 ①

01 (가)는 '산이 ~ 살아라 한다', (나)는 '산이 ~라 한다'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2 (가)에서 '산'이 화자에게 '살아라 한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에 굴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 속 소박한 삶의 모습을 산의 목소리를 빌려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03 (가)와 (나)는 모두 '산'을 의인화하여 산이 화자에게 한 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표현하고 있으며, 화자가 '산'에 말을 건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② (나)는 (가)의 '~ 살아라 한다'로 시행을 끝맺는 인용 표현을 차용하여 '~라 한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③ (나)는 (가)의 수미상관 구조를 차용하여 시의 앞부분 '산이 날더러 /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를 시의 뒷부분에서 '산이 날더러 /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④ (나)는 (가)에 드러난 자연 친화적이고 소박한 삶에 대한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난하고 비참한 삶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바꾸어 새로운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⑤ (나)는 유사한 표현의 반복, '산'이라는 자연물이 화자에게 건넨 말을 전달하는 형식 등 (가)와 표현상 유사하면서도, 비참한 삶의 현실이라는 (가)와 상이한 주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가)의 패러디로 볼 수 있다.

04 (가)는 '생계 → 일상 → 달관'으로 자연 속 삶의 모습에 담긴 의미가 점층적으로 고양되는 양상을 보인다.

05 **서술형** '그믐달'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가늘어지는 달의 형상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그믐달'이라는 시어를 썼다.	☐
'자연의 섭리(순리)에 따라 소멸하는 삶'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06 (가)에서 ㉠ '산'은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 속 소박한 삶의 공간이자 속세를 벗어난 초월적 대상이고, (나)의 ㉡ '산'은 화자에게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대상이다.

| 오답 풀이 | ① ㉠은 자연 속 소박한 삶과 관련이 있으며, 민중의 처절함과 비애와 관련된 대상은 ㉡이다.

② ㉡은 자연과의 합일이나 달관적 삶을 나타내지 않고, 비참한 현실을 강조하는 대상이다.

③ ㉠은 이상적인 자연 속 삶을 드러내는 대상이고, ㉡은 비참한 현실적 삶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⑤ ㉠과 ㉡은 모두 시적 상황을 바꾸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지향하는 삶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07 ① '밭이나 갈며'는 자연 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소박한 삶을 의미한다.

| 오답 풀이 | ② ㉠은 도피처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을 의미한다.

③ ㉡은 삶의 대물림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가족을 이루어 사는 평범한 일상을 나타낸다.

④ ㉡은 들에 자생하는 들쭉레처럼 자연스럽고 소박하게 사는 삶을 의미한다.

⑤ ㉡은 죽음을 인간의 한계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삶을 의미한다.

08 ① '쭉굴형에 박혀'는 쭉이 무성한 거친 땅에 갇혀 있는 것으로, 현재의 궁핍하고 비참한 삶의 현실을 나타낸다. 삶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와는 의미상 거리가 멀다.

| 오답 풀이 | ① ㉡은 삼질과 같은 힘겨운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고달픈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

③ ㉡은 쭉국새의 구슬픈 울음소리를 통해 화자의 비애를 심화시키고 쓸쓸하고 애달픈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④ ㉡은 냉소적인 태도로 화자에게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산'과 화자 사이의 거리감을 나타낸다.

⑤ ㉡은 부모 세대의 가난과 굶주림이 자식 세대로 대물림되어 이어지는 상황을 나타낸다.

09 이 글의 핵심 갈등은 새로운 데릴사위(막넛사위)와 장인의 갈등이며, '나'는 오히려 장인과 협력하여 막넛사위에게 대응하려 한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원작과 같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② 막넛사위(끝순이의 배필이자 데릴사위)라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켰다.

③ 막넛사위는 글을 모르는 장인을 속여 계약을 맺는 교활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⑤ 점순이는 '나'와 장인이 막연히 앉아 있을 때 '없으면 되지'라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10 점순이는 막넛사위에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장인과 '나'를 보고 답답해하며, 계약서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이를 넘겨받아 없애 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과 같이 이야기한 것이다.

- 11 **📖** 장인은 막넛사위가 계약을 근거로 일도 하지 않자, '집 나온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호랭이 새끼'를 받았다고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
막넛사위가 계약을 근거로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뻔뻔하게 행동했다는 내용을 썼다.	☐
'집 나온 강아지', '호랭이 새끼'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썼다.	☐

- 12 **📖** 장인은 막넛사위의 행태에 '어딘지 짜부라지고 맥 빠진 노인네'처럼 힘없이 길을 걷다가, 막넛사위에게서 계약서를 빼앗자는 '나'의 구체적인 제안을 듣고 예전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되찾았다.

평가 기준	확인 ☒
장인이 '나'의 제안을 듣고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내용을 썼다.	☐

- 13 '하지'는 여름의 낮이 가장 긴 시기로 원작에서의 격렬한 갈등을 의미하고, '백로'는 서늘한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로 갈등이 해소되어 화해와 연대로 접어드는 인물들의 성숙한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하지 지나 백로'는 '관계의 변화에 따른 인물들의 성숙과 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를 참고할 때, 인물들의 대립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여름의 '하지'라고 볼 수 있다. '하지 지나 백로'는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여 이루는 화해와 연대를 의미한다.

② 새로운 만남과 이별은 이 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보기>의 설명과도 관련이 없다.

③, ④ '하지 지나 백로'는 갈등의 심화와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는 여름('하지')을 지나 성숙의 시기인 가을('백로')을 맞아 대립에서 화해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이 글에 소통이 단절되는 모습이나 내면의 갈등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 14 <보기>에 따르면 원작에서 '나'는 성례를 시켜 준다는 장인의 약속에 속아 넘어가, 흠뻑 얻어맞고도 묵묵히 일터로 향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오히려 장인과 협력하여 막넛사위에게 대응함으로써 화해를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이 글은 마름과 머슴의 관계, 데릴사위 관습 등이 드러나 있으나, 결혼 관습의 변화 양상이나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양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원작의 인물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통해 인물의 성장과 변화를 그리고 있다.

③ 이 글은 비애를 극대화하거나 불행한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학적 분위기 속에서 인물들의 화해와 연대를 그리고 있다.

④ 주변 인물(점순이)의 개입이 나타나지만, 공동체의 힘보다는 '나'와 장인 두 사람의 협력과 화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⑤ 이 글은 비극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해학적이고 열린 결말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여운을 남기고 있다.

05 문학과 매체

작품 1 식빵을 기다리는 동안

★ 확인 문제

본책 094~095쪽

01 ⑤ 02 ④ 03 속이 팍 찬 소시민 04 ④

- 01 이 영상 시에 사용된 장면은 화자가 처한 현실과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며 분위기를 표현한다. 화자는 식빵을 기다리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선명하고 따뜻한 색감의 일러스트는 이러한 시적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다.

| 오답 풀이 | ① 이 영상 시는 행 간격을 조정하여 원작 시의 연 구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② 연두색, 노란색, 하늘색, 주황색 등 선명한 색감의 일러스트를 사용하여 따뜻하고 부드러운 시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③ 식빵, 사람, 낙타 등의 이미지를 통해 시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전달하고 있다.

④ 손글씨 느낌의 둥글둥글한 서체를 사용하여 화자의 부드럽고 따뜻한 정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02 '장면 5'의 '뜯을 때보다 / 뜯길 때가 더 마음 편한 거래.'에서 식빵이 소비되는 특성을 통해 배려와 희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식빵은 사람들에게 뜯겨 먹힘으로써 영양을 제공하고 행복이나 만족을 준다는 점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성격을 지녔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영상 시에서 독서의 중요성은 언급되지 않으며, 화자는 '꾸준히 한 장씩 식빵만 먹으면 / 사람이 될 수 있대.'라며 거창하지 않은 일상적 실천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

② '꾸준히 한 장씩 식빵만 먹으면 / 사람이 될 수 있대'는 식빵을 먹는 것처럼 평범하고 작은 실천을 통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③ 식빵이 뜯긴 모습은 배려와 희생의 모습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며, 화자가 이러한 식빵의 모습에서 능력 향상을 떠올리고 있지도 않다.

⑤ 오히려 수동적으로 내어주는 태도(뜯길 때)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으며,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 03 **📖** 화자는 '속이 팍 찬 소시민이 될 수 있고 / 위기마다 일 어설 수도 있대.'라며 식빵의 특성(부풀어 오르며 속이 채워지는 것)을 통해 평범하지만 내실 있는 삶을 사는 소시민을 떠올리고 있다.

- 04 마지막 구절 '낙타보다 식빵보다 / 내가 먼저 무너져 걱정이 긴 하지만'에서 불안과 걱정의 대상은 낙타가 아니라 화자 자신임을 알 수 있다. '낙타'는 오히려 화자가 '수고했다'고 말하며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 오답 풀이 | ① ‘네모를 유지해 가며’라는 표현에서 식빵의 네모난 형태가 주는 안정감을 엿볼 수 있다.

② ‘웅크린 채 몸을 말고 있다 보면 / 부풀 수 있다.’에서 식빵이 부풀어 오르는 탄성을 지닌 존재임을 알 수 있다.

③ 낙타는 ‘햇볕에 부푼 낙타 등’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뜨거운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⑤ ‘식빵과 나란히 누워 / 일광욕을 하고 싶어.’, ‘낙타 등을 어루만지며 / 수고했어. / 라고 말해 주고 싶어.’ 등의 시구를 통해 화자가 ‘식빵’과 ‘낙타’에 대해 친밀감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2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 확인 문제

본책 096~102쪽

01 ⑤ 02 ② 03 ③ 04 ④ 05 ⑤ 06 별도의 칸으로 구분하지 않고 피란을 가는 피란민의 모습을 크게 그려 전쟁의 참상을 강렬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07 ④ 08 ⑤ 09 ① 10 ⑤ 11 ㉠은 엄마의 말을 듣고 놀란 ‘나’의 반응을 말풍선 속 문장 부호(느낌표)를 통해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12 ③ 13 ③

01 이 작품은 원작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만화로 그린 것으로, 만화는 칸을 기본 단위로 하되 사건 전개, 인물의 심리 변화, 강조하려는 내용 등에 따라 칸의 크기와 배열을 달리하여 의미를 표현한다. 따라서 칸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만화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2 (나)에서 헬리콥터의 방송은 엄마의 대사와는 다른 모양의 말풍선으로 제시하였다. 말풍선의 모양을 달리한 것은 인물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라 아니라, 공습 안내 방송의 긴급함과 위급함을 부각하기 위함이다. 날카롭고 뾰족뾰족한 형태의 말풍선은 헬리콥터에서 나오는 서둘러 피란을 떠날 것을 재촉하는 긴급 방송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특정 인물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엄마의 말풍선은 일반적인 형태로 그려져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의 첫 장면에서 공습을 알리는 헬리콥터의 모습을 화면 중앙에 크게 확대하여 그려, 공습 상황의 위급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엄마와 ‘나’의 상반신을 확대한 장면에서 엄마의 단호한 표정과 ‘나’의 불안한 표정을 세밀하게 그려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④ 상단의 장면에서 피란 행렬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그려, 수많은 피란민들이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보여 주고 있다.

⑤ “서둘러 피란을 떠나십시오! 중공군이 삼팔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라는 공습 안내 방송을 날카롭고 뾰족한 형태의 말풍선으로 표현하여 긴급한 상황임을 시각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03 (나)에서 피란 행렬을 채도가 낮은 어두운 색조로 표현한 것은 전쟁의 참혹함과 피란 상황의 비극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피란민들의 힘들고 비참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04 (다)에서 ‘나’가 오빠와 함께 피란길에 오르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돈다! 와, 엄마, 정말 힘세다!”라며 엄마의 행동에 감탄하고, 오빠를 부축해 오라는 엄마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다)는 엄마가 손수레를 수리하고, 오빠를 병원에서 데려오며 피란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이다.

② “여기다 오빠를 싣고 가면 돼.”라는 엄마의 대사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③ “어서 오빠 부축해 와!” / “알았어요.”라는 대화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⑤ “돈다! 와, 엄마, 정말 힘세다!”라는 ‘나’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5 (다)는 ‘헛둘, 헛둘!’, ‘깁, 끼익!’, ‘으라차!’와 같은 의성어를 인물의 대사와 다른 서체와 크기로 표현하여, 손수레를 고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다)에는 줄글이 아닌 인물의 대사, 인물의 행동을 표현한 그림을 통해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② (다)는 흑백이 아닌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그림을 표현하고 있다.

③ 배경은 인물과 같은 느낌의 수채화 기법으로 그려져 있으며, 사진과 같이 세밀하게 묘사되지는 않았다.

④ (다)의 칸 크기는 인물의 비중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으며, 인물의 위상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06 **새술형** (라)는 1·4 후퇴로 인해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며 피란을 가는 수많은 피란민들의 모습을 별도의 칸으로 구분하지 않고 두 페이지에 걸쳐 크게 그렸다. 이는 대규모 피란 행렬의 규모와 전쟁의 참상을 강렬하고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다. 칸으로 구분하지 않고 크게 그림으로써 독자는 피란 상황 전체를 조망하며 그 비극성을 느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드러낸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7 ㉠은 1·4 후퇴로 인해 피란길에 오른 피란민들의 처지를 줄 글로 표현하여 상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만화에서는 이처럼 줄글을 활용하여 복잡한 상황이나 배경을 간결하게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08 (마)는 ‘나’의 가족이 ‘마지막 후퇴의 대열’에 뒤늦게 합류했으나, 피란 행렬에서 점점 뒤처지게 되었다는 내용을 줄글로 제시하고 있다. 또 “도저히 더는 못 가겠어.”, “한강 다리가 어떻게 조금만 더야.”라는 ‘나’의 말에서 체력적 한계로 인해 피란 행렬을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체력적 한계로 피란 대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② 피란 대열의 선두가 아니라, 대열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

③ “한강 다리가 어떻게 조금만 더야.”라는 말에서 현재 ‘나’의 가족이 한강 다리와 매우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란길이 몹시 고되어 잠시 이동을 멈춘 상황이다.

09 ㉠은 엄마가 수리한 손수레가 또다시 고장났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손수레의 바퀴가 삐걱거리며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은 손수레의 바퀴가 힘겹고 느리게 움직이며 내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③ ㉠은 수레를 끌며 힘에 부쳐 내뿜는 ‘나’의 숨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④ ㉠은 추운 겨울 날씨에 ‘나’가 힘들게 숨을 내쉬며 부는 입김의 모양을 표현한다.

⑤ ㉠과 ㉠은 모두 피란 대열에서 뒤처진 ‘나’의 가족의 상황과 피란길의 고됨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10 (바)에서 엄마는 “저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저기 머물렀다가 세상이 또 한 번 바뀌어 사람이 돌아올 무렵 우리도 피란 갔다 오는 것처럼 우리 동네로 돌아가자꾸나.”라며, 피란을 포기하고 피란을 다녀온 척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엄마는 중공군이 오지 않을 곳을 찾아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근처 동네에 머물고자 하고 있다.

②, ③ 엄마는 피란을 계속하지 않고 포기하려 하고 있다.

④ 피란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있는 근처 동네에 머물며 피란을 포기하고자 하고 있다.

11 **새술형** (바)의 ㉠에서 말풍선 안의 느낌표를 인물의 대사와 서체, 크기를 달리하여 표현한 것은, 피란을 포기하고 현저동에 머물자는 엄마의 뜻밖의 제안을 듣고 깜짝 놀란 ‘나’의 반응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문장 부호(느낌표)를 사용했다는 점을 썼다.	☐
놀란 ‘나’의 반응을 나타낸다는 내용을 썼다.	☐

12 (사)에서 ‘나’는 한강 다리까지 가야 하는 불가능한 목표 앞에서 느끼던 심리적 압박과 육체적 한계가, 현저동에 머문다는 현실적 대안을 마주하고 해소되면서 더 이상 고된 여정을 계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에 오히려 힘이 솟는다.

13 마지막 장면은 ‘나’의 가족이 수레를 끌고 현저동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란을 떠나 텅 빈 동네의 풍경을 원경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독자에게 전체 상황을 조망하게 함으로써, 피란을 가려던 사건이 마무리되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단원 평가 문제

본책 103~107쪽

01 ① 02 ① 03 ④ 04 ① 05 ② 06 식빵이 뜯기는 모습을 통해 배려와 희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07 ② 08 ⑤ 09 ⑤ 10 ② 11 의성어의 서체와 크기를 인물의 대사와 다르게 표현하여 상황을 생동감 있게 나타낸다. 12 ③ 13 ④ 14 ② 15 ③ 16 ‘나’의 가족이 피란을 가려던 사건이 일단락되었음을 보여 준다.

01 이 영상 시는 식빵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떠올린 생각을 형상화한 시를 영상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시상의 흐름에 따라 장면을 분할하여 제시하고(ㄴ), 각 장면에서 작품의 내용을 그림으로 형상화하여 제시하고(ㄱ) 있다.

| 오답 풀이 | ㄷ. 무채색이 아니라 연두색, 노란색, 하늘색, 주황색 등 선명한 색감의 일러스트를 사용하여 따뜻하고 부드러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ㄹ. 각진 모양의 서체가 아니라 둥글둥글한 모양의 서체를 사용하여 화자의 상상과 정서를 부드럽게 시각화하고 있다.

02 (나)에서 화자는 ‘부풀 수 있대.’, ‘속이 팍 찬 소시민이 될 수 있고 / 위기마다 일어설 수도 있대.’라며 성장의 가능성과 회복력을 떠올리고 있다. 이는 미래의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다)의 ‘식빵과 나란히 누워 / 일광욕을 하고 싶어.’에서 화자가 여유롭고 느긋한 순간을 상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라)의 ‘네모를 유지해 가며’와 ‘찢고 싶고’에서 화자가 안정감 속에서 일탈을 꿈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마)의 ‘꾸준히 한 장씩 식빵만 먹으면 / 사람이 될 수 있대.’에서 꾸준한 실천을 통한 성장을 떠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바)의 ‘햇볕에 부푼 낙타 등을 어루만지며 / 수고했어. / 라고 말해주고 싶어.’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향해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화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03 <보기>에서 시인은 식빵이 구워지기를 기다리며 평소에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생각들에 집중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웅크린 빵이 오븐에서 부풀어 오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 생각들도 농익은 색으로 변해갔지요.'라는 표현에서, 이 시간은 단순히 식빵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영상 시의 제목 '식빵을 기다리는 동안'의 의미로는 일상에서의 사소한 순간을 통해 사유하는 시간이 가장 적절하다.

- |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시인은 기다리는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생각'하며 '생각들도 농익은 색으로 변해' 간다고 말하므로,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유의 시간이다.
- ② 시인과 화자는 일상 속에서 평범한 식재료인 식빵을 통해 이것이 지닌 특성과 자신의 삶이 비슷하다고 느낄 뿐, 식빵을 나약한 존재로 여기거나 연민하는 태도는 보이고 있지 않다.
- ③ <보기>를 통해 식빵을 매개로 한 사유가 이 영상 시의 창작 배경임을 밝히고 있고, 이 영상 시의 화자 또한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사유하고 있을 뿐 잘못된 행동을 고백하거나 뉘우치고 있지는 않다.
- ⑤ 타자와 마음을 나누는 것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사유하는 개인적 성찰의 시간에 가깝다.

04 마지막 구절 '낙타보다 식빵보다 / 내가 먼저 무너져 걱정이긴 하지만,'에서 걱정이 되는 대상은 화자 자신이다. 화자는 사람들에게 의해 뜯겨 나가고, 뜨거운 사막의 햇볕으로 등이 부푼 식빵과 낙타를 생각하며 고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위로를 전하려 하지만, 그보다 자신이 먼저 무너질까 봐 걱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식빵이 화자의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 오답 풀이 |** ② '웅크린 채 몸을 말고 있다 보면 / 부풀 수 있네.' '위기마다 일어설 수도 있네.'라는 표현에서 식빵이 부푸는 모습을 보며 성장할 수 있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햇볕에 부푼 낙타 등'이라는 표현에서 낙타가 뜨거운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④ '식빵과 나란히 누워 / 일광욕을 하고 싶어.' '낙타 등을 어루만지며 / 수고했어. / 라고 말해 주고 싶어.'를 통해 화자가 두 대상에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식빵은 익으면서 둥글게 부풀어 오르고, 낙타는 햇볕에 등이 부풀어 있다는 점에서 외적 유사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05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화자는 (나)에서 평범한 식재료인 식빵을 보며 '소시민'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화자는 익으면서 속이 차오르며 부푸는, 탄성을 지닌 식빵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을 지닌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06 **새소형** (마)에서 화자는 '뜯을 때보다 / 뜯길 때가 더 마음 편한 거래.'라고 말한다. 식빵은 사람들에게 뜯겨 먹힘으로써 영양을 제공하고 도움을 준다. 화자는 뜯기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다고 하며, 식빵이 소비되는 특성을 통해 타인을 위한 배려와 희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제시된 문장 형태에 맞게 썼다.	☐
'가치'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썼다.	☐

07 인쇄 매체로 된 「식빵을 기다리는 동안」은 활자로만 되어 있어 오히려 독자가 글자만을 바탕으로 스스로 이미지를 구성하며 읽어야 하므로 장면 해석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주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가며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독자가 시를 감상하며 스스로 시의 발상과 주제를 해석해야 하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 | 오답 풀이 |** ① 인쇄 매체로 구현된 문학 작품은 독자가 스스로 이미지를 구성하고 의미를 해석하며 주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 ③, ④, ⑤ 영상 매체로 구현된 문학 작품은 시청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쉽고 생생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소 때문에 주체적인 감상에 방해받을 수 있다.

08 이 만화에서 '나'는 전쟁에 놀라고, 피란을 떠나기 위해 엄마의 지시에 따르는 모습을 보일 뿐 천진하거나 순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 | 오답 풀이 |** ① <보기>에 오빠가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었고, (나)에서 엄마의 "여기다 오빠를 싣고 가면 돼."라는 대사에서도 오빠가 걸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② <보기>에서 엄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시골을 떠나 서울로 이주하는 모습과, (나)에서 오빠를 데리고 피란을 떠나기 위해 손수레를 구하고, 손수레 바퀴를 직접 고치는 모습에서 실행력 있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③ (가)에서 중공군이 밀려오는 전쟁 상황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피란을 떠나자고 결단을 내리는 엄마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나)에서 '나'가 전쟁 상황이 위급해지는 상황에 다친 오빠를 돌보며 엄마를 도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9 만화는 칸, 말풍선, 그림, 줄글 등의 요소를 통해 내용을 표현한다. 또한 생략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표현하는 매체로, 이를 감상할 때는 칸과 칸 사이에 생략된 부분이나, 그림으로 암시된 내용을 상상하며 읽는다.

- | 오답 풀이 |** ①, ②, ③, ④ 배경 음악, 효과음과 같은 청각적 요소와 카메라의 촬영 기법이나 각도, 자막의 크기와 색깔, 장면의 분할과 표현 등은 영상 시나 영화 등 영상 매체를 수용할 때 고려할 요소이다.

- 10 (가)에서 공습 안내 방송을 나타내는 말풍선은 날카롭고 빠죽 빠죽한 형태로 그려져 있는 반면, 인물의 대사를 담은 말풍선은 일반적인 둥근 형태로 그려져 있다. 이는 헬리콥터에서 긴급하게 전달되는 공습 안내 방송의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상황의 위급함과 긴급함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소형미를 연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습 방송의 긴급함을 전달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다.

③ 공습 안내에 개의치 않는 담대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즉시 피란을 결정하고 있다.

④ 방송을 전하는 인물의 심리가 아니라, 상황의 긴급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공습 안내 방송은 실제로 헬리콥터에서 전달되는 것이지만, 인물의 상상이 아니다.

- 11 **✍서술형** ‘헛둘, 헛둘!’, ‘으라차!’는 손수레의 고장 난 바퀴를 빨리 고치기 위해 애쓰는 엄마의 기합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에서는 이러한 의성어를 인물의 대사와 다른 서체와 크기로 제시하여 상황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는 내용을 썼다.	☐
다른 대사의 서체와 모양, 크기가 다르다는 내용을 썼다.	☐

- 12 원작 소설에서 서술된 내용을 만화로 구성하면서, ‘행여나 하고 관망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국도를 질주하는 소리와 낮게 뜬 헬리콥터에서 마이크에 대고 피란을 독려하는 소리’로 서술된 부분을 (가)와 같이 칸 구분 없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표현하여 위급한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피란민의 다양한 모습을 다양한 크기의 칸으로 제시하였다는 ③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에 제시된 엄마의 말을 만화에서는 말풍선에 넣어 대사로 표현하였다.

②, ⑤ <보기>에서 헬리콥터가 낮게 떠서 마이크에 대고 피란을 독려했다는 서술을 (가)에서 헬리콥터를 확대하고 피란민들 머리 위로 날아가는 모습으로 역동적으로 표현하였다.

④ <보기>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피란민들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에서 작고 어둡게 그려 표현하였다.

- 13 (다)는 1·4 후퇴로 인해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며 피란을 가는 수많은 피란민들의 모습을 별도의 칸으로 구분하지 않고 두 페이지에 걸쳐 크게 그렸다. 이는 대규모 피란 행렬의 규모와 전쟁의 참상을 강렬하고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한 표현 방식으로, 칸을 크게 사용하여 전쟁의 참혹성을 부각한다.

| 오답 풀이 | ① (다)에는 피란민의 표정을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며, 대규모 인파를 어두운 색조로 그려 냄으로써 전쟁의 참상을 표현하고 있다.

② 원경으로 제시하여 비현실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조망하여 피란의 규모와 참상을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

③ (다)는 그림과 줄글로 표현되어 있으며, 인물의 대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다)에서는 채도가 낮은 어두운 색조를 사용하여 피란 상황의 참혹함을 표현하고 있다.

- 14 “한강 다리가 어떻게 조금만 더야.”라는 ‘나’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의 가족은 무악재를 겨우 넘고 있는 상황으로 한강 다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또한 길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체력적 한계로 피란 대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도저히 더는 못 가겠어.”라는 ‘나’의 말과 ‘후야’, ‘하야’라는 의성어를 통해 ‘나’가 고된 여정으로 인해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에서 엄마는 피란을 포기하고 근처 동네로 머무르자고 말하며, 이에 따라 (다)에서 ‘나’의 가족은 피란을 포기하고 손수레를 끌고 현저동으로 향하고 있다.

④ “그러나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것 같던 팔다리에 새로운 힘이 솟았다.”를 통해 ‘나’의 심리적 압박감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에서 엄마는 더 이상 피란을 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란을 포기하고 현저동에 머무르다가 피란 갔다 오는 척을 하자는 결단을 내리고 있다.

- 15 (나)에서는 피란을 포기하자는 엄마의 말을 들은 ‘나’의 반응을 느낌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놀라움을 표현한 것일 뿐 ‘나’가 엄마의 결정에 분노한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나’를 재촉하는 엄마의 얼굴을 확대하여 그림으로써 초조한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② (가)에서 ‘끼익’, ‘하야’, ‘후야’라는 의성어를 통해 피란 대열에서 뒤처진 ‘나’의 가족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④ (나)에서 기운을 차린 ‘나’가 ‘으라차!’라고 기합을 내지르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말풍선 속 물음표로 표현하고 있다.

⑤ (다)에서 ‘충충다리를 통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여 다소 길을 돌아가는, ‘나’의 가족이 현저동을 향하는 과정을 줄글로 압축하여 제시하고 있다.

- 16 **✍서술형** (다)는 ‘나’의 가족이 손수레를 끌고 현저동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란을 떠나 텅 빈 동네의 풍경을 원경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원경 표현은 독자에게 전체 상황을 조망하게 하여, 피란 시도가 결국 실패하고 다시 현저동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의 사건이 일단락되었음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평가 기준	확인 ☒
피란 가는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3. 역사와 함께 흐르는, 문학

1 한국 문학의 성격

작품 1 가 공무도하가 나 제가야산독서당

+ 확인 문제

본책 111~113쪽

01 ② 02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 03 ④ 04 ⑤ 05 ④ 06 ①
07 흐르는 물

01 (가)는 배경 설화와 함께 구비 전승된 작품이지만 (나)는 작가 최치원이 가야산에 은거하면서 지은 개별 창작 작품이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구비 전승되다가 한자로 기록되어 전하는 고대 가요이며 (나)는 한자로 기록된 한시이다.

③ (가)와 (나)는 모두 '물'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한다.

④ (가)와 (나)는 모두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창작된 작품이다.

⑤ (가)에서는 입을 잃은 화자의 슬픔이, (나)에서는 속세와 단절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02 **새술형** 한국 문학의 범주를 판단할 때는 창작 주제, 표현 언어, 내용, 전승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와 (나)의 표현 언어는 한국어가 아니지만, (가)와 (나)는 우리말을 표기할 고유의 문자가 없던 시절에 한자로 기록된 작품으로 창작 주체가 한국인이다. 또한 내용 면에서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한국 문학에 해당한다.

03 1, 2구에서 화자는 '건너지 마오'라며 입을 만류하고 있으므로 입의 안위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3, 4구에서 화자는 입이 물에 빠져 죽은 상황에서 '어이할꼬'라며 탄식하고 있으므로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체념과 입을 잃은 안타까움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04 (가)에서 '물'은 입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 화자에게 슬픔과 상실을 가져다주는 공간이다. 따라서 '물'을 화자의 슬픔을 정화하는 치유의 매개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가)에서 '물'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로(①), 입의 죽음을 야기함으로써(④) 입과 화자를 단절시키는 공간(②)이다. 또한 화자가 물을 건너지 말라고 만류하는 상황을 통해 입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므로, 물은 사랑을 드러내는 상징물(③)로도 볼 수 있다.

+ 이해 더하기

원형적 상징

원형적 상징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보편적 심상이 집단 무의식에 고착된 것으로, '물'이 생명을, '불'이 열정을 상징하는 것처럼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유사한 의미를 불러일으킨다.

05 (나)는 작가가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포부를 펼치지 못하고 가야산에서 은거하면서 쓴 작품이다. (나)에서는 세속의 시비에 서 벗어나 자연 속에 머물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오답 풀이 | ①, ③ (나)에서는 '돌들 울리는 소리', '흐르는 물'과 같은 자연의 소리와 '지척 간의 이야기', '시비 소리'와 같은 인간 세계의 소리가 의미상 긍정과 부정으로 대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조를 통해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에 묻혀 살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형상화되고 있다.

② (나)에서 화자는 시비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도록 일부러 흐르는 물로 산을 감싸게 했다고 표현하며 자연물을 주관적으로 변용하고 있다.

⑤ (나)는 1~2구에서 산속에 흐르는 물의 모습과 소리(외적 상황)를 제시한 후에, 3~4구에서 세상의 소리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내적 정서)을 드러내고 있다.

06 (나)의 '시비 소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으로 속세에서 인간들이 내는 소리이다. 화자는 이 소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07 **새술형** (나)에서 '흐르는 물'은 지척 간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을 만큼 큰 소리를 내어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시비 소리'를 막아 준다. 즉 '흐르는 물'은 화자와 속세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작품 2 가 봉산 탈춤 나 서민 귀족

+ 확인 문제

본책 114~125쪽

01 ② 02 ③ 03 쉬이 04 ④ 05 ① 06 ③ 07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08 ⑤ 09 ② 10 ④ 11 공연자의 신분을 감추어 양반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게 한다.
12 ③ 13 ④ 14 ⑤ 15 그렇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군.
16 ⑤ 17 ① 18 나리, 각하, 전하 19 ④ 20 ② 21 ④ 22 ⑤
23 니콜

01 이 글은 민속극으로,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이 관객과 함께 어울리는 형태로 공연이 이루어진다. 무대 상연을 전제로 막과 장으로 구성되는 것은 서양의 희곡에 대한 설명이다.

| 오답 풀이 | ① 재담과 재담 사이에 굿거리장단에 맞춰 양반들이 춤을 추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삽입되어 있다.

③ 말뚝이가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부분("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에서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이 관객이 극에 참여할 수 있는 민속극의 특성이 나타난다.

④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면 양반이 호통을 치고, 이에 말뚝이가 변명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⑤ 말뚝이가 ‘개잘랑’, ‘개다리소반’ 등을 이용한 언어유희로 양반을 조롱하고, 담뱃대의 종류와 길이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배 계층인 양반을 풍자하고 있다.

02 이 글에서는 양반들의 위엄을 드러낸 후 말뚝이가 양반들을 조롱하고, 이어 양반들이 호통을 치면 말뚝이가 자신의 말을 교묘하게 바꾸어 변명하고, 이에 양반들이 안심하며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재담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03 **시술형** ‘쉬이’는 말뚝이가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하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소리이다. 말뚝이는 이 말을 통해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켜, 이어질 대사와 행동에 주목하게 한다.

04 ㉠에는 ‘개잘랑’의 ‘양’과 ‘양반’의 ‘양’, ‘개다리소반’의 ‘반’과 ‘양반’의 ‘반’이 발음이 같다는 점을 이용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의 표현에서도 남편을 의미하는 ‘서방(書房)’과 방위를 의미하는 ‘서방(西方)’의 발음이 같다는 점을 이용한 언어유희가 드러난다.

05 악공은 굿거리장단 등으로 반주를 담당하며, 말뚝이의 호명에 의해 극에 개입함으로써 극의 진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 ㉡ 말뚝이에 대한 설명이다. 말뚝이는 재담을 시작하고 양반을 조롱하며, 양반의 호통에 변명으로 대응하는 등 재담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 말뚝이는 양반을 부러워하거나 신분 상승을 갈망하지 않는다. 말뚝이는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함으로써 양반에 대한 서민들의 비판 의식을 대변하고 있다.

㉣ 양반들은 말뚝이의 조롱에 호통을 치지만, 말뚝이가 변명하면 곧바로 안심하며 넘어간다. 양반들이 말뚝이에게 벌을 주어 신분 질서를 바로잡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이 글에서 양반들은 체면과 허세만을 내세우는 무능한 인물로 표현되고 있다.

06 ㄴ. ‘돼지 똥물에도 축축 축여 났습니다.’와 같이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양반을 희화화하고 풍자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ㄷ. 말뚝이가 ‘자좌오향’, ‘답박냉정’, ‘백인당중유태화’, ‘인의예지’, ‘효제충신’ 등 한자 어구를 나열하여 양반의 언어를 흉내 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이 글에는 한자어가 다수 사용되고 있어 순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강조한다고 보기 어려우며(ㄱ), 우리나라 고사를 인용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ㄹ).

07 **시술형** 말뚝이가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새처의 터를 잡는 행동은 동작만으로 공간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특별한 무대 배경이나 장치가 없는 민속극의 특징을 보여 준다.

08 버드나무 흔들기(㉠)는 아이들의 놀릿감을, 바가지장단(㉡)은 거지의 장단을, 문을 하늘로 낸 새처(㉢)는 돼지우리나 마구간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표현들은 양반의 권위를 격하시켜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09 이 글의 주제는 양반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다. 따라서 신분 계층 간 소통과 화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0 이 글에서는 ‘울룩줄룩 작대산’, ‘깊세기 앞층은 형겅충하니’ 등 의미 없이 운자만 맞춘 우스꽝스러운 말을 하며 서로 시조를 잘 지었다고 칭찬하는 양반들의 모습을 통해(ㄴ) 양반 계층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ㄹ).

| 오답 풀이 | ㄱ. 서민들의 비판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은 말뚝이이다. 양반 삼 형제는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다.

ㄷ. 양반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

11 **시술형** ‘탈’은 공연자의 신분을 감추어 공연자들이 양반 계층을 자유롭게 조롱하고 풍자할 수 있게 했다.

평가 기준	확인 ☒
공연자의 익명성 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2 「봉산 탈춤」은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풍자하며 ‘신분제 비판(㉠)’이라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보편적 주제를 담고 있다. 한편 황해도 봉산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전승되어 해당 지역의 언어, 풍습, 문화가 반영된 ‘지역적 특색(㉡)’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 이해 더하기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학은 인류 공통의 삶과 정서를 다루는 보편성과 특정 집단의 고유한 문화를 반영하는 특수성이 공존하는 예술이다. 보편성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랑, 죽음, 고뇌와 같은 인간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전 세계적인 공감을 이끌어 내는 힘이라면, 특수성은 그 작품이 탄생한 시대적 배경, 민족적 정서, 언어적 개성 등 구체적인 삶의 양식을 드러내는 독자적인 면모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문학은 한 민족이나 사회의 개별적인 삶(특수성)을 깊이 있게 형상화함으로써 오히려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근원적인 진리(보편성)에 도달하게 되는 조화로운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3 이 글은 귀족 계급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귀족을 맹목적으로 동경하며 흉내 내는 부르주아 계급 주르망의 허영심과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희극이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⑤ '서민'은 부르주아인 주르댕의 현실적 신분을, '귀족'은 주르댕이 지향하는 신분을 나타내며, 이 상반된 두 단어의 결합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③ 이 글의 제목은 '서민'과 '귀족'이라는 상반된 신분을 나란히 배치하여, 귀족이 되고 싶은 한 서민의 이야기라는 작품의 핵심 내용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 14 양재사는 주르댕의 허영심과 어리석음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실수를 덮으며 이익을 취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양재사는 꽃을 거꾸로 단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바로 달라는 말씀이 없으셔서."라고 말하며 주르댕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②, ③ 양재사는 "귀족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실수를 감추고 있다. 이는 귀족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주르댕의 무지함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④ 양재사는 구두가 작아 발이 아프다는 주르댕의 불만에 "그렇지가 않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라며 사실이 아닌 것처럼 부정하고 있다.

- 15 **| 새싹형 |** 주르댕은 꽃이 거꾸로 달린 것을 지적했으나, 양재사가 "귀족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요."라고 대답하자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군."이라며 양재사의 말을 따른다.

- 16 ㉠에서 양재사는 과장된 표현으로 주르댕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은 양재사가 장인 정신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과장하여 주르댕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말이다.

② ㉠은 주르댕이 양말과 구두가 작다는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양재사의 실력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말로 볼 수 없다.

③ ㉠에서 주르댕은 양재사의 말을 의심이 아니라 확인한 것이다. 주르댕은 "그렇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군."이라며 양재사의 말을 이후 바로 수긍한다.

④ ㉠은 예복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귀족처럼 보이고 싶은 허영심에서 옷이 잘 어울리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 17 주르댕은 양재사에게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를 묻는 등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 오답 풀이 | ② 주르댕이 "귀족 차림을 하니까 귀족이 되는군."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④ 주르댕이 귀족 문화를 내세우는 양재사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통해, 그가 귀족에 대한 소양이나 지식이 부족하며 귀족의 행동 양식을 따르는 것에 거부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⑤ 주르댕은 수습공들이 호칭을 높여 부르는 까닭이 팁을 받아내기 위한 것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기꺼이 돈을 주는 등 자신의 욕망이 이용당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

- 18 **| 새싹형 |** 수습공들은 주르댕을 '나리', '전하', '각하'로 점점 높여 부른다. 이는 허영심이 있는 주르댕을 이용하여 팁을 더 받아내기 위한 것이다.

- 19 ㄱ. 수습공들이 주르댕에게서 팁을 받은 후 기뻐서 춤을 추는 것으로, 춤이 극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ㄴ. 지문에서 '이 춤이 두 번째 막간극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춤이 막과 막 사이에 진행되는 막간극임을 알 수 있다.

ㄷ. ㉠의 막간극은 막과 막 사이에서 극의 분위기를 돋우고 관객에게 춤이라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 ㄷ. 주르댕과 수습공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0 ㉠에서 양재사는 주르댕의 허영심과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주르댕이 산 옷감으로 자신의 옷을 해 입는 등 자신의 잇속을 챙기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은 주르댕이 양재사의 안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재사가 입고 있는 옷이 자신의 옷감으로 만든 것임을 알아채고 지적하는 말이다.

③ ㉠은 주르댕이 양재사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안 된다며 불만을 표현하는 말이다.

④ ㉠은 양재사가 주르댕을 진심으로 귀족처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귀족 운운하며 주르댕의 허영심을 자극하려는 말이다.

⑤ ㉠은 귀족이 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호칭이 올라갈 때마다 돈을 더 준 상황을 하마터면 다 털릴 뻔했다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 21 이 글은 막과 장의 내용이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희곡이다. 이 글과 달리 민속극인 「봉산 탈춤」은 각 과장이 독립적으로 전개된다.

- 22 주르댕의 부인은 주르댕이 분별력이 없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명청한 것들이나 나를 놀리겠지."라는 주르댕의 말을 통해 주르댕이 주변 인물들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재가 당신보다 훨씬 더 분별력이 있네요."라는 말을 통해 부인이 주르댕이 분별력 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③ "종 주제에 잘도 재잘거리는구나."라고 주르댕이 니콜에게 하는 말을 통해 주르댕이 신분이 낮은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아침부터 야단법석을 떨고, ~ 이웃 사람들이 짜증 나지 않겠어요."라는 부인의 말을 통해 부인이 주르댕의 행동이 이웃에게도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23 **| 새싹형 |** 이 글에서 니콜은 〈보기〉에서 설명하는 주인의 부조리한 모습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하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니

물은 하층 계급이지만 주르댕의 옷차림을 거리낌 없이 비웃고, 주르댕이 면박해도 조롱을 멈추지 않는다.

단원 평가 문제

본책 126~129쪽

01 ⑤ 02 (가)에서 ‘물’은 생과 사의 경계로 입과 화자를 단절시키는 장애물의 의미를 지닌다. 03 ④ 04 ③ 05 ② 06 ④ 07 ③ 08 ④ 09 ① 10 (가)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고 관객이 극에 참여할 수 있으나, (나)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뚜렷하며 관객이 극을 관람하는 역할에 머문다. 11 ⑤ 12 ③ 13 ④ 14 ⑤

01 (나)는 1, 2구에서 물소리가 울려 퍼지는 외적 상황을 묘사하고 3, 4구에서 시비 소리를 피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므로 선경후정의 방식이 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는 1, 2구에서 물을 건너는 입에 대한 화자의 호소가 나타나고 3, 4구에서 입을 잃은 슬픔이 드러나므로 선경후정의 방식이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배경 설정과 함께 전해지는 고대 가요로, 구비 전승되다가 한자로 기록되었다. (나)는 한자로 지어진 작품으로, 칠언 절구의 한시이다.

② (가)는 물을 생사의 경계, 이별 등의 원형적 상징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는 물을 세상의 시비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주관적으로 변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③ (가)는 입을 잃은 화자의 슬픔을 독백의 형식으로 드러내고, (나)는 시비 소리와 물소리를 대조하여 속세를 멀리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④ (가)와 (나)는 모두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 시기의 작품으로, 한자로 기록되었지만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담고 있는 한국 문학에 해당한다.

02 **서술형** (가)에서 ‘물’은 생과 사를 가르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이자 입과 화자를 단절시키는 장애물로 기능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물’이 생과 사의 경계가 된다는 내용을 썼다.	☐
입과 화자를 단절시키는 장애물로서의 의미를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3 (나)에서 화자는 속세를 의미하는 ‘시비 소리’를 ‘흐르는 물’의 소리로 막고자 한다. (나)의 작가가 속세를 떠나 자연에 은거했다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면, (나)의 ‘흐르는 물’은 화자와 속세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돌들 울리는 소리’는 자연의 소리를 의미한다.
② ‘지척 간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의미한다.
③ ‘시비 소리’는 속세의 소리,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소리를 의미한다.
⑤ ‘온 산’은 화자가 은거하고자 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 이해 더하기

골품제(骨品制)

신라 시대의 신분 제도인 골품제는 혈통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정치 출세는 물론 가옥의 크기, 의복의 색상, 일상용품의 종류까지 엄격하게 제한했던 폐쇄적인 제도이다. 왕족을 대상으로 한 ‘성골’과 ‘진골’, 그리고 일반 귀족층인 ‘6·5·4두품’ 등으로 나뉘었는데, 특히 고위 관직 진출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두품층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골품제는 신라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인 동시에 개인의 역량보다 혈통을 우선시하여 사회적 활력을 저해하고 훗날 신라가 쇠퇴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04 ㉠에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사랑하는 이와와의 이별로 인한 슬픔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별의 슬픔을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낸다.
②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④ 상대방과 화합하여 함께하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낸다.
⑤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05 이 글은 ‘양반’이라는 말의 뜻풀이에 대한 재담, ‘담배’와 ‘흰화’에 대한 재담이 인과 관계없이 나열되어 있다.

| 오답 풀이 | ① 발음의 동일성을 활용한 언어유희 등을 통해 양반을 희화화하고 있다.
③ 말뚝이와 양반들이 말을 주고받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④ 말뚝이는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와 같이 관객에게 말을 걸어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고 있다.
⑤ 하인이 지배 계층인 양반을 풍자하는 것에서 신분제가 흔들리던 조선 후기의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6 말뚝이는 양반들이 “뉘야아!”라고 호통을 치자 ㉠과 같이,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 그리하였소.”라며 변명을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은 말뚝이가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양반을 조롱하는 부분이다.
② ㉠은 말뚝이의 조롱에 양반들이 호통을 치는 부분이다.
③ ㉠은 말뚝이가 관객에게 양반이 쓰는 긴 담뱃대를 권하며 양반을 조롱하는 부분이다.
⑤ ㉠은 말뚝이의 변명에 양반들이 넘어가며 안심하는 부분이다.

07 ㉢의 ‘쉬이’는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하여 새로운 재담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할 뿐, 재담의 사실성을 강화하는 것과는 관

련이 없다. ㉞의 춤은 재단이 마무리되었음을 보여 줄 뿐, 다음 장면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08 ㄱ. (가)는 조선 후기를, (나)는 17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둘 다 신분제가 존재하던 사회이다.

ㄴ. (가)는 양반의 어리석음을, (나)는 주르댕의 어리석음을 풍자한다.

ㄷ. (가)와 (나)에는 등장인물의 연기와 대사, 춤이 나타난다.

▶ 오답 풀이 ▶ ㄴ. (가)와 (나)는 등장인물 간의 대립으로 인한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라, 희극적 웃음을 유발하는 분위기가 드러난다.

09 (가)의 양반들은 말뚝이가 자신들을 조롱하려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말뚝이의 어설픈 변명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나)의 주르댕은 자신의 허영심을 이용해 팁을 받아 내려는 수습공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수습공에게 기꺼이 돈을 준다. 이와 같이 (가)의 양반들과 (나)의 주르댕은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10 **인식형** (가)에서 말뚝이가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라며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것은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고 관객이 극에 참여할 수 있는 민속극의 특성을 보여 준다. 반면 (나)에서는 등장인물이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으며, 관객은 무대 위 배우들의 연기를 관람하는 위치에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와 (나)의 대비되는 무대 특성을 비교하여 썼다.	☐
(가)와 (나)의 대비되는 관객의 역할을 비교하여 썼다.	☐

11 시대나 지역을 초월하여 보편적 가치를 다루는 것은 문학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춤, 음악, 재단이 어우러진 형식이 황해도 봉산 지역에서 특색 있게 발전되어 전해진다는 것은 문학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12 ㉞은 비속한 표현(돼지 똥물)을 활용하여 양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조롱하는 부분이다.

13 <보기>에서 부르주아는 지배 계급이 아니었으며 돈으로 귀족 지위를 사기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 보아 수습공들이 주르댕을 ‘나리’, ‘각하’, ‘전하’로 점점 높여 부르며 팁을 받아내는 것은 귀족이 되고 싶은 주르댕의 신분 상승 욕구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4 ㉞에서 주르댕은 수습공이 자신을 ‘나리’라고 부르자 “귀족 차림을 하니깐 귀족이 되는군.”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주르댕이 귀족처럼 차려입으면 귀족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2 상고 시대~고려 시대 문학

작품 1 주몽 신화

확인 문제

본책 132~135쪽

01 ㉓ 02 ㉔ 03 ㉑ 04 알 05 ㉓ 06 ㉕ 07 ㉔ 08 ㉔

01 건국 신화는 시조의 신성한 탄생과 건국의 위업을 강조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영웅의 죽음까지 다루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글 또한 주몽의 ‘출생-성장-위기 극복-건국’에 이르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죽음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㉑ 이 글은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위업을 담은 건국 신화로, 주몽이 동부여를 떠나 졸본에서 고구려를 세운 과정을 다루고 있다.

㉒ 이 글에는 태양 송배, 천손 강림, 난생, 기아, 동물 양육 등 고대 서사 문학의 화소들이 나타나 있다. 햇빛이 유화를 비추어 임신한 것은 태양 송배, 주몽이 천신과 수신의 자손인 것은 천손 강림, 알에서 태어난 것은 난생, 금와가 알을 버린 것은 기아, 새와 짐승이 알을 덮어 준 것은 동물 양육 화소에 해당한다.

㉔ 이 글에서 햇빛이 유화를 따라다니며 비추는 장면, 알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장면, 동물들이 알을 해치지 않고 보호하는 장면 등에서 고대인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은 주몽이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은 신성한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신화적 상징성을 보여 준다.

㉕ 이 글에는 영웅의 비범한 탄생, 성장 과정에서의 시련 등 후대 영웅 서사 문학에서 반복되는 전형적인 서사 구조가 나타나 있다.

02 (나)에서 ‘그녀가 몸을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었다. 이로 인해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쯤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유화가 햇빛을 피했으나 햇빛이 계속 따라와 비추었고, 그 결과 임신하여 알을 낳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ㄴ). 또한 ‘왕이 알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 주었지만 모두 먹지 않았고, 길에다 버렸으나 말과 소가 피해 갔으며, 들판에 버리니 새와 짐승이 덮어 주었다. 왕은 알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깨지지 않았으므로 유화에게 돌려주었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금와가 유화가 낳은 알을 여러 방법으로 버리려 했고, 최종적으로는 깨뜨리려 했음을 알 수 있다(ㄷ).

▶ 오답 풀이 ▶ ㄱ. (가)에서 유화는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유화가 부모의 허락 없이 해모수와 인연을 맺었음을 알 수 있다.

ㄴ. (나)에서 유화는 천으로 알을 부드럽게 감싸 따뜻한 곳에 두었고, 그러자 아이가 깻데기를 깨고 나왔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화가 알을 직접 깨뜨려 주몽을 세상에 나오게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03 ㉠은 북부여의 왕 해부루가 동부여로 옮겨 가고 금와가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내용으로, 금와가 유화를 만나게 되는 배경 일 뿐 주몽과 금와가 대립하는 원인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 ㉠에서 유화가 자신을 ‘물의 신 하백의 딸’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주몽이 수신의 후손임을 알 수 있다.

㉢ ㉢에서 유화가 중매 없이 해모수를 따라간 것을 부모가 꾸짖어 귀양을 보냈다고 했으므로, 이를 통해 유화가 우발수로 귀양을 온 이유를 알 수 있다.

㉣ ㉣에서 햇빛이 유화를 따라다니며 비추고 이로 인해 임신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태양을 신성시하는 당시의 태양 숭배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에서 왕이 알을 깨뜨리려 한 것은 주몽이 알에서 태어나기 전 겪은 고난으로 볼 수 있다.

04 **새술형** 주몽이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는 것은 난생(卵生)이라는 비범한 출생을 통해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상징하며, 이는 건국 시조로서 주몽의 비범한 면모를 보여 준다.

05 (라)에서 대소가 주몽에 대해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으나, 금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다.

| 오답 풀이 | ㉠ 유화는 왕의 아들들과 신하들이 주몽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주몽에게 알려며 빨리 떠나라고 말한다.

㉡ 나라의 풍속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했고, 주몽이 백발백중의 실력을 보였기에 이로써 이름을 삼았다고 했다.

㉣ 주몽은 준마를 알아보고 말에게 먹이를 조금씩 주어 준마를 마르게 했다.

㉤ 주몽이 엄수에서 자신이 천제의 아들이자 하백의 손자라고 밝히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이는 주몽이 수신 하백의 자손이기에 수중 생물들이 도운 것으로 볼 수 있다.

06 대소는 금와에게 주몽에 대해 아뢰며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주몽의 비범한 능력이 동부여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 ㉠ 금와의 아들들의 기예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했다고 했으므로, 오히려 주몽의 기예가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 금와의 아들들이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다고 했으므로, 어울리는 것이 불편했다고 보기 어렵다.

㉢ 대소는 주몽이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주몽의 비범한 면모가 자신들에게 후환이 될 것을 염려한 것이다.

㉣ 대소의 말에서 왕실의 정통성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07 주몽은 금와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자신을 해치려 하자 동부여를 떠나게 된다. 오이 등 세 사람과 함께 떠난 주몽은

엄수에 이르렀을 때 뒤쫓는 기병들이 가까이 오는 위기 상황에 처한다. 이때 주몽이 자신의 혈통을 밝히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주몽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주몽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운 조력자는 물고기와 자라이다.

08 이 글은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위업을 담은 건국 신화이다. 건국 신화는 나라의 기원과 시조, 건국 과정을 신성화한 이야기로, 이를 통해 신성한 인물인 천손이 건국하고 통치하는 국가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ㄴ), 신성한 국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ㄷ).

| 오답 풀이 | ㄱ. 주몽은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와 수신 하백의 딸 유화 사이에서 태어난 신성한 혈통을 지닌 인물로 서민 영웅이 아니다. 또한 건국 신화의 주된 목적은 단순한 오락적 흥미나 재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원을 신성화하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있다.

ㄷ. 건국 신화는 왕실의 신성한 혈통을 드러내어 건국을 정당화하고 백성들의 충성심과 일체감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현실의 질서를 비판하거나 개혁하려는 의지를 담기보다는, 기존 질서를 옹호함으로써 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해 더하기

건국 신화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

건국 신화는 국가 성립의 신성한 근거를 마련하여 통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공동체의 기원을 하나로 묶어 민족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천손(天孫) 의식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는 한편, 건국 이념을 통해 사회가 지향해야 할 도덕적 기준과 질서를 제시하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다. 결국 건국 신화는 단순한 옛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위기 시 결집의 근거가 되는 강력한 문화적 기틀이라 할 수 있다.

작품 2 찬기파랑가

확인 문제

본책 136~137쪽

01 ㉠ 02 ㉣ 03 잣나무 가지 04 ㉤

01 이 시가는 10구체 향가로, ‘기(1~5구) - 서(6~8구) - 결(9~10구)’의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 결구의 첫 부분(제9구)에 ‘야야’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 흠모의 정서 등을 고조하고 있다.

㉢ 달, 잣나무 가지와 같은 자연물에 기파랑을 비유하여 그의 고결하고 뛰어난 인품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결구에서 ‘눈’은 시련, 고난, 역경을 의미하고, ‘고깔’은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을 상징한다. 이처럼 대조적 의미를 지닌 소재를 통해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강조하고 있다.

⑤ 이 시가는 총답사가 기파랑에 대한 개인적 그리움과 존경의 정서를 표현한 작품으로, 주술성이나 종교적 성격보다는 순수 서정시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이해 더하기

향가의 종류와 특징

향가는 신라 문화의 정수로, 향가의 형식에는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다. 이 중 10구체 향가는 가장 완성된 형태의 향가로, 대체로 시상을 ‘기-서-결’의 3단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마지막 2구의 첫 부분에는 ‘아야’, ‘아으’ 등의 감탄사가 사용되는데,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고조하고 시상을 마무리한다. 이 마지막 구의 감탄사는 조선 전기의 시조 중장 첫머리나 가사의 낙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신라 시대의 향가와 조선 시대 시조와 가사의 연속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2 ㉠의 ‘일오내 자갈 별’은 화자가 기파랑의 마음의 갯을 좇고 있는 장소로, 공간적 배경을 의미한다.

▶ 오답 풀이 ① ㉠의 ‘돌(달)’은 광명한 존재로, 만인이 우러러보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의미한다.

② ㉠의 ‘흰 구름(흰 구름)’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자연의 속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의 ‘수풀(수풀)’은 화자가 물가에서 기파랑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하는 자연물이다. 또한 이 시가에서 화자는 기파랑을 예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적 분위기와 화자의 태도를 고려할 때, 수풀을 기파랑의 초라한 모습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의 ‘눈’은 잣나무 가지를 덮으려는 존재로 시련과 역경, 불의를 의미한다.

03 ✎세술형 ‘자식 가지(잣나무 가지)’는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기파랑의 드높은 기상을 의미한다. 이는 대상의 고결하고 굽히지 않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4 이 시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향찰을 사용하여 창작된 향가로, 한자를 주체적으로 활용하여 창작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가치가 있다.

▶ 오답 풀이 ①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표기하는 향찰로 창작되었으므로, 중국 문학의 영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② 향찰은 한자의 형태를 변형하여 고유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한자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되 그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다.

③ 향가는 중국 한시의 형식이나 주제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담은 독자적인 시가 형식이다.

④ 향찰은 한자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표기 방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독자적으로 사용한 표기 방식이다.

작품 3 동동

확인 문제

본책 138~141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⑤ 05 저미면 부릇 06 ④

01 이 시가는 원래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가 궁중으로 유입되어 궁중 음악으로 정착되었다.

▶ 오답 풀이 ① 이 시가는 정월부터 십이월까지 각 달의 세시 풍속이나 절기를 노래한 월령체 형식의 고려 속요이다.

② 각 연의 끝에 ‘아으 동동(動動)다리’라는 후렴구를 사용하여 연을 구분하고 있다.

④, ⑤ 1연은 임금에 대한 찬양과 송축을 담고 있고, 2연~13연은 이별한 임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을 월별로 드러내고 있다.

이해 더하기

월령체 형식

월령체는 한 해 열두 달의 순서에 따라 노래하는 시가의 형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달을 한 연으로 노래하기 때문에 열두 개의 연으로 나누어지는데, 「동동」과 같이 서두가 있을 경우에는 열세 개의 연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월령체는 민요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일 년 동안 농가에서 매달 할 일을 열두 달의 순서에 따라 읊은 「농가월령가」 등이 있다.

02 후렴구 ‘아으 동동(動動)다리’는 북과 그 밖의 악기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로, 리듬감을 형성하여 음악적 흥취를 고조하는 역할을 한다(c). 또한 각 연의 끝에 사용하여 형식적으로 연을 구분하고(a) 작품 전체에 구조적 통일성을 부여한다.

▶ 오답 풀이 b. 후렴구 ‘아으 동동(動動)다리’는 경쾌하고 흥겨운 리듬감을 형성하는데, 이는 화자가 느끼는 슬픔이나 그리움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따라서 후렴구가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강조한다고 보기 어렵다.

d. ‘아으 동동다리’는 매 연에 반복되는 후렴구로,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이 시가에서 후렴구는 각 연을 형식적으로 구분하고 음악적 리듬감을 살리는 역할을 할 뿐, 시상을 응축하거나 주제를 부각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03 ㉠의 ‘곳고리 새’는 ‘녹사님(임)’과 대비되는 소재이다. ‘곳고리 새’는 봄이 되면 잊지 않고 돌아오는데, 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대비를 통해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04 이 시가에 나타난 내용적 특징은 평민들의 소박하고 풍부한 정서가 진솔하게 드러난다는 점과 월령에 따른 고려 시대의 풍속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형식적 특징은 3음보의 분연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각 연의 마지막 부분에 후렴구인 ‘아으 동동(動動)다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05 **서술형** 화자는 11연(10월령)에서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저미연 부릇’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10월령에서 화자는 자신을 저며 놓은 나무토막에 빗대어, 임에게 버림받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신의 가련한 신세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06 12월령에서 화자는 자신을 임의 상에 올려진 ‘반(盤)잇 저’에 빗대어, 임의 선택을 기다리는 존재로 형상화한다. 그러나 이 젓가락을 임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다 무는 상황을 통해, 임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12월령에서 화자가 임을 떠나보내거나 임의 건강과 장수를 비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임의 장수를 비는 내용은 5월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12월령에서 화자는 지난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임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한탄하고 있다.

③, ⑤ 12월령에서 화자는 임에 대한 미련을 버리거나, 임의 무심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임과 이루어지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단원 평가 문제

본책 142~145쪽

01 ④ **02** ⑤ **03** ④ **04** 신성한 인물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동체적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
05 ⑤ **06** ① **07** ⑤ **08** ③ **09** ⑤ **10** 이 시가의 화자는 기파랑의 고매한 정신세계를 우러르면서 따르고자 하며, 〈보기〉의 화자는 죽지랑과의 과거를 추억하면서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11 ① **12** ③ **13** 넷물 **14** ④ **15** 이 작품에서 내용이나 정서가 이질적인 부분은 (가)이다. 그 이유는 이 노래가 민간에서 불리다 궁중 음악으로 유입되면서 임금을 송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01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왕으로 즉위했을 때가 ‘한나라 효원제 건소 2년 갑신년’이라고 했으므로 구체적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여, 압록강, 태백산 등 실제 지명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므로 구체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건국 시조를 신성화하고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품이며 해학과 풍자의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 글은 건국 시조의 신이한 탄생과 업적을 다룬 신화적 서사이다. 과거의 고사를 인용하지 않고, 신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③ 이 글은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의 건국 과정을 다루는 건국 신화이다. 따라서 ‘멸망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은 지문의 전체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이 글은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며 위업을 달성하는 닫힌 결말 구조를 취한다. 영웅이 난관을 극복하고 과업을 달성하는 명확한 서사를 보여 주므로 결말을 미완으로 남겨 다양한 해석을 유도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건국이라는 확고한 결말을 통해 국가 수립의 정당성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02 유화는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주몽을 해치려 하는 것을 알고 주몽에게 동부여를 떠나 도망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03 이 글은 주몽이 태어나 나라를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은 주몽이 스스로 천제의 아들이자 하백의 손자임을 밝히는 장면으로, 그의 고귀한 혈통(㉠)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은 사람이 아이가 아닌 ‘알’의 형태로 태어난 난생(卵生)의 모습을 통해 주몽의 비정상적인 탄생(㉢)을 보여 준다. ㉣은 일곱 살의 어린 나이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백발백중의 실력을 갖춘 주몽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 준다. ㉥은 적대 세력에게 쫓기는 위기 상황에서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주몽이 무사히 강을 건너도록 돕는 장면으로, 조력자의 도움(㉥)을 보여 준다. ㉦은 모든 시련을 이겨 낸 주몽이 졸본주에 도읍을 정하고 고구려를 건국하여 왕위에 오름으로써 영웅으로서의 목적을 이루는 결말 부분이다. 이는 위업 달성(㉧)이라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보여 준다.

04 **서술형** 건국 신화는 나라의 기원, 시조, 건국 등을 신성화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백성들은 신성한 인물이 건국하고 통치하는 국가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성한 국가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공동체적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주몽이 고구려 건국 시조임을 고려하여 작품의 의미를 적절하게 썼다.	☐
주몽의 신성성이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을 적절하게 썼다.	☐

05 ‘천손 강림’ 화소는 주몽이 천신과 수신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 오이 등 세 사람은 주몽의 위업 달성을 돕는 조력자로 볼 수 있으며, 천손 강림과는 관련이 없다.

06 주몽과 바리공주 모두 어린 시절에 버려지는 고난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몽은 알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금와왕에게 버려졌고, 바리공주는 딸이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버려졌다. 이처럼 두 영웅 모두 출생 직후 기아(棄兒), 즉 버림받는 시련을 겪었다.

❏ 오답 풀이 ② 주몽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주몽은 천신의 아들 해모수와 수신의 딸 유화 사이에서 탄생하였다. 그러나 바리공주는 인간인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의 딸로 태어났다.

③ 주몽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의 뛰어난 무예 능력을 드러내는 이름이다. 반면 바리공주는 '버려진 공주'라는 의미로, 탁월한 능력이 아닌 비극적 운명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④ 바리공주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바리공주는 병든 부모인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을 살리기 위해 서천 서역국으로 가서 생명수와 꽃을 구해 왔다. 그러나 주몽은 부모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여 왕자들의 시기와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동부여를 떠났다.

⑤ 바리공주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바리공주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명수와 꽃으로 되살린 이후 신적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주몽은 죽음 이후에 신이 된 것이 아니라 건국 시조로서 신성시된 것이다.

07 이 시가는 자연물인 달, 잣나무 가지 등에 빗대어 시적 대상인 기파랑의 고결한 모습과 인품을 형상화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시가에는 질문과 대답의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화자가 기파랑을 찬양하고 따르겠다는 마음을 일방적으로 표현할 뿐이다.

② 이 시가에는 여음구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음구란 '아으 다롱디리'와 같이 의미 없이 운율을 위해 반복되는 구절을 말한다.

③ 이 시가는 평서형 진술과 감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뿐 의문의 형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이 시가에는 하강적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하강적 이미지로 시적 긴장감을 나타냈다고 볼 수 없다.

08 ㉠은 기파랑에 대한 추모와 존경이 담긴 표현으로, 기파랑을 따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의 '달'은 광명한 존재로, 만인이 우러러보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나타낸다.

② ㉠의 '수풀'은 기파랑의 청정한 모습을 나타낸다.

④ ㉠의 '잣나무 가지'는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와 인품을 나타낸다.

⑤ ㉠의 '눈'은 잣나무 가지를 덮는 것으로 고난과 시련, 불의를 나타낸다.

09 이 시가에 쓰인 '아야'는 앞서 전개된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서를 고조하여(ㄷ) 그를 찬양하고 추모하는 것으로 시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ㄴ).

❏ 오답 풀이 ㄱ. '아야'는 감탄사로, 시적 대상이 겪는 시련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ㄴ. 이 시가에서 화자는 기파랑을 찬양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며, 화자의 내적 변화나 각성, 새롭게 다짐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10 **❏ 새술형** 이 시가의 화자는 기파랑을 자연물에 빗대어 찬양하며 기파랑의 고매한 정신 세계를 우러르면서 그를 따르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보기>의 화자는 죽지랑과의 과거를 추억하면서 재회를 소망하는 태도를 보인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시가의 화자가 대상을 찬양하고 따르는 태도가 나타나도록 썼다.	☐
<보기>의 화자가 대상과의 재회를 소망하는 태도를 썼다.	☐

11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는 방식인 향찰이라는 특수한 문자로 표기한 시가 갈래이다. 이는 신라인들이 한자를 독창적으로 수용하여 우리 문학을 창작했음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문학 창작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12 이 시가는 정월부터 십이월까지 열두 달을 노래한 월령체 형식의 고려 속요로, 달의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각 달의 특징적인 세시 풍속과 명절을 배경으로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3장(초장, 중장, 종장) 6구의 정형화된 형식을 갖춘 것은 시조이다.

② 이 시가는 처음과 끝이 같은 내용으로 대응되는 수미상관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이 시가는 3음보 율격을 취하고 있다.

⑤ 이 시가는 각 달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전개하는 월령체 구조로, 'a-a-b-a'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13 **❏ 새술형** (나)에서 '나릿 물(넋물)'은 때에 맞춰 열었다 녹으며 변화하는 반면, 화자의 '몸'은 홀로 살아가는 처지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임 없이 지내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강조되고 있다.

14 ㉠의 '별해 복론 빗(벼랑에 버린 빗)'은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가련한 신세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유두일(음력 6월 15일)에는 머리를 감고 빗을 버리는 세시 풍속이 있었는데, 화자는 쓸모를 다하고 버려진 빗에 자신을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신세와 이에 대한 서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15 **❏ 새술형** (가)는 민간에서 불리던 고려 속요가 궁중 음악으로 유입되면서 첨가된 부분으로, 임에게 덕과 복을 바치러 오라는 임금에 대한 송축을 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내용이나 정서가 이질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 썼다.	☐
내용이나 정서가 이질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보기>를 참고하여 적절하게 썼다.	☐

03 조선 시대 문학

작품1 시조 네 편

★ 확인 문제

본책 148~151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③ 05 ⑤ 06 ⑤ 07 님천한흥
08 ⑤ 09 ①

01 (가)와 (나)는 모두 3장 6구의 평시조이다. 두 작품 모두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이 두 구씩 배열되어 총 6구의 전형적인 시조 형식을 따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의 작가 원천석은 사대부이고, (나)의 작가 황진이는 기녀로, 두 작가의 신분은 서로 다르다.

③ (나)에서는 '니 일', '나도 몰나 호노라' 등의 표현에서 화자가 작품 속에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화자는 임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후회와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 (가)의 화자는 고려에 대한 절개를 지키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후회의 정서를 보이고 있지 않다.

⑤ (가)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화자가 처한 시련을 부각하고 있는 반면, (나)에서는 구체적인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02 **시술형** (가)는 고려 유신으로서 고려에 대한 절개를 지키려는 작가의 충절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시가에서 '눈'은 시련이나 고통, 회유, 압박 등을 상징하는 시어라고 할 수 있다.

03 (나)에서는 감탄사 '어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여 표현하고 있으며(a), '나도 몰나 호노라'와 같은 감탄형 종결을 통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b). 또한 '그릴 줄을 모로던가'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d). (나)에는 의성어나 의태어와 같은 음성 상징어가 드러나지 않는다.

04 ㉠은 이 시가의 종장으로, 떠나보낸 임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잘 드러난다.

| 오답 풀이 | ①, ④ ㉠에서 화자는 임을 보내고 그리워하는 현재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을 뿐, 임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나 설렘, 임과 이별 후 홀로 살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는다.

②, ⑤ ㉠에서 화자는 임에 대한 서운함이나 원망보다는 임을 보낸 뒤 밀려드는 그리움과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05 (라)는 사설시조로, 시설시조는 평시조의 3장 체제(초장, 중장, 종장)를 기본 형태로 하되, 초장과 중장이 제한없이 길며, 종장도 길어진 시조를 말한다.

| 오답 풀이 | ①, ③ (다)는 하나의 제목으로 여러 수의 평시조를 엮은 연시조이고, (라)는 중장이 대폭 확장된 사설시조이다.

② (다)의 각 수는 3장 6구 4음보의 평시조의 기본 형태를 따른다.

④ (라)는 개를 소재로 서민들의 생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사설시조로, 조선 후기 평민 의식이 성장하면서 시조 작가 층이 평민으로 확대된 양상을 보여 준다.

06 (다)에는 '산슈간', '바회', '먼 뵈' 등 자연 공간을 지칭하는 시어는 등장하지만, 특정한 색채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후랴',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후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후랴' 등의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 속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② 속세를 의미하는 시어('삼공', '만승')와 자연을 의미하는 시어('산슈간', '뽕집')를 대조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속 은일의 삶을 지향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속세를 등지고 자연에 은거한 중국 고사 속 인물인 '소부'와 '허유'를 언급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④ '삼공(三公)도곤 낫다 후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후랴' 등에서 속세의 벼슬이나 권력보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흥취가 더 가치가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07 **시술형** 제4수의 종장에 등장하는 '님천한흥'은 (다) 작품 전체의 주제를 집약한 핵심 시어이다. 이 시어는 화자가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만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며, '비길 곳이 업세라(비길 곳이 없다)'라는 표현과 함께 작품의 주제 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08 (라)는 '개', '선밥'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익숙한 소재를 사용하여 사설시조 특유의 현실 친화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c). 또한 '회회', '치썩썩', '버둥버둥', '므르락 나으락', '캉캉' 등 다양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e).

| 오답 풀이 | ㄱ. 이 시조는 고운 임을 만나 사랑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삶에서 깨달은 특별한 교훈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ㄴ. 이 시조는 '알미오랴', '선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랴' 등 직설적인 어조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09 (라)의 화자는 초장에서 '개를 여라몬이나 기르되 요 개긔치 알미오랴'라고 말하며 '요 개'에 대한 야속함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중장에서는 미운 임은 반갑게 맞고, 고운 임은 짚어 내쫓는 개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이를 통해 화자의 서운한 감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요 개'에 대한 야속한 마음은 실제로는 임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해학적으로 우회하여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작품 2 사미인곡

★ 확인문제

본책 152~157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③ 05 ③ 06 ② 07 님의 옷
08 ② 09 ④ 10 ③

01 이 시가는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여성 화자가 천상계의 이별한 임에게 애절한 사랑과 그리움을 호소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 이 작품은 이와 같은 설정을 통해 연군지정을 보편적인 사랑으로 치환함으로써 문학적 효과를 높이고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가에는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되지 않는다.
② 화자가 매화에게 말을 건네나, 체념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③ 단일 화자의 독백으로 시상이 전개되며, 보조 화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④ 다른 글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으며, 화자의 내적 갈등이 특별히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02 ‘매화(㉠)’는 전통적으로 충절을 뜻하는 소재로, 이 시가에서는 임(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화자의 사랑(충성심)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이해 더하기

‘매화’의 상징적 의미

매화는 혹한 속에서도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특성으로 인해 인내와 절개, 고결한 정신 등을 상징한다. 특히 고전 문학에서 선비의 지조와 청렴함을 나타내는 대표적 이미지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사군자 중 하나로서 외적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품격을 중시하는 정신적 이상을 담고 있다. 겨울의 끝자락에 피어 봄을 알리는 존재로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의미도 지니며, 일부 문학 작품에서는 임금에 대한 충절을 상징하거나 속세를 초월한 선인의 세계를 암시하는 매개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매화는 단순한 자연물을 넘어 인간의 이상과 정서를 투영하는 상징적 존재로 기능한다.

03 이 시가는 표면적으로는 한 여성 화자가 천상계의 임과 이별한 뒤 그리움을 토로하며 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애절하게 호소하는 사랑 노래의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보기〉를 참고하면, 화자의 호소는 작가 정철이 선조에 대한 충성과 그리움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작품 내적으로는 연인의 이별을 다루는 서정적 상황이 전개되지만, 작품 외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군주에게 충절을 드러내는 충신 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의 성격을 지닌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의 한탄은 단순히 낙향 생활의 무료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임(선조)과 떨어져 있는 데서 오는 작가 정철

의 그리움과 슬픔을 나타낸 것이다.

② 이 시가는 정치적 당파 간 갈등 해소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임금(선조)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심과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

③ 이별의 슬픔을 토로하는 모습은 동인의 탄핵으로 인한 원망이 아니라,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하는 데서 오는 충정의 애절함을 표현한 것이다.

④ 정철이 권세를 누리고자 선조를 그리워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시가에는 복귀 그 자체가 아니라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이 담겨 있다.

04 본사에서는 화자가 임에 대한 연모의 정을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한다. 이러한 시상 전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는 효과를 지니며, 각 계절의 이미지와 감정을 대응하여 정서적 깊이와 감동을 더한다.

05 본사 2에서 화자는 임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옷을 짓고 이를 임에게 보내려 한다. 그러나 임 계신 곳을 바라보니 산과 구름이 가로막고 거리도 멀어 임에게 전달해 줄 수 없음에 탄식한다. 임에게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길이 멀고 험하여 다시 돌아오는 화자의 모습은 이 작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06 이 시가에서 화자는 동쪽 산에 솟아오른 ‘들(㉠)’과 북쪽 하늘에 뜬 ‘별(㉡)’을 보며 임을 떠올리고, 반가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두 소재는 모두 화자가 임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07 **새싹형** 본사 3의 ‘청광’은 가을에 화자가 임에게 전하고자 하는 소재로 맑은 달빛을 뜻하며, 임을 직접 찾아갈 수 없는 화자의 마음을 대신 전해 주는 매개물로 기능한다. 동시에 어둠을 밝히는 ‘청광’은 임의 맑고 고결한 덕성을 상징하며, 달빛이 세상을 대낮처럼 밝히기를 바라는 화자의 바람에는 임의 덕이 온 나라에 미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처럼 ‘청광’은 임을 향한 화자의 정성과 충절을 드러내는 소재이며, 본사 2에서 여름이 되어 화자가 정성스럽게 지어 임에게 보내고자 하는 ‘님의 옷’ 역시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08 ㉠은 임이 계신 곳의 겨울 추위를 생각하며 임의 몸이 상할까 염려하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부분이다. 따라서 매서운 추위로 임을 만나러 갈 수 없는 화자의 무력감이 드러났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사람도 없고 새도 날아다니지 않는, 겨울의 적막한 분위기를 보여 준다.

③ ㉡은 원앙 무늬 이불이 차갑다는 촉각적 심상을 통해 추운 겨울 홀로 지내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한다.

④ ㉔은 편작과 같은 뛰어난 의사가 와도 임을 향한 그리움으로 인한 병은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부분이다. 명의로 고칠 수 없다는 표현을 통해 임을 향한 그리움의 깊이를 강조한다.

⑤ ㉔은 임이 알아주지 않아도 임을 계속 사랑하겠다는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09 화자는 죽어 '범나비(㉔)'가 되어서라도 임의 곁을 맴돌며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범나비는 화자의 분신이자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강한 의지가 투영된 대상으로, 임을 향한 '일편단심(㉔)'을 보여 준다.

10 이 시가는 한자가 아닌 우리말(한글)로 창작된 국문 문학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ㄱ). 또한 군신 관계를 남녀의 연모 관계로 치환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문학적 완성도를 높였다(ㄴ).

| 오답 풀이 | ㄴ. 이 시가는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움 삶을 추구하는 강호가사(江湖歌辭)가 아니라,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성을 노래한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이다.

ㄷ. 이 시가는 유교적 충(忠)의 사상을 바탕으로 임금에 대한 충절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실용적 사고와 같은 실학사상을 담고 있지 않다.

작품 3 유충렬전

◆ 확인 문제

본책 158~165쪽

01 ① 02 ④ 03 ㉔: 익성, ㉔: 지상계, ㉔: 유충렬 04 ③
05 ② 06 ① 07 ㉔: 한낱 새알, ㉔: 천근의 무게 08 ⑤ 09 이
얼마나 기막힌 정상인가? 황천인들 무심할 수 없는 일이다. 10 ②
11 ③ 12 ⑤ 13 ④ 14 ③ 15 천자의 자미성이 변수 가에 떨어
어저 비치는 것

01 이 글은 명나라 영종 대를 배경으로 하며(ㄱ), 충신인 유심 가문과 간신인 정한담 세력의 대립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ㄴ).

| 오답 풀이 | ㄷ. 이 작품은 창작 군담 소설로,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고 있지만 허구적 상상력이 더해져 사건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지는 않는다.

ㄹ. 유충렬은 현직 고관인 유심의 아들로, 평민 출신의 영웅이 아니다. 또한 기존의 지배 질서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 세력을 제압하고 군주를 돕는 영웅으로 등장한다.

02 정한담은 토변과 가달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을 빌미로 천자에게 정벌을 권한다. 이는 겉으로는 국가의 위엄을 드높이려는 충성스러운 건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고 반역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즉 정한담의 요청은 충성심을 가장하여 권력의 찬탈을 노린 계략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03 **인물형** 이 소설은 천상계와 지상계로 대비되는 이원적 공간 구조를 통해 인물 간의 대립 관계를 드러낸다. 천상계에서는 자미원 대장성과 익성이 대립하고, 지상계에서는 유충렬과 정한담이 서로 적대적 위치에 있다. 천상계의 대립 구도는 지상계에서 그대로 재현되며, 두 세계의 갈등은 상호 대응하는 구조를 이룬다.

04 항적은 진나라 멸망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항우를 가리키고, 안녹산은 당나라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두 인물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으며, 그 힘이 기존 왕조와 군주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었다. 따라서 정한담을 이들에 비유한 것은 그가 강대한 세력을 지닌 동시에 군주와 국가에 매우 위험한 인물임을 드러낸 것이다.

05 유심은 남적을 정벌하자는 정한담의 건의를 천자가 허락했다는 말을 듣고, 천자에게 무리한 출정이 가져올 결과를 언급하며 간곡히 만류한다. 그는 '한낱 새알이 천근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겠소이까'라는 비유로 조정의 군사가 도적보다 약한 현실을 지적하고, 무리한 전쟁으로 인해 희생될 백성들의 목숨을 깊이 염려한다. 이러한 유심의 발언은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생명을 우선하는 충직한 신하의 면모를 보여 주며, 천자의 그릇된 결정을 바로잡으려는 직간의 태도를 드러낸다.

| 오답 풀이 | ① 유심은 국가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 공명을 얻으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의 안위를 걱정해 정배를 당하는 위험을 감수하며 직언한다.

③ 유심은 정한담이 자신을 간신·역적으로 모함할 때 이에 격렬히 반발하거나 투쟁하지 않는다.

④ 유심은 위험에 대한 대비책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천자에게 직언을 하였다.

⑤ 유심은 정한담의 건의에 대한 천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기병을 만류한다.

06 유심과 정한담·최일귀가 서로 대립하는 모습은 당대의 조정 내 정치적 갈등이 첨예했음을 보여 준다.

② 천자는 유심의 직언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망설임 없이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병은 정한담의 개인적 야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당대 조정이 대외 정벌 중심의 적극적인 군사 정책을 펼쳤다고 보기 어렵다.

③ 왕공열은 유심이 공신의 후예임을 강조하며 유교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 신분 질서를 활용해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장면을 신분 질서가 중요하고 있다는 근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천자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정한담을 돌아보는 모습은 주관 없이 신하에게 의존하는 군주의 우유부단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우유부단함이 곧 권력 구조의 변동이나 왕권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신하의 눈치를 살피며 주저할지라도, 최종 결정권이 여전히 천자에게 있으므로 이는 왕권 약화의 근거가 아닌 군주 개인의 자질 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⑤ 정한담과 최일귀는 백성의安危를 고려하지 않고 기병을 주장하였으며, 천자의 결정 역시 백성의 처지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 백성을 우선하는 태도는 유심의 발언에서만 드러난다.

이해 더하기

병자호란 당시 조정의 대립 상황

	척화파	주화파
입장	청은 오랑캐이므로 절대 굴복할 수 없음.	청과의 화친을 통해 백성과 국가를 보존해야 함.
주장	명과의 의리를 지켜야 하며 청과는 싸워야 함.	조선은 전쟁 수행 능력이 부족하므로 타협해야 함.
대응	청의 사절 거절, 강경한 외교 노선	청에 항복 문서 작성, 사대 관계 수용
특징	이상주의적 입장, 자존과 명분 중시	현실주의적 입장, 명분보다 생존 우선시

07 **서술형** ‘한날 새알이 천근의 무게를 어찌 견딜 수 있겠소이까.’라는 말은 국력이 약한 명나라가 국력이 강한 토번, 가달을 이길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유심은 군사를 일으키는 일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08 도성이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정한담은 손쉽게 도성문을 뚫고 궐내로 진입하여 거리낌 없이 횡포를 부린다. 따라서 도성 내의 삼엄한 경비로 인해 천자를 추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09 **서술형** 〈보기〉는 고전 소설에 나타나는 편집자적 논평의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천자가 손가락을 깨물어 용포에 향서를 쓰려는 상황에서 ‘이 얼마나 기막힌 정상인가? 황천인들 무심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 썼다.	☐
본문에서 찾아 그대로 썼다.	☐
두 문장으로 썼다.	☐

이해 더하기

편집자적 논평

고전 소설에서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직접 평가하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독자에게 작가의 주관적 시각과 도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치이다. 이는 인물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나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며, 독자의 감정 이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자주 사용되며, 고전 소설 특유의 교훈성이나 풍자성을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10 ㉠과 ㉡는 모두 천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의 무능한 모습을 드러낸다. ㉠에서 천자는 정한담의 난입 소식에 기절초풍하듯이 놀라 옥새를 품에 안고 정신없이 뒷문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며, ㉡에서는 정한담에 의해 말이 거꾸러지고 백사장에 굴복당하며 통천관을 파괴당하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두 장면 모두 천자의 행동 묘사를 통해 그가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인물임을 부각한다.

오답 풀이 ㉠ ㉡에서 천자는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한담에게 굴복당한다.

③ ㉠에서 ㉡로 공간이 바뀌지만, 오행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천자가 정한담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④ ㉠은 천자가 ‘기절초풍하듯이 놀라’는 등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으나, ㉡는 인물의 표정을 묘사하여 심리를 드러내지 않는다.

⑤ ㉠은 과장된 표현(‘기절초풍하듯이’)으로 위험에 처한 인물의 다급한 심리를 나타내지만, ㉡는 비유적 표현이나 원통한 심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11 ㉢에 나타나는 정한담의 ‘십여 척의 거창한 몸’과 ‘구 척 장검을 휘두르’는 모습은 그의 위용을 드러내지만, 이것이 그가 유충렬보다 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정한담의 외형적 위압감을 보여 줄 뿐이며, 실제로 작품 전체에서 유충렬은 천상에서 내려온 영웅으로 정한담을 물리치는 인물이다.

12 이 글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적강한 유충렬이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여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나라와 가문을 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답 풀이 ㉠ 유충렬은 평민이 아니라 고관 유심의 아들이며, 이 글은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거나 이상 국가를 건설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② 천상계가 등장하나 주요 사건은 지상계에서 일어나며, 비현실적 공간의 사건을 통해 현실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대립의 중심은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적강한 정한담과 유충렬이다. 그러므로 이 둘의 갈등은 현실계의 인물과 비현실계의 존재의 갈등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유충렬은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영웅적 공적을 세워 가족과 재회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결말을 맞는다.

13 이 글은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상황을 반영한 작품이다. 작품 속에서 정한담이 천자를 굴복시키는 장면은 청나라에 의해 왕이 굴욕을 당한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킨다. 영웅 유충렬이 정한담을 제압하고 천자를 구하는 서사는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고자 하는 당대 독자들의 염원을 담아낸 것으로, 민중들에게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과 복수에 대한 대리만족을 제공했다. 따라서 이 글에는 청나라에 대한 민족적 적개심과 복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4 유충렬과 정한담은 선악의 구분이 명확하고 성격 변화가 없는 평면적 인물이며(ㄴ), 유충렬이 정한담을 제압하는 서사에서 권선징악의 주제가 드러난다(ㄷ). 이 글에서 유충렬은 고난을 극복하고 가족과 재회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ㄱ).

▶ 오답 풀이 ㄴ. 권선징악의 닫힌 결말로 독자에게 교훈적 의미를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다.

15 ✎ **세술형** 유충렬은 천기를 살펴보았을 때 ‘천자의 재미성이 변수 가에 떨어져 비치는 것’을 보고 천자의 위기를 감지하였다.

작품 4 일야구도하기

확인 문제

본책 166~171쪽

01 ④ 02 ② 03 ② 04 ⑤ 05 ② 06 ⑤ 07 오늘 나는 한밤중에 한 가닥 강물을 이리저리 아홉 번이나 건넜다. 08 ⑤ 09 ⑤ 10 ⑤ 11 ③ 12 ③

01 (가)의 ‘저 야단스러운 소리를 충분히 형용할 수 없으리라.’에서 강물 소리에 대한 작가의 감정이 드러나지만, 감탄사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② (가)의 ‘물이 두 산 사이에서 ~ 형용할 수 없으리라.’에서 힘차게 흐르는 강물 소리를 의인법,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③, ⑤ (가)의 ‘모래밭 위에 ~ 날뛰는 듯하다.’에서 강 주변의 적막하고 어두컴컴한 풍경을 비유적 표현과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02 (가)에서 작가는 ‘무릇 강물 소리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며, 물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달리 들린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마음가짐이 세상을 바꾼다.’는 내면의 태도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의미로, 이러한 작가의 생각을 뒷받침한다.

▶ 오답 풀이 ①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내면과 인격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무언가를 배울 때에는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④ 진심 어린 교감이 이루어질 때 언어적 표현 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⑤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03 이 글은 작가의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제시하는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에서는 연암협 산중에서 개울물 소리를 들어 본 경험을 다양한 사물에 비유하여 제시하고, (다)에서는 이를 통해 마음속에 어떤 소리라고 설정해 놓으면 귀가 그렇게 듣는다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나)~(다)는 단순히 관조적 태도로 외부 풍경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다)에 대상이 변해 온 과정을 검토하거나 대상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다)는 현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⑤ (나)~(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조하거나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

04 (다)에서는 개울물 소리가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는 것을 제시할 뿐, 물소리가 지닌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마음에 따라 다양하게 들리는 물소리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병렬적으로 나열했을 뿐, 점층적으로 확장하여 보여 주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② (다)에서는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개울물 소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③ (다)의 마지막 문장에서 바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까닭은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소리라고 이미 설정해 놓았기 때문임을 인과적으로 밝히고 있다.

④ (다)에서 ‘보글보글’, ‘부글부글’ 등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물소리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해 더하기

점층법의 개념과 효과

점층법은 내용이나 감정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고조시켜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수사법으로, 약한 의미에서 강한 의미로 어구를 배열해 내용 전개에 역동성과 긴장감을 부여한다.

05 이 글은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일과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독백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물 간의 대화 형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라)에서 '모두들 말하기를 ~ 라고 한다.'와 같이 인용 표현을 활용하여 통념을 제시하고 있다.

③ (라)에서 '어느 거름에 ~ 경향인들 있을 것이라.', '낮에는 눈으로 ~ 다시 들리겠는가?'와 같이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④ (바)의 '나는 오늘에서야 도(道)라는 것이 무엇인지 ~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에서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후술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려는 바를 부각하고 있다.

⑤ (라)에서 '백하(白河)', '요동' 등의 구체적 지명과 한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06 이 글은 낮과 밤에 강을 건널 때의 경험을 비교하며, 강물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각에 따라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낮에는 시각이 작용하여 강물의 위태로움을 보고 두려워하느라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밤에는 강물이 보이지 않아 청각이 과도하게 예민해져 소리가 더 두렵게 느껴진다. 이를 통해 작가는 감각 기관에 의존한 판단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 따라서 감각의 차이가 사물의 본질적 속성을 변화시킨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7 **시술형**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는 '하룻밤에 강물을 아홉 번 건넌 기록'이라는 뜻이다. (라)의 '오늘 나는 한밤중에 한 가닥 강물을 이리저리 아홉 번이나 건넜다.'에서 제목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08 ㉠ '귀와 눈을 믿는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을 더 상세하게 살피지만, 이로 인해 바른 인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폐를 만들어 낸다.

| 오답 풀이 | ① (바)에서 마음에 잡된 생각을 끊은 사람은 '육신의 귀와 눈이 탈이 되지 않거니와'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여기서 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감각에 속박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② ㉠은 마음에 잡된 생각을 끊은 사람으로, 감각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바)에서 ㉠을 '마음에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은 귀와 눈을 믿는 사람으로, 보고 듣는 것에 의존하여 대상을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09 작가가 이 글을 쓴 목적은 (자)에 잘 드러난다. 작가는 강물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여, 자신의 총명만을 믿고 외물에 이끌려 본질을 보지 못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0 (아)의 내용으로 보아 우임금이 황룡을 도마뱀으로 '착각'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였기 때문에 황룡이든 도마뱀이든 상관없이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이 글에서 우임금의 고사는 잘못된 판단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따라 외부 사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11 ㉠에서 작가는 강물을 '내 몸', '내 성품과 기질'로 생각하며 외부 대상인 강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강물을 자신과 분리된 두려운 대상이 아닌 자신의 일부로 인식하는 태도가 드러나며, 이는 사물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는 '물아일체(物我一體: 외물과 자아,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됨.)'의 의미와 통한다.

| 오답 풀이 | ① 건물생심(見物生心):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

② 동병상련(同病相憐):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④ 전전긍긍(戰戰兢兢):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

⑤ 허장성세(虛張聲勢):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

12 <보기>에서 「일야구도하기」는 '성리학적 세계관에 갇혀 관념적 글쓰기에 머물렀던 당대 사대부들의 문학과 달리' 실사구시(實事求是)적 특징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실사구시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로, 관념이 아닌 실제 경험에 근거한 탐구를 의미한다. 이 글에서 작가는 연암협 산중에서 개울물 소리를 들었던 경험을 통해 마음 상태에 따라 물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는 것을 확인하고, 요동 벌판의 강을 밤에 아홉 번 건넜던 경험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면 외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또한 이러한 깨달음을 연암협 산골짜기로 돌아가 다시 시험해 보겠다고 말한다. 이처럼 구체적 경험을 토대로 인식의 주관성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는 방식은 실사구시적 특징에 해당하므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③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기보다는 인식의 주관성에 대한 성찰을 보여 준다.

② 우임금의 고사를 인용하지만, 유교적 가르침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이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④ 성리학적 이념이나 이상적 세계 추구와는 거리가 있다. 이 작품은 오히려 성리학적 관념에서 벗어난 실사구시적 태도를 보여 준다.

⑤ 과거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분석하여 깨달음을 제시한다.

단원 평가 문제

본책 172~177쪽

01 ③ 02 ③ 03 어더 04 ⑤ 05 ① 06 ④ 07 한자가
(한문이) 아니라 우리말(국문)을 사용한 국문 문학으로서 가치가
있다. 08 ③ 09 유심은 가련한 백성들의 목숨만 없애게 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10 ④ 11 ④ 12 ④ 13 ② 14 ④
15 ③ 16 ③

01 (다)는 윤선도의 「만흥」으로, 자연 속 은거의 즐거움을 노래
한 연시조이다.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흥취와 만족을 담고 있
으므로 유배 생활의 고뇌와는 거리가 멀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원천석의 시조로,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유교적 충(忠)의 이념을 담은 정형 시조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② (나)는 황진이의 시조이다. 조선 전기에는 기녀들도 시조를
창작하였는데, (나)와 같이 주로 임에 대한 이별과 그리움의 정한
을 노래하였다.

④, ⑤ (라)는 작가 미상의 사실시조로, 평민의 일상적 정서를 담
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작가층이 확대되면서 (라)와 같이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사실시조도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02 (가)의 ‘눈’은 대나무의 절개를 시험하는 역경으로, 대나무가
이겨 내야 할 극복의 대상이다. 반면 (다)의 ‘뒀’는 그리던 임
만큼 반가운 존재로, 화자가 친밀감을 느끼는 긍정적 대상이
다. 즉 ‘눈’이 이겨 내야 할 시련의 대상이라면, ‘뒀’은 기쁨과
위안을 주는 친화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03 ✎ 서술형 (나)에서 ‘어더’는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 안타까움 등
복합적인 정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감탄사이다. 화자는 이
감탄사를 통해 임을 떠나보내고 느끼는 안타까움과 후회의
감정을 집약하여 표현하고 있다.

04 ‘요 개(㉠)’는 미운 입을 반기고 고운 입을 내쫓는 분별없는
행동으로 화자의 원망을 사는 존재이다. (라)에서 이러한 ‘요
개’는 화자와 고운 입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자 미움을
받는 존재로 기능한다. 따라서 ‘요 개’는 임의 애정을 빼앗아
간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분별력 없이 행동하여 화자의 원망
을 사는 존재라 할 수 있다.

05 이 시가는 정철의 「사미인곡」으로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성을 갖추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의 변화를
배경으로 전개되며, 각 계절을 나타내는 자연물을 상징적인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임을 향한 그리
움을 드러내며,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독백체로 서술하고 있
다. 문답 형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06 화자의 병은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심리적인 것
으로, 명의도 고칠 수 없다는 표현을 통해 입을 향한 그리움의

깊이를 강조한다. 이는 당쟁으로 인해 낙향하며 피폐해진 작가
의 처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연군지정의 표현이다.

07 ✎ 서술형 조선 후기 실학자 김만중은, 당시 지식인들이 한시를
숭상하고 우리말 시가를 천대하는 풍조를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정철의 「사미인곡」은 한문이
아닌 우리말을 사용하여 가사를 창작함으로써 국문 문학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김만중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품이 지닌 문학사적 가치 를 적절하게 썼다.	☐
제시된 형식에 맞추어 썼다.	☐

08 (가)에서 천상의 존재가 지상에 내려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를 통해 이 글이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공간 구조를
바탕으로 함을 알 수 있다(ㄱ). 그리고 (다)~(마)에서 충신 유충
렬은 선의 편에, 간신 정한담은 악의 편에 서서 대립하며, 이들
간의 갈등이 작품의 주된 서사를 이끌어 감을 알 수 있다(ㄷ).

▶ 오답 풀이 ㄴ. 유충렬과 정한담 등의 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성격을 유지하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ㄷ. 이 글은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는 구조로,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한 입체적 구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09 ✎ 서술형 ㉠은 군사를 일으키지 말라는 유심의 간언이다. (나)
에서 유심은 ‘왕실은 지금 미약하고 도적은 강성하’다고 말하
며 힘의 차이를 지적하고, ‘가련한 백성들의 목숨만 없’앨 것
이라며 무리한 기병이 가져올 결과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유
심이 기병을 만류한 이유는 백성들의 목숨이 희생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10 [A]의 ‘이 얼마나 기막힌 정상인가? 황천인들 무심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표현은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으
로, 독자에게 상황의 비극성과 불합리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방식은 독자에게 사건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 서술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11 ㉠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천사마가 주인인 유충렬의 마음을
알아채고 빠른 속도로 변수를 향해 달리는 장면을 묘사한 것
이다. 천사마가 비범한 능력을 지니긴 했지만 직접 문제를 해
결하거나 악인을 벌하지는 않는다. 천사마는 유충렬의 명령을
받아 그를 돕는 보조적 존재일 뿐이다.

▶ 오답 풀이 ① ㉠의 초회왕의 항적은 진나라를 멸망시킨 항우
를, 당명황의 안녹산은 당나라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이러한 역사적 인물에 빗대어 정한담이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임을 나타내고 있다.

② ⑥는 정한담의 잔혹한 모습을 보여 주는 장면으로, 이는 영웅 유충렬의 행위(반역 세력 소탕)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③ ㉔의 '기절초풍하듯이 놀라', '정신없이 뒷문으로 도망쳐 달아났다'에서 위기 상황에서 황급히 피신하는 천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 위기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는 무능한 왕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⑤ ㉔에서 유충렬은 놀란 천자를 위로하고 다시 모시는 등 충신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12 정한담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간신으로 형상화된 인물로, 그가 유충렬에게 결박당하는 장면은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고자 한 당대 민중의 복수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청나라에 끌려간 세자와 백성들의 수모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설욕하는 장면으로 보아야 한다.

- 13 이 글에서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물소리를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개울물 소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해학적인 웃음을 유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나)에서 '어느 겨울에 ~ 있을 것이라.' '낮에는 ~ 다시 들리겠는가?'와 같이 의문형 문장을 통해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물소리를 열거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통소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물소리', '절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물소리' 등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⑤ 우임금이 황룡의 등에 올라앉은 위험을 당했으나 마음이 분명하여 용인지 도마뱀인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음가짐이 분명하면 외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작가의 깨달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14 작가는 강물을 건너며 얻은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여 교훈을 도출하고 있다. 작가는 한세상 인생살이를 하면서 겪는 그 험하고 위태로운 강물보다 훨씬 심하므로, 외물에 현혹되는 삶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15 '귀와 눈을 믿는 사람(ㄱ)', '자기 이익에 밝은 사람(ㄴ)', '자신의 총명함만을 믿는 사람(ㄷ)'은 경계해야 하는 인간상이다. 반면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사람(ㄷ)', '마음에 잡된 생각을 끊은 사람(ㄹ)'은 작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이다.

- 16 이 글에서 작가는 강을 건너며 느끼는 두려움이 눈이나 귀와 같은 감각에 현혹된 데서 비롯됨을 깨닫고,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인생 전반으로 확장하여, 마음에 선입견이 없으면 외물에 흔들리지 않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글을 바탕으로 한 강연에는 마음 수양과 관련된 제목이 가장 적절하다.

4 개화기~일제 강점기 문학

작품 1 교목

확인 문제

본책 180~181쪽

01 ③ 02 ⑤ 03 차라리, 아예, 차마 04 ②

- 01 이 시에서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며, 화자의 내면 변화 과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 시의 화자는 어떠한 유혹이나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신념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에서 하강의 이미지가 나타나며, 이를 통해 죽음이라는 극한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말아라', '아니라', '못해라'에 나타나듯 각 연의 끝을 음운 'ㅌ'로 종결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푸른 하늘', '호수', '바람', '검은 그림자'와 같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해 시련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⑤ '말아라', '아니라', '못해라'와 같이 부정의 의미를 지닌 표현을 사용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겠다는 화자의 결연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02 <보기>에 따르면 '교목'은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가 8미터를 넘는 큰키나무이다. 시 속 교목 역시 우뚝 서 있는 강직한 이미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화자는 이러한 교목에 자신을 투영하여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교목은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 자신을 투영한 대상이다.

② 이 시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나 고뇌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냉혹한 현실은 '세월에 불타고', '검은 그림자' 등에서 드러나며, 교목은 현실이 아닌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

④ 이 시의 시구 '쓸쓸하면'은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표현한 것이다. 교목은 부정적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의지를 상징한다.

- 03 <새싹> 이 시에 쓰인 부사 '차라리', '아예', '차마'는 부정의 의미를 지닌 시어 '말아라', '아니라', '못해라'와 함께 쓰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04 ㉠ '푸른 하늘'은 화자가 염원하는 이상 세계를, ㉡ '낯은 거미집'은 화자가 처한 암울한 현실을, ㉢ '끝없는 꿈길'은 자유와 해방을 향한 투쟁의 길을, ㉣ '검은 그림자'는 절망적인 상황을, ㉤ '바람'은 외부의 유혹 또는 탄압을 의미한다. 따라서 ㉠, ㉢은 긍정적 의미를, ㉡, ㉣, ㉤은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작품 2 거울

★ 확인 문제

본책 182~183쪽

01 ⑤ 02 4연 03 ④ 04 ②

01 이 시에서 화자가 거울 속 존재를 통해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거나 그로 인해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화자는 거울을 통해 자신과는 닮았지만 반대인 또 다른 자아를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 오답 풀이 | ① ‘잘은 모르지만 외로워서 사업에 골몰할게요’에서 화자가 거울 속 존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함을 알 수 있다. ②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 ‘내 약속을 받을 줄 모르는’을 통해 화자가 거울 속 존재와의 소통을 시도하지만 단절되어 있어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거울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펍섭섭하오’에서 화자가 거울 속 존재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거울속에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 이오’에서 화자가 거울 속 세계가 현실과 다른 이질적 공간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서술형** 이 시에서 ‘나’는 거울을 통해 내면적 자아를 만나지만, 동시에 거울 때문에 내면적 자아와 소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시에서 거울은 ‘거울 밖 나’와 ‘거울 속 나’를 만나게 해 주는 매개체이자, 두 대상을 단절시키는 이중적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4연의 ‘거울아 아니었던 들 내가 어찌 거울속의 나를 만나 보기가 만이라도 했겠소’는 거울이 있었기에 거울 속 ‘나’를 만날 수 있었음을 나타내는 반면,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속의 나를 만져 보지 못하는 구료마는’은 거울 때문에 거울 속 ‘나’와 직접 접촉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03 ‘외로워서 사업에 골몰한다’는 것은 내면적 자아가 홀로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내면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 오답 풀이 | ① 이 시에서 ㉠은 거울 속 ‘나’, ㉡은 거울 밖 ‘나’를 가리킨다. ② 거울 밖 ‘나’(㉡)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를, 거울 속 ‘나’(㉠)는 그 안에 감춰진 내면적 자아를 의미한다. ③ 약속은 만남과 소통의 상징으로, 약속을 받을 줄 모른다는 것은 두 자아가 소통을 하거나 서로 친밀감을 나눌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⑤ 거울은 대상을 비추되 좌우를 바꾸는 속성이 있어, 거울 속 ‘나’는 실제 ‘나’와 닮았으면서도 반대인 존재로 나타난다.

04 이 시는 6연 13행의 자유시로, 행과 연은 구분되었으나 띄어쓰기는 하지 않아 관습적인 정서법을 파괴하고 있다(ㄷ). 또 의식의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자동기술법을 사용하여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ㄱ). 이 작품에서 문법을 일부러 무시하거나 자동기술법을 사용한 것은 초현실주의적 특성으로, 이를 통해 자아의 분열과 단절로 인한 현대인의 불안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한다.

| 오답 풀이 | ㄴ. 이 시는 반영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현실의 모순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이 시는 현실의 사회적 모순이 아닌 개인 내면의 분열에 초점이 있다.

ㄷ. 이 시는 감각적 이미지가 아닌 관념적 사유가 중심을 이루며, 사물의 속성 묘사가 아닌 내면의 분열 상태를 형상화하고 있다.

작품 3 천변 풍경

★ 확인 문제

본책 184~191쪽

01 ③ 02 ② 03 전차 04 ③ 05 ② 06 결코, (천변) 풍경이 07 ⑤ 08 ③ 09 ⑤ 10 ③ 11 ② 12 비애, 애원, 원망 13 ⑤ 14 애달프게, 또 일종 미덥게 15 ③

01 이 글은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온 이유가 제시되지만, 이는 인물의 과거 회상이 아니라 현재 상황의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소년의 시선이 ‘전차 → 사람들 → 건물 → 간판 → 화신상’ 순으로 이동하며 장면이 제시되고 있다. ② ‘어린이의 마음은 견잡을 수 없게 들떴다.’ 등에서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까지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전차, 건물, 간판 등 시각적 소재를 활용하여 도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⑤ ‘이 층, 삼 층, 사 층’,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와 같이 심표를 사용하여 소년이 경험하는 풍경을 빠른 호흡으로 나열하고 있다.

02 ‘지난번 올라왔을 때 들르지 못한 화신 상회에, 자기 자신 오래간만이니’를 통해 아버지가 이전에 서울에 온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그렇게도 동경하여 마지않던 서울’을 통해 소년이 서울을 매우 동경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영리하다’, ‘똑똑하다’, 바로 별명 비슷이 붙어 온 소년’을 통해 소년이 시골에서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말을 듣곤 했음을 알 수 있다. ④ ‘어린이의 마음은 견잡을 수 없게 들떴다.’를 통해 소년이 도시 풍경에 크게 들떴음을 알 수 있다.

⑤ '자식의 앞길을 결정하는 사무가 완전히 끝나기까지~긴장되고, 또 경건하기를 바랐다.'를 통해 아버지가 소년의 앞길을 결정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03 **시술형** (가)에서 소년이 설 새 없이 달리는 전차와 그 전차에 올라탄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보기>에 해당하는 근대적 교통수단은 '전차'임을 알 수 있다.

04 (나)의 '아직 나이 어린 자식의 몸 위에 천만 가지 불안을 품었 으면서'를 통해 아버지가 소년을 걱정 없이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온갖 불안을 느끼면서도 소년의 출세를 위하여 데려온 것임을 알 수 있다.

05 (라)의 '그렇게도 오고 싶어 하지않았던 서울', '그렇게도 아름 다웠고, 또 신기하였다.'에서 서울에 대한 창수의 동경과 호기 심이 나타난다.

| 오답 풀이 | ① 창수는 (라)에서 서울에서 보고 듣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좌절이나 환멸은 서울이 창수에게 지니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③ (다)에서 창수가 아버지의 대답에 불평하는 심리가 나타나지만, 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일 뿐이므로 서울이라는 공간 자체를 타인과의 경쟁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

④ (라)에서 가평(고향)을 떠나와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며 기뻐하는 창수에게 서울은 그리움의 대상인 향수의 공간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던 목표의 공간이다.

⑤ (다)에서 창수가 주인 영감 앞에서 거북함이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는 낯선 어른에 대한 긴장일 뿐 서울이라는 공간 자체를 두려움이나 불안의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

06 **시술형** (라)에서 서술자는 '결코 그다지는 신기로운 수 없고, 또 아름다울 수 없는 이곳 '천변 풍경'이'라며 작품에 직접 개입하여 서술한다. 이는 창수의 주관적 인식과 대비되는 천변 풍경의 모습으로, 이를 통해 독자는 작중 인물의 주관적 인식과 서술자가 조명하는 당대 현실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07 [A]에서는 카메라로 비추듯 창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차례로 보여 주면서, 창수가 느끼는 감각과 호기심도 전달하여 독자가 이를 함께 체험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인물의 시선을 배제한 서술로 인물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전달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주인 영감은 얼굴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구장 영감을 닮아 심술궂은 것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창수가 구장 영감과 닮은 주인 영감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시골뜨기', '애꾸'라는 표현에서 창수가 아버지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유를 알 수 있다.

② 창수는 자기가 직접 대답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대신 말해 주어 똑똑하지 못하게 보일까 봐 불평했다.

④ '어른들끼리만 무슨 은근한 이야기가 있으려는지'에는 어른들이 자신을 배제하고 이야기하려 한다는 창수의 짐작이 드러난다.

⑤ '기어코'와 '~고야 말았다'는 강조 표현을 통해 서울에 오고 싶었던 바람이 실현된 것에 대한 만족감이 표출되고 있다.

09 창수는 주인 영감에게 혼이 난 후 '얼굴이 무섭게까지 새빨개 가지고', '바보같이 그곳에 가 서 있었다.'와 같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주인 영감을 원망하며 화를 내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흥 서방이 가게에 다시 가 보라고 일러 주자 창수는 '금시에 소생이나 하여 난 듯이' 희망을 얻고 가게로 달려갔다. 따라서 흥 서방의 말을 듣고 창수가 안도감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② '그저 서울로만 보내 달라고, 어머니며, 아버지를 졸랐던 어제까지의 자기가 자꾸 뉘우쳐졌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어찌하여야 좋을 것인지, 어림이 도무지 서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를 당하여 본 일이 없었다.'에서 창수가 처음 맞닥뜨린 상황에 매우 당황해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④ '창수는 비애와, 애원과~얼마 동안 가게 주인의 얼굴만을 쳐다보았다.'에서 잔돈을 돌려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창수의 마음이 드러난다.

10 "어여, 가게 한 번, 다시 갔다 오너라."라고 한, 흥 서방의 권유에 창수는 소생이나 하여 난 듯이 다시 가게로 달음질쳐 갔다고 하였다. 따라서 흥 서방의 만류에도 창수가 반찬 가게로 돌아가 잔돈을 잘못 거슬러 받은 일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창수가 주인 영감의 담배 심부름으로 반찬 가게에 다녀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잔돈을 잘못 거슬러 온 창수가 한약국에서 주인 영감에게 혼이 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바)에서 창수가 더듬거리며 사정을 말했으나 반찬 가게 주인은 끝까지 듣지 않고 '어림두 없는 소리'라며 면박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바)에서 창수는 반찬 가게에서 돌아왔으나 한약국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담에 가 울음을 터뜨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 반찬 가게 주인이 다음에 잔돈을 잘 확인하라고 창수를 타이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반찬 가게 주인은 창수의 말을 일축하며 면박을 준다.

| 오답 풀이 | ① "어림두 없는 소리는, 허지두 말어라."에서 창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드러난다.

③ 반찬 가게 주인은 장사를 열네 해를 하는 동안 셈을 틀려 본 일이 없었노라고 주장한다.

④ '창수가, 자신 없이, 그것도 더듬어 가며 하는 말을, 반찬 가게 주인은 결코 끝까지도 들어 주지 않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반찬 가게 주인은 칠성 아범에게 자신의 주장을 역설하여 찬동을 얻음으로써 창수를 몰아세운다.

12 **서술형** (바)에서 창수는 반찬 가게 주인에게 잔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만, 주인은 창수의 말을 일축하며 창수를 몰아세운다. 이때 창수는 ‘비애와, 애원과, 원망과……. 그러한 온갖 감정이 뒤범벅을 한 눈’으로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자 하는 수 없이 발길을 옮긴다. 따라서 (바)에서 잔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창수의 심정을 나타낸 세 개의 단어는 ‘비애, 애원, 원망’이다.

13 [A]에서는 ‘거의 들릴까 말까 하게 중얼거려’, ‘눈물을 남몰래 소매 끝으로 씻은’, ‘그 안을 둘러보고’ 등의 행동 묘사와 ‘끝없는 외로움과 또 애타운 마음 깊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심리의 직접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해 더하기

직접 서술과 간접 묘사

소설의 인물 제시 방법은 크게 직접 서술과 간접 묘사로 나뉜다. 직접 서술(Telling)은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요약하여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건 전개가 빠르고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장점이 있으나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간접 묘사(Showing)는 인물의 행동, 대화, 외양 등을 객관적으로 그려 내어 독자가 인물의 내면을 스스로 추론하게 하는 방식이며, 장면의 생동감과 사실성을 높인다. 작가는 작품의 의도와 장면에 따라 두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인물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한다.

14 **서술형** (사)에서 아버지는 서투른 솜씨로 후추를 연질하고 있는 아들의 모양을 잠깐 ‘애달프게, 또 일종 미덥게’ 내려다보았다고 하였다. ‘애달프게’는 혼자 남을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을, ‘미덥게’는 아들이 서울에서 생활하며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5 <보기>에서 일제의 수탈로 시골에서 상경한 이들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일제의 수탈 때문에 상경했다고 볼 근거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 글에서 아버지가 창수를 서울로 데려간 이유는 ‘자식 하나 사람 만들어 보겠다’는 교육적 목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한약국을 <보기>에서 설명하는 전통적인 시설의 예로 보는 것은 적절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② 아버지가 창수에게 당부하고 떠나는 장면은 평범한 부모 자식 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홀로 남겨진 창수가 느끼는 ‘끝없는 외로움과 애타움’은 시골에서 상경하여 낯선 도시에 정착해야 하는 이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평에서 상경한 창수가 천변에서 일하게 된 것은 당시 천변이 시골 출신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이었음을 드러낸다.

단원 평가 문제

본책 192~195쪽

01 ③ 02 ③ 03 말아라, 아니라, 못해라 04 ① 05 화자의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를 매개하는 동시에 두 자아를 단절시킨다. 06 ③ 07 ⑤ 08 ④ 09 ③ 10 ③ 11 아버지는 서울로 보내야 건문을 넓혀 출세할 수 있다는 뜻을 지닌 ‘마소 새끼는 시골로, 사람 새끼는 서울로’란 속담을 좇아 소년이 서울 생활을 통해 성공하기를 바라며 상경했다. 12 ⑤ 13 ④ 14 반찬 가게 주인은 칠성 아범의 찬동을 얻어 자신이 셈을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돈을 잘못 거슬러 받았다는 창수의 주장을 일축하려 한 것이다. 15 ④

01 이 시에서 ‘꽃피진 말아라’와 같은 명령형 표현은 화자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서는 ‘교목’, ‘호수’, ‘바람’ 등의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여 ‘부정적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저항 정신’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② 이 시는 교목, 호수, 바람 등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결연한 의지와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이 시는 ‘불타고’ ↔ ‘우뚝 남아’, ‘푸른 하늘’ ↔ ‘검은 그림자’와 같이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굳건한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⑤ 이 시는 각 연을 3행으로 동일하게 구성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02 이 시에서 ‘봄도 꽃피진 말아라’의 ‘봄’은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세상이 아니라 화자가 거부하는 안일한 타협, 현실 순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03 **서술형** 이 시는 ‘차라리~말아라’, ‘아예~아니라’, ‘차마~못해라’와 같이 강조의 의미의 부사와 함께 부정의 의미를 지닌 표현을 사용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04 이 시는 과거 회상 없이 현재 시점에서 교목의 굳건한 모습으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보기>도 인동초의 생명력을 통해 현재의 정서를 형상화할 뿐 과거 회상으로 현재의 고통을 부각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이 시는 ‘푸른 하늘’과 ‘검은 그림자’에서, <보기>는 ‘불고’, ‘파랗고’, ‘하이얏다’에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③ 이 시는 굳은 나무의 모습을 통해 시련 속 저항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보기>는 차를 달여 마시며 겨울을 건디는 노인의 모습을 통해 엄숙한 시기를 견뎌 내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이 시는 화자의 의지를 단호한 어조로 드러내는 반면, <보기>는 겨울 풍경을 담담한 어조로 묘사하고 있다.

⑤ 이 시는 교목에 화자의 신념을 투영하며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반면, 〈보기〉는 감정을 절제하여 인동차를 마시는 노주인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05** **새술형** 이 시에서 거울은 이중적 의미를 지닌 소재이다. 거울 밖 ‘나’가 거울 속 ‘나’를 인식하고 성찰하도록 매개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거울 밖 ‘나’가 거울 속 ‘나’와 직접 소통하거나 접촉할 수 없도록 단절시키는 기능을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거울이 지닌 긍정적 기능을 ‘매개’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썼다.	☐
거울이 지닌 부정적 기능을 ‘단절’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썼다.	☐

- 06** ㉔은 거울로 인해 물리적으로 ‘만질 수 없다’는 뜻이며, ‘볼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바로 이어지는 다음 행 ‘거울아니었던 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에서 거울 덕분에 거울 밖 존재가 거울 속 존재와 만나볼 수 있었다고 하고 있다.

- | 오답 풀이 |** ① ㉔: 소리가 없는 조용한 세상이라는 표현을 통해 거울 속 세계가 현실과 다른 이질적 공간임을 나타내고 있다.
 ② ㉔: 왼손잡이(좌우 반전)라서 거울 밖 존재의 악수를 받을 줄 모른다는 표현은 거울 속 자아와 소통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④ ㉔: ‘잘은모르지만’이라는 표현을 통해 거울 속 존재가 어떤 일에 골몰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⑤ ㉔: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어 섭섭하다는 표현으로 거울 속 자아에게 관여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 07** ㉓~㉔는 모두 내면적 자아(거울 속 ‘나’)이지만, ㉔는 현실적 자아(거울 밖 ‘나’)이다.

- 08** 거울을 매개로 한 자아 성찰은 맞지만, 이 시는 희망적 전망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 시의 ‘외로된사업에골몰’, ‘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퍽섭섭하오’ 등에 화자가 느끼는 단절감과 불안한 심리가 드러나 있다.

- | 오답 풀이 |** ① 이 시에서 띄어쓰기를 안 한 것은 〈보기〉에서 설명한 ‘기존 문법의 무시’에 해당하는 초현실주의 기법이다.
 ② 이 시에서 거울 속 자아에 대한 단상을 의식의 흐름대로 전개하는 것은 자동기술법의 특성을 보여 준다.
 ③ 이 시의 화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성찰하는 과정에서 소통 불가능성과 단절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억눌린 현실 속에서 느끼는 불안 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이 시에서는 초현실주의 기법을 사용하여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청년의 분열된 자아의식과 불안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9** 이 글은 소년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가)~(다)에 서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소년이 낯선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호기심과 흥미를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두 사건이 병치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② 이 글은 3인칭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
 ④ (다)는 과거 회상을 통해 인물의 행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서울 상경이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다.
 ⑤ ‘겨우내(한겨울 동안 계속해서)’라는 뜻을 지님.’라는 계절적 표현이 등장하지만, 이는 아버지가 서울행을 결심하기까지의 시간적 배경일 뿐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요소로 기능하지 않는다.

- 10** 이 글에서는 소년이 서울에 도착하여 종로까지 이동하는 과정만 나타낼 뿐, 소년이 서울에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는 언급되지 않는다.

- | 오답 풀이 |** ① (나)의 “전차 뒷 허러 타니?”라는 아버지의 말 이후의 내용을 통해 소년이 전차를 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소년이 우선 본 것은 전차라는 물건이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다)의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갈 것을 허락지 않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의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에서 도시 사람들을 보며 소년이 느낀 감정을 알 수 있다.

- 11** **새술형** ‘마소 새끼는 시골로, 사람 새끼는 서울로’라는 속담의 뜻은 사람은 서울로 보내 견문을 넓혀야만 출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소년을 데리고 서울로 온 이유는 아들이 서울에 살며 견문을 넓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마소 새끼는 시골로, 사람 새끼는 서울로’ 속담의 의미 (서울에서 견문을 넓혀 출세함)를 밝혀 썼다.	☐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서울로 데려온 것이라는 의미가 드러나도록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 12** ㉔은 아버지가 소년을 서울로 데려오는 일에 대해 큰 고민과 걱정을 하였음을 보여 준다.

- 13** ‘카메라의 눈’ 기법은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카메라로 관찰하듯이 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에서 창수가 개천 속 빨래터에서 들리는 소리를 ‘상쾌하다’고 느끼며, 몇몇 젊은이들이 권투를 연습하는 모습을 ‘재미스러웠다’고 표현하는 장면에서 인물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으나, 내적 갈등은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창수의 시선을 따라 '빨래터'에서 '나무장 간판이 서 있는 곳'으로 이동하며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창수가 본 빨래꾼들, 권투 연습하는 젊은이들 등의 대상을 포착하여 차례로 나열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빨래터, 빨래꾼들의 소리, 권투 연습하는 젊은이들 등 천변의 활기찬 일상이 나열되면서, 천변의 풍경이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
 ⑤ (가)에서는 창수의 눈(카메라)을 따라 대상이 순차적으로 제시되면서, 독자는 마치 자신이 소년의 시선으로 현장을 함께 관찰하는 듯한 현장감을 느끼게 된다.

- 14** **❧** **시술형** 창수가 잔돈을 잘못 거슬러 받았다고 말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반찬 가게 주인은 칠성 아범을 끌어들이 자신이 셈을 틀릴 리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 한다. 반찬 가게 주인은 이를 통해 창수의 요구를 일축하고 상황을 종결하려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창수'와 '칠성 아범'을 모두 언급하여 썼다.	☐
잔돈 요구를 일축하려는 반찬 가게 주인의 의도가 드러나도록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 15** (가)는 도시 생활에 대한 창수의 동경이 나타나는 장면이고, (라)는 잔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면박만 당하고 돌아온 소년이 도시 생활의 설움을 느끼며 서울을 보내 달라고 졸랐던 일을 후회하는 장면이다. 두 장면의 대비는 인물이 품었던 이상과 실제 경험 간의 간극을 드러내어, 도시가 지닌 '희망과 절망'이라는 이중적 면모를 보여 준다. 따라서 (가)와 (라)의 대비는 근대 도시의 긍정적 면모를 부각하기보다는, 도시의 양면성을 인물의 감정 변화를 통해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창수는 서울로 오기 전부터 서울로만 보내 달라고 부모님을 조를 정도로 서울에 오고 싶어 하였다. 이러한 서울에 대한 동경이 빨래터의 풍경과 권투 연습 풍경 등을 긍정적이고 흥미롭게 바라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② 반찬 가게 주인은 창수의 말을 끝까지 들어 주지 않고 눈을 부라리며 매몰차게 일축하는데, 이는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근대 도시 서민들 사이의 비정하고 냉정한 관계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③ 창수는 서울로 오고 싶어 하였지만, 잔돈 문제로 혼이 나는 일을 통해 서울에 온 것을 후회한다. 이 후회는 <보기>에서 언급된, 근대 도시가 가진 동경과 현실 간의 괴리를 직접 체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⑤ (가)~(라)에서 창수가 느끼는 감정은 서울 청계천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환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광복 이후 문학

작품 1 오발탄

* 확인 문제

본책 198~205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② 05 ④ 06 ③ 07 철호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08 ⑤ 09 ② 10 ④ 11 해방, 반어 12 ① 13 조물주의 오발탄 14 ⑤ 15 ③

- 01** 이 글에서 철호가 처한 문제 상황(동생 영호의 체포와 아내의 사망)은 해결되지 않는다. 철호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거리를 배회할 뿐이다.

| 오답 풀이 | ① 월남한 철호네 가족이 해방촌 판잣집에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전후 사회의 궁핍한 현실이 드러난다.

② 이 글은 1950년대 말을 시대적 배경으로 6·25 전쟁 이후 월남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③ 이 글에는 정신 이상이 된 어머니, 상이군인으로 제대한 후 권총 강도가 된 남동생 영호, 양공주가 된 여동생 명숙, 출산 중 사망한 아내 등 한 가족이 겪는 정신적·육체적 비극이 형상화되어 있다.

⑤ '앞부분 줄거리'에서 '월남한 철호네 가족은 해방촌 판잣집에 산다.'라고 하였으므로, 월남민들이 모여 사는 해방촌이 공간적 배경임을 알 수 있다.

- 02** '앞부분 줄거리'에 의하면 북쪽에서의 지주의 삶을 그리워하는 인물은 어머니이다. 또한 철호는 궁핍하지만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려 하는 인물로,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어머니는 북쪽에서 지주의 삶을 살았으나 월남 이후 정신 이상이 되어 '가자'라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하였다.

② 영호는 술만 마시며 낭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상이군인이며, 은행에서 권총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서에 잡혀 갔다고 하였다.

③ 명숙은 양공주가 되었다고 하였다.

④ 아내는 가난에 찌들어 살던 만삭의 임신부로, 병원에서 죽었다고 하였다.

- 03** 철호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만 환 다발을 만진 것은 치과 간판을 보고 이전부터 쏘시던 이가 아파져 치료비가 있는지 확인한 것일 뿐,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철호가 갑자기 이가 쏘신다고 느낀 것은 심한 충격 속에서 잊고 있던 신체적 고통이 다시 의식된 것이다. 이로 인해 만 환 다발을 만졌으므로 ⑥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철호가 아내의 죽음을 전해 듣고도 간호원보다 더 심상한, 즉 대수롭지 않고 예사로운 표정을 지은 것은 겉으로 담담한 태도를 보이는 ③에 해당한다.

② 철호가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고도 시체가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은 것은 겉으로 담담한 태도를 보이는 ㉔를 보여 주는 동시에, 실제로는 ㉔와 같은 정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는 철호의 감정 상태를 보여 준다.

③ 철호가 병원 현관에 한참이나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은 충격으로 인해 다음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④ 철호가 진열장을 하나하나 기웃거리면서도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04 ㉔에서 철호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혼란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뿐이므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㉔ ㉔에서 '무엇인가 큰일이 한 가지 끝났다는 그런 기분'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㉔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좀처럼 생각이 나질 않았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㉔에서 '그저 이제는 그리 서두를 필요도 없어졌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㉔에서 '무언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은 무거운 기분'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05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서술하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가 작중 인물로 설정된 것은 1인칭 시점이므로 이 글의 서술상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㉔ 철호가 치과에서 이를 뽑고, 다른 치과를 찾아 나머지 이를 뽑고, 남대문을 지나 서울역 쪽으로 걷는 과정이 시간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다.

② 철호와 의사의 대화를 통해 철호가 이를 빼려는 상황과 의사가 만류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③ 치과라는 특정 공간에서 철호가 이를 뽑는 장면이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⑤ 철호라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행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06 <보기>에서 영호는 철호가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기 위해 충치조차 치료하지 못하고 참아 왔다고 말한다. 즉 충치는 양심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감내해 온 고통을 상징한다. 따라서 철호가 충치를 한꺼번에 몽땅 뽑아 달라고 하는 행위는 더 이상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겠다는 것, 즉 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현실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오답 풀이 | ㉔ 충치를 뽑는 행위는 양심적 삶에서 비롯된 고통을 제거하려는 것이므로, 양심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과는 반대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② 충치를 뽑는 행위는 도덕적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충치를 뽑는 행위는 양심적 삶으로 인한 고통을 제거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는 양심을 기준으로 한 자기 성찰이라기보다는 양심적 삶의 포기에 가깝다.

⑤ 충치를 뽑는 행위는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07 **| 서술형** (라)에는 충치를 모두 뽑아 버린 철호가 어지러움과 오한을 느끼는 장면이 나타난다. 철호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금니 두 개를 연달아 뽑아 과다 출혈로 빈혈 증상까지 겪는데, ㉔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철호의 상태를 잘 보여 준다.

08 ㉔의 과다 출혈은 두 번째 의사의 처치 미숙 때문이 아니라,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철호가 두 개의 어금니를 연달아 뽑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㉔ 이 뿌리가 '속이 시커멓게 썩은' 상태인 것은 철호가 오랫동안 충치를 방치해 왔음을 보여 준다.

② 철호가 이를 뽑을 때 아픔을 느끼지 못한 까닭은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육체적 고통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첫 번째 치과의 의사가 철호의 충치를 한꺼번에 뽑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철호는 나머지 충치를 뽑기 위해 두 번째 치과를 찾게 된다.

④ 의사가 빈혈증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고 경고하는 것을 통해 한 번에 여러 개의 어금니를 뽑는 것이 위험함을 알 수 있다.

09 철호가 음식점 안을 둘러보고 어지러움을 느껴 일어났다는 내용은 확인되나, 그 음식점이 아내와 함께했던 곳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추억에 잠기는 철호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㉔ (마)에서 철호는 발치 후 입안에 피가 고이고 계속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머리가 아찔'해지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다.

③ (마)에서 철호는 설령탕집에 들어가 '설령탕.'이라고 주문한 뒤 식탁에 앉는다. 그러나 설령탕이 나오기도 전에 머리가 아찔하여 문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오는데, 이를 통해 철호가 식사를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마)에서 철호는 자신의 몸 상태가 이상함을 느끼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 누워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큰길로 나와 택시를 타는 것으로 보아, 처음에 택시에 탈 때는 목적지가 집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바)에서 운전수가 "취했나?"라고 묻고 조수 애가 "그런가 봐요."라고 대답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보기>에 제시된 ㉔~㉔의 세 행선지는 모두 철호네 가족의 불행을 보여 준다. 이 불행은 철호 개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쟁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해방촌)은 정신 이상이 된 어머니가 있는 철호의 집이 있는 곳이다. 철호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아내의 죽음과 동생의 체포라는 현실로 인한 충격으로 행선지를 계속 바꾸고 있다.

② ㉡(S 병원)은 철호의 아내가 죽은 장소로, 아내의 시신이 안치된 공간이다.

③ ㉢(X 경찰서)은 강도 행각을 벌인 영호가 체포되어 있는 곳이다.

⑤ 철호가 행선지를 바꾸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혼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11 **📖** **시술형** 광복 후 해방촌은 주로 월남민들이 정착한 곳이었다. 그러나 실제 해방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호네 가족처럼 빈곤, 전쟁, 분단의 고통 등에서 해방되지 못했기에 ‘해방촌’이라는 지명은 반어적 의미를 지닌다.

12 교통 신호등이 파랑 불로 바뀌는 장면은 사건 전개의 전환점을 예고하지 않는다. 철호가 과다 출혈로 의식을 잃는 비극적 상황에서도 신호등은 기계적으로 바뀌고 차는 목적지 없이 움직이는데, 이는 전후 사회의 부조리 속에서 개인의 불행이 해소되지 못한 채 지속됨을 보여 준다.

13 **📖** **시술형** ‘오발탄’은 잘못 쏜 탄환으로, 의도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철호는 자신을 ‘조물주의 오발탄’에 비유하여 삶의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14 [A]에서 철호는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아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계리사 사무실 서기 구실’ 등 자신이 해야 할 역할들을 나열하며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라고 하고 있다. 이는 가장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의 무게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드러낸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A]에서 철호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의 무게를 생각하고 있다.

② [A]에서 철호는 ‘갈 곳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삶의 방향을 상실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로 보기 어렵다.

③ [A]에서 철호는 타인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의 무게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④ [A]에서 철호는 해방촌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아닌, 여러 역할의 무게에 짓눌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15 철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채 귓가에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며 쓰러진다. ㉠의 “가자!”라는 말은 정신 이상이 된 어머니가 되풀이하는 말과 같은 것으로(ㄱ),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철호의 절망적 상태를 드러

내며(ㄴ), 동시에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철호의 절박한 심리를 나타낸다(ㄷ).

| 오답 풀이 | ㄷ. 철호가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통제 불능의 현실에 내몰려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내뱉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다.

작품 2 대설 주의보

★ 확인 문제

본책 206~207쪽

01 ㉠ 02 ㉡ 03 눈보라의 군단, 백색의 계엄령 04 ㉢

01 이 시에서 말줄임표는 ‘쫄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에서 사용되었다. 이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태로운 상황에서 힘겹게 나아가는 굴뚝새의 모습을 지켜보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말줄임표를 활용한 생략법은 가혹한 현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준다.

| 오답 풀이 | ①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눈보라의 군단’, ‘백색의 계엄령’ 등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눈보라의 위협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② ‘백색’의 눈과 ‘솟덩이’(검은색)로 비유된 굴뚝새의 색채 대비를 통해 대상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③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힘찬 눈보라의 군단’과 ‘쫄그마한 솟덩이만한’, ‘굴뚝새’의 대비를 통해 연약한 존재의 처지를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④ ‘휘몰아치고’, ‘날아오듯 덩벼드는’, ‘다투어 몰려오는’ 등 역동적 표현을 활용하여 눈보라의 위협적 기세를 강조하고 있다.

02 이 시는 대립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을 활용하여 시대 현실 속 민중의 모습을 선명한 이미지로 그려 내고 있다. 이 시에서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은 위협적 세력이 아니라 눈보라로 인해 고통받는 나약한 존재이다. 또한 ‘백색의 굴뚝새’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공간적 배경으로,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에서 ‘해일’은 위협적 세력을 비유하며, ‘굴뚝새’는 ‘쫄그마한 솟덩이만한’ 나약한 존재이다.

②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에서 ‘눈보라’는 위협적 세력이며, ‘눈 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에서 ‘소나무 가지’는 나약한 존재이다.

③ ‘굶은 눈발은 휘몰아치고’에서 ‘굶은 눈발’은 위협적 세력이며, ‘외딴 두메 마을 길 끊어 놓을 듯’에서 ‘외딴 두메 마을’은 나약한 존재이다.

④ ‘부리부리한 술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에서 ‘술개’는 굴뚝새를 위협하는 존재로 위협적 세력이며,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에서 ‘길 잃은 등산객’은 나약한 존재이다.

03 **🔍** **세술형** ‘눈보라의 군단’, ‘백색의 계엄령’에서 ‘군단’과 ‘계엄령’은 군에서 사용하는 군사 용어이다. 이러한 군사 용어는 이 시가 창작된 1980년대 군부의 계엄령 상황(강압 정치)이 갖는 폭압적인 모습을 환기한다.

04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은 2연과 4연에서 반복되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ㄱ). 또한 ‘내리다’는 ‘눈이 내리다(자연 현상)’와 ‘계엄령을 내리다(선포하다)’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 중의성을 형성하고 있다(ㄴ). 아울러 ‘계엄령’이라는 명사로 연을 종결함으로써 그 상황이 완결되지 않고 계속됨을 상기하고 있다(ㄷ).

| 오답 풀이 | **ㄷ.** ‘백색’은 눈보라의 색깔을 나타내는 시각적 이미지이고, ‘계엄령’은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을 비유한 것이므로, 두 이미지는 대조를 이루기보다는 결합하여 눈보라의 위협적이고 폭압적인 분위기를 강조한다. 또한 이 표현은 회의적 태도보다는 가혹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작품 3 북어 대가리

★ 확인 문제

본책 208~215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④ **05** ④ **06** • ㉠: 기계 • ㉡: 폭탄
07 ⑤ **08** ③ **09** ④ **10** ⑤ **11** ③ **12** ⑤ **13** ⑤ **14** ④
15 북어 대가리

01 이 글은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운전수가 딸기코와 외눈깔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은 과거 회상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장면이다.

| 오답 풀이 | ① 자양과 운전수의 대화를 중심으로 극이 전개되고 있다.

③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 손에 쥐여 준다.)’ 등의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행동과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④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편지를 보내려 하는 자양과 그것이 소용없는 일이라며 만류하는 운전수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⑤ ‘창고’와 ‘상자’ 등의 소재를 통해 폐쇄적이고 분업화·획일화된 현대 산업 사회의 모습을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2 이 글에서 ‘상자들’의 내용물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정보 보호와 무관하다. 이는 등장인물들이 자신이 무엇을 운반하는지, 자신의 노동이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소외된 노동 현실을 상징한다. 또한 노동의 의미와 목적이 상실된 현대 산업 사회의 부조리함, 전체를 알지 못한 채 파편화된 역할만을 수행하는 비인간적인 현대 산업 사회의 구조를 부각한다.

03 이 글의 등장인물들은 이름이 아니라 성씨, 직업, 별명 등에서 따온 명칭으로 불린다. 이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 개인이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의 특징만으로 구분되어 부품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04 자양이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라고 한 것은 익명화된 현대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양은 어떤 방식으로든 편지가 전달되지만 하면 된다는 의지를 보여 주며,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 손에 쥐여 주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자양은 잘못 배달된 상자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편지를 보내려 하고 있으므로, 도덕적 책임 의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② 딸기코와 외눈깔이 같은 정거장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각 일하는 것은 같은 공간 안에서도 각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분업화된 구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③ 같은 정거장에서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파편화되어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운전수는 편지가 외눈깔에서 다음 사람으로, 또 다음 사람으로 계속 전달되어야 상자 주인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직접 전달이 불가능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분업화된 시스템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5 자양은 상자가 잘못 배달된 사실을 상자 주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편지를 보내려 한다. 반면 운전수는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라고 말하며 편지를 찢어 버린다. 이처럼 두 인물은 상자가 잘못 배달된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 갈등하고 있다.

06 **🔍** **세술형** 다리는 상자 속 부속품으로 만드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는 신기한 기계’라고 했다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폭탄'이라고 외친다. 이 처럼 정반대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기임이 고의로 바뀌 내 보낸 상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임의 잘못된 행동이 오히려 세상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자양의 성실함이 오히려 세상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07 운전수는 창고 안에서 일어난 일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양의 편지를 찢은 것이다. 운전수는 상자가 뒤바뀐 것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알 수 없으니, 그냥 덮어 두는 것이 창고 속의 자양에게 편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08 자양은 서류를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운전수는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것은 바보들뿐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자양은 서류를 신뢰하고 운전수는 신뢰하지 않으며, 두 인물이 서류의 신뢰도에 대해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자양이 서류를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자양이 서류를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실제적 경험(아내의 사망 신고를 안 해서 서류상으로는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는 예)을 드는 것은 자양이 아니라 운전수이다.

④ 운전수는 자양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라고 말하며 반박한다.

⑤ 이 글에서 자양이 서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9 운전수는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라며 기임에게 빨리 짐을 싸서 나오라고 재촉하고 있다. 기임이 창고를 떠나는 것을 반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자양이 “우리 철부지 시절부터 이 창고지기였어.”라고 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자양이 기임을 꺼안으며 “제발 가지 마!”라고 말하는 것에서 기임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며 만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③ 기임이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고, 자양도 “나도 알아.”라고 답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다령이 “무조건 다 가져가요.”,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도 돼요?”라고 말하는 데서 다령의 욕심 많은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10 기임이 창고를 떠나려는 이유는 창고 생활에 싫증이 나서 창고가 더 이상 자신이 살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 기임이 창고 일이 고되다고 말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자양의 잔소리가 심해졌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기임은 자양이 자신을 고맙게도 보살펴 줬다고 말하고 있다.

③ 이 글에 기임이 창고 밖 세상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자양과 기임은 서로 아쉬워하며 헤어지고 있으며,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볼 만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11 자양은 기임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며 만류하지만, 기임을 원망하지 않는다. 자양은 기임에게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스웨터를 주고, 북어 대가리가 들어 있는 상자도 가져가라고 하는 등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 오답 풀이 | ①, ② 자양이 술을 마신 기임에게 북엇국을 끓여 주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북어 대가리는 기임을 보살피던 자양의 마음, 두 사람이 창고에서 함께 보낸 일상의 추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④ 기임은 북어 대가리를 자양에게 주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구.”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북어 대가리는 자신을 기억하길 바라며 기임이 자양에게 건네는 선물로 볼 수 있다.

⑤ 자양이 다령에게 북어 대가리 상자를 건네며 “꼭 필요할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임과 다령에 대한 배려를 확인할 수 있다.

12 기임의 환호성이 들릴 때 무대에 남아 있는 것은 자양이다. 지시문에서 자양은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라고 하였으므로, 떠나는 기임의 즐거움과 대조되는 자양의 쓸쓸함과 허탈함을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무대를 밝게 비춰 즐거운 분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는 북어 대가리, 상자 등의 소품이 등장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② ‘창고 밖에서 트럭의 재촉하는 경음기가 울린다.’라고 하였으므로 경음기 소리를 효과음으로 처리하려는 계획은 적절하다.

③ ‘무대 조명, 서서히 자양에게 압축되면서 암전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조명이 자양에게로 좁혀지다가 꺼지는 것이 적절하다.

④ 자양이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라고 하였으므로 자양 역의 배우는 허탈한 심정이 드러나도록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이해 더하기

「북어 대가리」의 지시문

「북어 대가리」는 연극 상연을 위한 희곡으로, 지시문에 인물의 동선, 몸짓과 함께 조명의 변화, 효과음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인물의 심리와 상황의 긴장감을 시각·청각적으로 드러낸다.

13 ㉠에서 자양은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라고 자문한다. 이는 전체 시스템이 부조리하다면 그 안에서 자신이 성실하게 일해 온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4 ㉠에서 자양은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라고 외치며 상자를 쌓는다. <보기>에서 현대 산업 사회의 구성원이 조직의 규칙과 절차에 집착한다고 하였는데, 자양이 어둡고 좁은 창고 속에서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상자를 쌓는 모습은 폐쇄된 환경 속에서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자양은 운명을 받아들이며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② 자양은 물질적인 욕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③ 자양은 낙관주의에 빠져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실함에 의문을 품고 있다.

⑤ 자양은 자아 성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창고 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15 **새술형** 북어 대가리는 몸뚱아리 없이 머리만 남아 있다. 이 작품은 북어 대가리를 상징적인 소재로 활용하여 주체성과 판단력의 부재로 방향성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단원 평가 문제

본책 216~219쪽

01 ④ 02 가족의 연이은 불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삶의 의미를 잃었음을 보여 준다. 03 ⑤ 04 ⑤ 05 ⑤
06 ‘내리다’가 눈이 내리다와 계엄령이 내리다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눈보라가 내리는 위협적인 자연 현상과 계엄령이 선포된 폭압적인 시대 상황을 동시에 의미한다. 07 ②
08 ④ 09 ① 10 ⑤ 11 ⑤ 12 작가는 분업화, 획일화된 현대 산업 사회에서 기계의 부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01 이 글은 역순행적 구성이 아니라 철호가 병원에서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고, 치과에서 이를 뽑고, 택시를 타는 순서로 시간 순서로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마)에서 ‘아들 구실. 남편 구실. ~ 가긴 가야 한다.’라는 내면 독백을 통해 철호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② 병원, 치과, 택시 등으로 장면을 전환하며 철호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③ 철호라는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춰 그의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⑤ (라)에서 조수와 운전수가 철호를 보며 ‘참 딱한 아저씨네’, ‘취했나’라고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 철호가 지쳐 있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2 **새술형** 철호는 동생 영호가 권총 강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되고 아내가 사망하는 불행이 연달아 닥치면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호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꺼번에 뽑아 달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잃은 심리 상태를 보여 준다.

평가 기준	확인 ☑
철호의 상황(가족의 연이은 불행)을 적절하게 썼다.	☐
철호의 심리 상태(정신적 충격, 삶의 의미 상실)를 적절하게 썼다.	☐

03 철호가 계리사 서기로 일하는 것은 경제 활동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철호가 계리사 서기로 일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월남민의 현실을 보여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명숙이 양공주가 된 것은 가난으로 인해 양공주가 되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는 당대 사회의 물질적 궁핍을 보여 준다.

② 영호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것은 전쟁으로 인한 육체적 상처를 보여 준다.

③ 어머니가 월남 이후 정신 이상이 된 것은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보여 준다.

④ 북쪽에서 지주로 살던 철호네 가족이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남쪽에서 해방촌 판잣집에 사는 것은 실랑민이 겪는 경제적 궁핍을 보여 준다.

04 <보기>는 6·25 전쟁 이후 실업자와 빈민들이 힘겹게 살아가야 했던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마)에서 철호는 자신을 ‘조물주의 오발탄’이라며 ‘정말 갈 곳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한다. <보기>를 참고할 때, ‘오발탄’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전쟁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비극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고 소외된 채 표류하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철호는 도덕적 신념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려 한 인물이다.

② 철호는 계리사 서기로 박봉을 받으며 가족을 부양해 왔다.

③ 철호가 방황하는 것은 나태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전후 사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④ ‘오발탄’은 운이 따르지 않아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시대적 모순 속에서 방향을 잃은 존재를 의미한다.

05 이 시는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깊은 백색의 골짜기’, ‘힘찬 눈보라의 군단’과 같은 거대한 대상과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굴뚝새’의 크기 대비를 통해 시적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ㄴ). 그리고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등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의미

를 강조하고 있으며(ㄷ), ‘휘몰아치고’, ‘덤벼드는’, ‘다투어 몰려오는’ 등 역동적 표현을 통해 눈보라의 위력을 형상화하고 있다(ㄷ).

| 오답 풀이 | ㄱ. 영탄적 어조란 화자가 감탄이나 탄식 등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어조를 말한다. 이 시에서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06** **🔗** **서술형** ㉠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은 눈보라가 내리는 위협적인 자연 현상과 계엄령이 선포된 폭압적인 시대 상황을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이 시구는 2연과 4연의 끝에 반복 배치되어 폭압적인 시대 상황을 강조하며, 명사로 종결되어 억압적 시대가 계속되고 있음을 상기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내리다’가 내포하는 두 가지 의미를 바탕으로 구절에 담긴 중의성을 적절하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 07** 짧은 눈발(㉠), 눈보라의 군단(㉡)은 위협적 세력을 상징한다. 반면 굴뚝새(㉢), 길 잃은 등산객(㉣),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은 위협 앞에 놓인 나약한 존재를 상징한다.

- 08**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 직후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라고 한 것에서, 솔개는 굴뚝새를 위협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솔개는 민중을 보호하려는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민중을 탄압하는 군부 세력이나 감시 세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외딴 두메 마을 길 끊어 놓을 듯’은 군부의 강압 정치로 인해 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②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에서 ‘군단’이라는 군사적 표현은 무력으로 진압하는 군부 세력의 모습을 환기한다.
 ③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는 것은 무력 진압을 피해 숨어야 하는 민중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때 끓이는 외딴집 굴뚝’은 억압적 상황 속에서도 일상을 이어가는 민중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09** (가)에서 성실한 자양과 달리 기임은 창고에서 하는 자신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창고 생활에 싫증이 났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② (가)에서 기임이 언제부터인가 창고 밖에서 운전수의 딸인 다리를 만난다고 하였다.
 ③ (다)에서 창고 생활에 싫증이 난 기임은 다리의 말대로 고의로 창고의 상자 하나를 바꿔 내보냈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자양이 상자가 잘못 배달된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썼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운전수는 자양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든지 알 수는 없어.”라고 말하며,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무엇을 만드든지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 10** (라)에서 자양은 ‘복어 대가리’를 보며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이라고 말하며 쓸쓸하고 허무한 감정을 토로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회의한다. 그러나 곧 “아냐, 내 의심은 틀린 거야.”라며 다시 기존의 삶으로 돌아가려 한다. 따라서 ‘복어 대가리’가 허무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를 암시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자양이 ‘복어 대가리’를 보며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자양이 ‘복어 대가리’를 보며 “쓸쓸하고 ……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 머리만 …… 덜렁 …… 남은 거야.”라고 말하는 것에서 ‘복어 대가리’가 머릿속에 생각만 가득한 자양의 처지를 빗대어 표현한 소재임을 알 수 있다.
 ③, ④ ‘복어 대가리’는 몸통이 없이 머리만 남은 상태로, 자양은 이를 보며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이라고 말한다. 이 글에서 ‘복어 대가리’는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자양의 모습을 빗댄 것으로, 산업 사회에서 고유한 가치를 상실한 채 주어진 일만 반복하고, 판단력과 주체성의 부재로 방향성을 잃은 채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1** ‘자양’과 ‘기임’처럼 성씨만 사용한 명명 방식은 개인의 고유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상실되고 익명화된 현대 산업 사회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창고’라는 제한된 공간은, 경직된 현대인의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하였다.
 ② <보기>에서 익명성을 강조한 등장인물의 명칭은, 경직된 현대인의 삶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 글의 ‘딸기코’, ‘외눈깔’, ‘노름꾼’ 같은 별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를 통해 볼 때 규격화된 ‘상자들’이라는 소재는 획일화된 현대 사회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단순한 행위의 반복은, 경직된 현대인의 삶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 12** **🔗** **서술형** ㉠에서 운전수는 자신이 상자를 운반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전혀 모른 채 그냥 싣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현대 산업 사회의 분업화된 노동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작가는 작가가 전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부분적인 일만 반복하는 상황, 즉 기계의 부품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현대 산업 사회’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썼다.	☐
분업화·획일화된 구조 속에서 기계의 부품처럼 살아가는 삶을 비판한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4. 삶과 함께하는, 문학

01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작품 1 나

★ 확인 문제

본책 224~227쪽

01 ⑤ 02 ③ 03 ④ 04 열거법 05 ① 06 ⑤ 07 오직 하나뿐인 나 08 ②

01 이 시의 1연에서는 '나의 ~의 ~(이)고'라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은 운율을 형성함과 동시에,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다양한 '나'의 모습을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

이해 더하기

시의 운율 형성 방법

- 같은 음이나 단어, 구절, 문장 구조 등을 반복함.
예 갈래갈래 갈린 / 길이라도 → 'ㄱ'과 'ㄹ'의 반복
- 일정한 글자 수(음절 수)나 음보(끊어 읽는 단위)를 반복하여 규칙성을 부여함.
예 가시리 가시리이고 / 부리고 가시리이고 → 3음보, 3·3·2조
- 음성 상징어를 활용함.
예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너털다가 → 의태어 활용

02 이 시의 화자는 '아버지의 아들', '나라의 납세자' 등과 같이 타자 또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 자신의 호칭들을 살펴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이 직면한 현실을 회피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시에서 화자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을 뿐,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지는 않는다.

④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을 뿐, 앞으로의 각오나 다짐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시 전체를 통해 볼 때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끝맺는데, 이러한 질문은 각오가 아니라 본질적 자아를 탐색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⑤ 이 시의 화자가 나열하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자신의 호칭들이다.

03 이 시에서 '나'를 부르는 호칭들은 '나'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아들', '아버지', '형'과 같은 호칭은 가족 관계로부터, '제자', '납세자'와 같은 호칭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부여된 역할을 보여 준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⑤ 이 시에 나열된 호칭들은 '나'가 맺는 관계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나'가 가족과 사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

를 맺으며 복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여기서 '아들', '아버지', '형' 등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납세자', '예비군', '손님' 등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낸다.

③ '납세자', '예비군'이라는 호칭은 '나'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는 존재임을 보여 주며, '가장'이라는 호칭은 '나'가 집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04 **새술형** 이 시에서는 열거법을 사용하여 '아들, 아버지, 동생, 형' 등 서로 대등한 자격을 갖는 18개의 호칭을 나열하여 '나'가 여러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05 이 시는 3연에서 '무엇', '누구'와 같이 잘 모르는 사실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활용하여 본질적 자아를 탐색하기 위한 화자의 의문을 드러내고 있으며(ㄴ) '무엇인가', '누구인가'와 같이 의문형 어미로 행을 끝맺어 본질적인 '나'의 탐구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ㄱ).

| 오답 풀이 | ㄷ. 이 시의 3연은 1연과 2연에 비해 짧으므로, 각 연의 길이가 비슷하다고 보기 어렵다.

ㄹ. 이 시는 각 연의 처음과 끝에 유사한 시행을 배치하는 시상 전개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06 이 시의 3연에서 화자는 본질적 자아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고 본질적 자아를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시에서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를 탐구하는 일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7 **새술형** 화자는 1연에서 관계 속에서 부여된 다양한 호칭을 나열한 뒤, 2연에서 이것이 진정한 자아, 즉 '오직 하나뿐인 나'가 아님을 인식한다. 그리고 3연에서 화자가 찾고자 하는 본질적 자아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나'로 표현하며 물음을 던지고 있다.

08 이 시의 화자는 가족 구성원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오직 하나뿐인 '나'가 아님을 인식하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나'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이 시의 부제로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서'가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이 시의 화자는 '나'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시에서 화자의 이상이나 이와 동떨어진 현실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화자는 관계 속에서 규정된 '나'의 모습들을 살펴봄으로써 본질적 자아에 대해 묻고 있을 뿐, 고독감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④ 이 시에는 화자의 욕망이나 책임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화자는 관계 속에서 부여된 호칭들이 진정한 자신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인식하며 본질적 자아를 탐색하고 있다.

⑤ 이 시에서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탐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작품 2 눈물은 왜 짝가

★ 확인 문제

본책 228~229쪽

01 ④ 02 ③ 03 눈물은 왜 짝가 04 ④

01 이 시는 '설렁탕'과 같은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와 어머니 사이의 애뜻한 정을 그려 내고 있다. 현실의 문제를 냉소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특', '조심', '일순'과 같은 어휘 뒤에 심표를 넣어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② 어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③ '눈물은 왜 짝가'라는 질문의 형식으로 시를 마무리하여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⑤ '-버니다'의 경어체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듯한 효과를 주고 있다.

02 이 시에는 가세가 기울어 자식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상황 등에서도 어머니가 자식인 '나'를 먼저 챙기는 데서 어머니의 사랑이 드러나, 어머니가 '나'에게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어머니가 자신의 투가리에 국물을 계속 부어 주자 자신의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부딪쳐 어머니의 행동을 만류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② '나'는 복받치는 감정을 '설렁탕에 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 대며 참고, 눈물을 '땀인 양' 감추며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④ 어머니는 가세가 기울어 자식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고기가 몸에 맞지 않으면서도 '나'에게 고기를 먹이기 위해 설렁탕 집에 간다.

⑤ 주인아저씨는 모자의 행동을 보고도 모른 척 시선을 외면하고, 깍두기 한 접시를 조심스럽게 놓고 돌아서며 모자를 조용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03 **시술형** 이 시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감동, 주인아저씨의 배려에 대한 고마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 등 화자의 복합적 감정이 미각적 이미지로 응축되어 나타난 표현은 '눈물은 왜 짝가'이다.

04 ㉠은 어머니가 주인아저씨 몰래 '나'의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 주는 행동으로, 여기에는 자식에게 고깃국물을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다. ㉡은 '나'가 울먹치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 대는 행동으로, 여기에는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어머니를 편히 모시지 못하는 상황 등에 대한 서러움이 담겨 있다. ㉢은 주인아저씨가 모자가 미안한 마음을 느끼지 않도록 모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깍두기를 놓고 돌아서는 행동으로, 모자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다.

단원 평가 문제

본책 230~233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④ 05 다양한 호칭들은 관계 속에서 규정된 것일 뿐 자신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06 ④ 07 ② 08 ④ 09 ③ 10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한다. /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다. 11 ② 12 국물 13 ③ 14 ⑤

01 이 시에 '친구'와 '적'처럼 상반된 의미의 시어가 나타나지만, 이는 관계에 따라 부여되는 다양한 호칭으로 나열된 것이며, 문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병치된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나의 ~의 ~(이)고'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나'의 다양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②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독자에게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④ 잘 모르는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 '무엇'과 '누구'를 활용하여 본질적 자아에 대한 탐색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아버지의 아들', '아들의 아버지', '제자', '선생' 등 대등한 자격의 시어나 시구를 열거하여 '나'의 다양한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

02 화자가 열거하고 있는 '아들', '아버지', '형', '동생' 등의 호칭은 관계 속에서 부여된 다양한 역할을 함의한다. 화자는 이러한 호칭들을 살펴본 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본질적 의미를 짚어 보고 있을 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지 않다.

② 화자는 현재 '나'의 다양한 모습을 떠올리고 있을 뿐, 과거의 모습을 되돌아보거나 잘못을 반성하지는 않는다.

④ 화자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을 뿐 현실 속 자신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

⑤ 화자는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분석하거나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다. 화자의 관심은 관계가 아니라 본질적 자아에 있다.

03 ㉢ (3연)에서 화자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본질적 자아를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자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1연)에서 화자는 자신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을 살펴봄으로써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자아를 인식하고 있다.

② ㉡(1연)에서 화자가 '납세자', '예비군', '가장' 등의 호칭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화자가 사회와 가정에서 짊어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2연)에서 화자는 자신과 관계를 맺은 타자를 제거하고 자신을 부르는 호칭만으로 '나'를 살펴봄으로써 깨달음에 이르고 있다.

④ ㉢(3연)에서 화자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본질적 자아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04 이 시에서 화자가 찾고자 하는 ‘나’는 관계 속에서 규정된 자아가 아닌, ‘오직 하나뿐인 나’,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나’, 즉 본질적 자아이다. ④의 ‘원희’는 관계나 역할이 아닌 자신의 고유한 성격과 특성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찾고자 하는 본질적 자아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05 **새술형** 이 시에서 화자는 1연에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다양한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2연에서 ‘나’와 관계를 맺은 타자는 모두 제거하고 자신을 부르는 호칭만으로 ‘나’를 규정해 본다. 하지만 화자는 이 호칭들 역시 ‘나’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뿐인 나’는 아님을 깨닫게 된다.

평가 기준	확인 ☑
호칭들이 관계 속에서 규정된 것임을 언급하여 자아의 본질이 아님을 썼다.	☐
‘~ 때문이다.’의 형태로 썼다.	☐

06 ①은 본질적 자아를 탐색하고 있는 현재의 ‘나’를 의미한다. ‘지금’, ‘여기’는 화자가 처한 현재의 시간과 공간을 전제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 자아를 지칭하기 보다, 현재 상황 속에서 인식되는 자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07 이 시에는 성찰의 계기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보기>에서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이라는 성찰의 매개물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시의 화자는 현재 자신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 즉 관계 속 ‘나’를 살피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있다. ③, ④, ⑤ 이 시의 화자는 다양한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들을 살피며 본질적 자아를 탐구하고 있다. 반면 <보기>의 화자는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매개로 시대적 현실을 인식하며 부끄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이해 더하기

윤동주, 「참회록」

이 시는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구리거울’을 매개로 자신의 무기력함과 부끄러움을 성찰하며, 도덕적 순결을 추구하는 시이다. 이때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은 망국의 유물로서, 민족의 현실과 개인의 부끄러움을 동시에 비추는 상징적 소재로 작용한다. 작품의 말미에서 화자는 밤마다 녹이 낀 거울을 닦겠다고 다짐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역사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덕적 책임을 자각하고 성찰하고자 하는 지성인의 자세를 보여 준다.

08 이 시는 ‘~입니다’의 경어체 종결 어미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가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는 듯한 효과를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설의적 표현이 쓰인 시의 마지막 구절 ‘눈물은 왜 짙가’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담은 화자의 독백적인 질문으로, 화자의 신념을 강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② ‘지난여름’은 이 시의 배경으로, 이는 계절적 배경을 통한 쓸쓸한 분위기 조성이 아닌 어머니와의 일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간적 장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③ 설령탕집이라는 단일한 공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화자의 내적 갈등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시는 화자가 겪은 과거의 일화를 담담하게 서술하여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감동과 애뜻함을 그리고 있다.

09 이 시에서 ‘나’가 어머니의 투가리를 ‘툭’ 치고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 대는 것은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미안함,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상황의 서러움,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담긴 행동이다.

10 **새술형** 이 시에서는 ‘툭’, ‘짚곰’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어머니와 아들의 투가리가 부딪치는 찰나와 눈물이 나는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표현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미안함과 고마움, 서러움 등의 내밀한 심리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한다는 내용을 썼다.	☐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다는 내용을 썼다.	☐

11 <보기>에는 ‘차가운 아름다움’과 같이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이 시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이 시는 설령탕집을, <보기>는 시내버스 안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③ 이 시의 주인아저씨나 <보기>의 화자는 타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⑤ 이 시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일화를 통해 모자간의 애절한 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반면 <보기>는 성애꽃이라는 자연 현상을 소재로 하여 고단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의 가치와 그들에 대한 연민을 노래하고 있다.

+ 이해 더하기

역설적 표현

역설적 표현이란 겉으로 보기에 서로 어울리지 않거나 모순되는 말들을 결합하여, 그 속에 담긴 더 깊은 의미나 진실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다. 이는 논리적 오류가 아니라, 상반된 개념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대상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문학적 장치이다.

+ 이해 더하기

최두석, 「성애꽃」

이 시는 1980년대의 시대적 배경 아래, 새벽 시내버스라는 공간에서 포착한 ‘성애꽃’을 통해 민중의 삶과 시대적 상황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시인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 버스 창문에 서린 성애를 고단한 하루를 시작하는 서민들이 내뿜은 숨결이 응결되어 만들어진 결과물로 정의한다. 이는 차가운 외부 환경과 대비되는 민중의 내면적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성애꽃의 외양을 묘사하며 그것이 이름 없는 이웃들이 남긴 삶의 흔적이라는 점을 명시한다. 화자는 버스 창가에 서린 성애를 보며 그들의 상황을 유추하고 연민의 태도를 취한다. 후반부에 이르러 화자는 차가운 성애에 얼굴을 대는 행위를 통해 대상과의 정서적 교감을 시도하며, 타인의 삶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시의 종결부에서 화자는 시국 사건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친구를 환기한다. 이를 통해 성애꽃을 매개로 한 화자의 인식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시대적 고통의 공유로 확장된다. 결국 이 시는 성애라는 차가운 이미지와 숨결이라는 열기를 대비시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지속되는 민중의 생명력과 연대의 가치를 조명하고 있다.

12 **✎** **서술형** ‘국물’은 어머니가 자신의 투가리에 있던 것을 아들의 투가리에 부어 주는 것으로, 자신의 몫을 덜어 자식에게 주는 희생적 사랑을 상징한다.

13 ‘짜다’는 ‘소금과 같은 맛이 있다.’라는 뜻을 지닌 말이다. ① ‘눈물은 왜 짠가’에서 ‘짜다’는 그 확장 의미를 고려했을 때 ‘삶이 고되고 힘들다.’, ‘감정이 서럽고 눈물겹다.’, ‘어머니의 사랑의 농도가 소금물과 같이 진하고 깊다.’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의 미각적 표현인 ‘짜다’가 더위와 피로로 인해 신체적으로 지친 상황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시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짜다’라는 맛의 감각을 빌려 화자의 복합적 정서를 드러낸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② 어머니와 주인아저씨의 배려에서 느낀 감동과 고마움이 ‘짜다’에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짜다’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이 진하고 깊다는 의미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짜다’의 확장 의미를 고려하면 고되고 각박한 삶의 체감을 나타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4 <보기>에서는 작품 속 인물들이 타자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바람직한 관계 맺기의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에 묘사된 모자를 묵묵히 배려하는 주인아저씨의 모습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발견한 ⑤가 <보기>의 관점과 가장 잘 부합한다.

02 공동체 참여와 문학의 생활화

작품 1 다클라마칸 배달 사고

+ 확인 문제

본책 234~243쪽

01 ④ 02 ⑤ 03 바벨탑, 암세포 04 ③ 05 ② 06 ④ 07 ⑤ 08 ③ 09 ② 10 ④ 11 국가가 움직임을 완전히 멈춘 동안 개인들이 부지런히 빈스토크를 뛰어다녔다. 12 ③ 13 ③ 14 ④ 15 ① 16 ④ 17 ④ 18 ②

01 이 글은 병수가 은수를 찾아가 자신의 실수로 인해 배달 사고가 났음을 밝히고 이를 계기로 은수와 병수가 타클라마칸 사막에 고립된 민소를 찾는 현재의 이야기, 은수가 민소와 싸우고 헤어진 과거의 이야기, 병수가 민소의 엽서를 은수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배달 사고를 일으켰던 과거의 이야기 등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심리까지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한다.

② (가)~(다)는 빈스토크와 파란 우편함에 대한 병수의 생각과 설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빈번한 장면 전환이나 인물 간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글은 빈스토크라는 가상의 미래 국가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공상 과학 소설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⑤ 이 글은 민소가 구조되는 결말을 담고 있으나, 그 결말을 서두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이해 더하기

공상 과학 소설

공상 과학 소설은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실현 불가능한 허구의 세계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는 소설로, ‘SF(Science Fiction)’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공상 과학 소설은 과학적 사실과 인류 문명에 대한 비전을 결합하여, 미래 사회와 인간의 변화를 탐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현실 속에서 과학의 발전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개인의 변화를 치밀하게 그려 낸다. 이 과정에서 인류의 미래를 비판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과학 기술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나 긍정적 미래상을 제시하여 인류 미래에 대한 경고나 희망을 함께 담아낸다.

02 빈스토크가 ‘현대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했으므로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의 중심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독립된 주권을 인정받은 국가’라고 했으므로, 정치적으로 주권이 없는 곳이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도시화가 백 퍼센트 진행된 나라’를 통해 빈스토크가 도시화가 완벽하게 진행된 나라임을 알 수 있다.

② ‘주변국 수도는 언어나 민족 구성이 빈스토크와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를 통해 빈스토크가 주변국 수도와 언어나 민족 구성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③ ‘영토 내 모든 시공간이 빈틈없이 상품화된 현대 자본주의의 상징 같은 곳이기는 했지만’을 통해 빈스토크가 나라 곳곳이 상품화되어 현대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짐을 알 수 있다.

④ ‘앞부분 줄거리’에 빈스토크는 674층의 초고층 타워로, 인구 50만 명으로 이루어진 독립된 주권을 인정받은 국가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03 **새술형** 주변국 사람들은 빈스토크를 비인간적이고 무분별하게 상업화된 부분이 몰려 있는 곳으로 생각하여 ‘바벨탑’, ‘암세포’ 등에 비유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바벨탑’과 ‘암세포’는 빈스토크를 보는 주변국의 부정적인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04 ㉠ ‘파란 우편함’은 빈스토크가 타인에 대한 신뢰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도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소재이다.

| 오답 풀이 | ①, ④ 파란 우편함은 우편물이 공짜로 배달되는 비공식 우편 체계이다. 빈스토크 시에서 운영하는 공식 우편 체계는 이와 별개로 존재하며, 유료이다.

② 중요한 서류를 보내는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식 우편 체계를 이용한다.

⑤ 무료인 파란 우편함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므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이해 더하기

소재의 문학적 기능

현대 소설에서 소재는 단순히 이야기를 꾸미는 재료가 아니다. 소재는 추상적 주제를 감각적 상징으로 구체화하고, 인물의 내밀한 심리와 욕망을 드러내는 기호로 기능한다. 또한 사건의 인과 관계를 잇는 매개체이자 복선으로 작용하여 서사의 개연성을 높이며, 동시대 일상의 세부를 반영함으로써 작품에 사실성과 시대적 의미를 부여한다. 더 나아가 소재는 반복되거나 변주되는 양상을 통해 작품의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독자가 의미를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소재는 인물·사건·배경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서사의 구조적 통일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현대 소설에서 소재는 주제 구현과 서사 조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05 (라)에서 병수는 파란 우편함을 이용하는 우편물이 “매일 수만 통씩 빈스토크를 돌아다녀요.”라고 하였으므로 파란 우편함을 통해 배달되는 편지가 연간 수천 통 정도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아주 중요한 편지는 유료 우편으로 보내야죠.”라는 병수의 말을 통해 볼 때 적절하다.

③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데 써요.”라는 병수의 말을 통해 볼 때 적절하다.

④ 병수가 파란 우편함을 설명할 때마다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그러니까 빈스토크는 바벨탑이 될 수 없겠죠.”라며 파란 우편함을 빈스토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병수의 모습을 통해 볼 때 적절하다.

06 엘리베이터 이용자들은 파란 우편함의 우편물을 분류하거나 배달한다. 하지만 이는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으로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에서 ㉢로 우편물을 옮기는 것을 의무적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07 병수는 배달 사고를 일으킨 후 마음이 걸렸다고 하였을 뿐으로, 이로 인해 병수가 빈스토크의 우편 체계에 의문을 품거나 비판적으로 돌아섰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8 (사)는 은수가 쓴 편지이다. (사)에는 은수가 민소와 헤어진 후 민소를 잊고 지냈었다는 내용은 드러나지만, 민소와 헤어지게 된 구체적인 사연은 나타나지 않는다.

09 이 글에서는 등장인물인 은수가 지인들에게 쓴 편지를 작품에 직접 인용함으로써 은수의 절박한 심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10 자신이 행정력을 동원할 형편이 안 된다는 병수의 말을 듣고 은수가 지인들에게 편지를 쓴 상황과, 이어지는 은수의 편지 내용을 통해 ㉠에서 생략된 말을 추론할 수 있다. 은수는 편지에서 자신과 민소의 상황을 설명한 후, 웹사이트에 접속해 구역을 나눠 놓은 위성 사진에서 비행기 잔해를 찾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타클라마칸 사막은 민소가 탄 비행기가 격추되어 추락한 장소이나 은수의 편지는 사막의 위험성을 알리는 게 아니라 민소의 구조를 위한 공동의 행동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② 은수는 민소를 구조하는 일에 국가가 손을 놓은 상태에서 빈스토크 해군이 아닌 지인과 시민들에게 위성 사진을 확인하는 일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③ 은수가 쓴 편지에 민소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은수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서버에 올려진 위성 사진에서 비행기 잔해를 찾는 일에 동참해 달라는 것이며 사막에 직접 가서 비행기 잔해를 찾아 달라는 게 아니다.

11 **새술형** ‘국가가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었다는 것은 국가는 민소의 구출을 포기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인들이 부지런히 빈스토크를 뛰어다녔다’는 것은 병수와 은수가 실종된 민

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국가가 움직임을 완전히 멈춘 동안 개인들이 부지런히 빈스토크를 뛰어다녔다.’는 국가가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반면, 개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 12 파란 우편함을 자랑하던 병수 자신이 배달 사고를 일으키면서 민소를 찾는 일에 나서게 되고, 파란 우편함으로 대표되는 자발적 참여와 상호 신뢰의 문화로 인해 은수의 편지가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민소를 찾는 데 동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파란 우편함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3 “원래 인터넷에서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그냥 해요, 그냥.”이라는 표현과 민소와 아무 관계없는 전 세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민소를 찾는 일에 동참한 모습을 통해 볼 때, 작가는 인터넷 공간을 이해관계를 넘어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가능한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14 ㉔는 ㉑와 ㉒를 받은 사람들이 은수에게 보낸 답장이 아니라, 편지의 내용에 공감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보낸 새 편지이다.

| 오답 풀이 | ① ㉑는 은수가 지인들에게 썼던 최초의 편지이다. ② 은수가 처음에 지인들에게 쓴 편지(㉑)는 대외 홍보국 직원들이 직접 배달했기 때문에 599층을 출발해서 주로 450층에서 600층 사이 구간으로 재빨리 흩어져 갔다고 하였다. ③ ㉒는 은수가 지인들에게 쓴 최초의 편지(㉑)를 빈스토크 대외 홍보국 직원들이 복사하여 빈스토크 전 구역으로 보낸 것을 의미한다. ⑤ ㉒는 ㉑를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로, ‘병수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부터 새 편지 몇 통이 발송되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15 (타)의 ‘지도 전체가 파란색으로 변했는데도 아직까지 민소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누군가 보고도 놓친 게 분명했다.’라는 구절을 통해 지도 전체가 파란색으로 변한 직후에도 민소를 찾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16 민소와 아무 관계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소를 찾는 일에 동참하였고, 그 결과 약 277만 명의 참여로 민소의 위치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익명의 개인들이 모여 만들어 낸 기적’이 이 글의 주제를 드러내는 표제로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은수의 편지에 담긴 진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민소를 구조하는 일에 동참한 것은 맞지만 이 글의 주제가 익명의 사람들이 보인 협력과 연대의 힘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①을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표제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이 글은 한 개인이 극한 상황을 이겨 내는 의지를 다룬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보인 연대와 협력의 힘을 다루고 있다.

③ 이 글에서 민소를 찾는 일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동참하지만, 이는 국가 간의 공식적인 협력 체계가 아니라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한 것이다.

⑤ 이 글은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을 해낸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 주는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다.

- 17 독일 시민이 만든 새 웹사이트는 구역을 확인하면 할수록 색갈이 점점 진해지는 방식인데, 이것이 마치 등고선처럼 보여 땅이 솟아오르는 착각이 들기 때문에 은수는 이를 보고 타클라마칸 사막 전체가 서서히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 같다고 느낀 것이다. 즉, ㉑은 민소를 찾겠다는 사람들의 참여 열기를 시각적으로 보여 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18 ㉑은 민소의 행방을 찾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이다. 이들은 은수의 편지를 읽고 자발적으로 민소를 구조하는 일에 참여한 것으로 국가가 동원한 사람들이 아니다. 민소가 빈스토크의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가 민소를 구하는 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개인들이 연대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단원 평가 문제

본책 244~246쪽

01 ⑤ 02 ④ 03 빈스토크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도시이다. 04 ② 05 수많은 사람들이 민소를 찾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06 ② 07 ⑤

- 01 이 글은 4년 전의 일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모두 파악하여 전달한다.

② 이 글은 빈스토크 사람들의 상호 신뢰를 보여 주는 상징적 소재인 ‘파란 우편함’의 특징을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한다.

③ 이 글은 가상의 도시 국가인 빈스토크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④ (나)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엘리베이터와 우편함을 매개로 한 우편물의 분류 및 전달 과정을 드러낸다.

- 02 병수는 [A]에서 파란 우편함을 이용한 우편 배달의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며 의외로 배달 사고가 안 난다고 말하지만, <보

기>에서 자신이 배달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이는 파란 우편함에 대한 그의 자부심과 대조되는 상황이다.

| 오답 풀이 | ①, ② [A]에서 파란 우편함 시스템이 허구라거나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병수의 실수 또한 개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③ 병수는 [A]에서 파란 우편함을 이용한 우편 배달의 높은 성공률을 말하였다.

⑤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병수의 개인적 실수로 인한 것으로, 특정 구역의 배달 정확도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병수의 실수를 구역별 배달 정확도의 차이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 03** **서술형** 병수는 도시화가 완전히 진행된 빈스토크에서도 익명의 사람들끼리 통하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빈스토크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도시였다.’라는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빈스토크가 타인에 대한 신뢰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도시라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 04** 병수는 타클라마칸 사막의 위성 사진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구획을 나누어 주변국 환경 감시 기구에 전달한다. 그리고 전화로 민소를 찾는 일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은수에게 알려 주지만, 사람들의 작업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은수의 편지를 읽고 민소 찾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은수는 민소를 구하기 위해 타클라마칸의 현재 위성 사진을 구하고, 편지를 써서 사막에 고립된 민소를 찾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

③ 독일 시민은 이미 확인한 구역인지 아닌지만 지도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확인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구역의 색깔이 짙어지도록 하는 새 웹사이트를 만든다.

④ 빈스토크 시민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시민은 웹사이트에 자발적으로 접속하여 민소를 찾는 일에 동참한다.

⑤ 대외 홍보국 직원들은 은수가 처음에 쓴 편지를 배달하기도 하고, 은수의 편지를 복사하여 빈스토크 전역으로 보낸다.

- 05** **서술형** 병수는 위성 사진을 20만 개의 구획으로 나눠 민소를 찾으려 했지만, 소수의 인원으로는 약 1년이 걸릴 작업이었다. 그러나 은수의 편지가 퍼져 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소를 찾는 일에 동참했고, 그 결과 하루 만에 민소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평가 기준	확인 ☑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언급하여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 06** ㉠은 처음에 은수가 썼던 편지를 빈스토크 대외 홍보국 직원들이 복사하여 빈스토크 전 구역으로 보내면서 3백 통이 넘게 되고, 사람들이 이를 복사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은수의 편지를 여러 곳으로 퍼뜨림으로써 편지가 퍼져 나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은 국가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주며, 이후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게 되는 배경이 된다.

③ ㉡은 빈스토크 시민들의 신뢰를 믿고 있는 병수마저도 민소를 구조하기 위한 익명의 사람들의 행위가 믿기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에서 은수는 자신이 편지로 도움을 호소했지만 이처럼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고 있다.

⑤ 새 웹사이트는 확인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해당 구역의 색깔이 점점 짙어지는 방식이다. 따라서 ㉢에서 지도 색깔이 순식간에 짙은 색으로 변했다는 것은 민소를 찾는 사람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 07** 이 글은 수많은 사람들의 연대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보기>는 비닐봉지로 대변되는 환경 오염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글과 <보기> 모두 개인의 노력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국가가 자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조를 외면하는 상황과 이에 맞서는 개인들의 연대를, <보기>는 환경 오염 문제를 다루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사회적 문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② 이 글은 민소의 실종과 구조 과정을 서사적 구조를 통해 전개하고, <보기>는 운율, 심상 등을 통해 함축적인 시적 언어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③ 이 글은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민소를 찾아 내는 긍정적인 결말을 통해 희망을 보여 주고, <보기>는 영원히 썩지 않는 비닐봉지를 통해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인터넷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민소를 찾는 일에 동참하는 사건을 통해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보기>는 비닐봉지를 소재로 환경 오염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이해 더하기

강은교, 「어떤 비닐봉지에게」

이 시는 비닐봉지를 의인화하여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 존재가 도리어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을 보여 준다. 또한 정처 없이 떠돌며 소멸하지 않는 비닐봉지의 모습을 통해 현대 문명이 초래한 환경 문제와 그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이를 통해 환경 오염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일깨운다.

1. 나를 깨우는, 문학

본책 248~249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②

01 (가)는 겨울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눈’, ‘얼음’, ‘햇웃’ 등의 시어와 초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우수절’, ‘새순’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나)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눈’, ‘봄’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명암의 대비는 밝은색과 어두운색을 견주어 그 차이를 부각하는 것을 말한다. (가)에서는 봄눈이 내린 자연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 뿐, 명암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② 수미상관은 시의 처음과 끝에 같거나 비슷한 구절을 배치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형태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나)에서는 이러한 수미상관의 구성 방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가)에서는 화자가 문을 열고 봄눈이 온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뿐, 시적 공간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에서는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는 겨울부터 눈이 달았던 가지에 꽃이 피는 봄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④ 설의적 표현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가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설의적 표현은 (나)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02 (가)의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은 ‘봄에 내리는 눈’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여기에서 ‘봄’이라는 계절과 ‘눈’이라는 자연 현상은 서로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서 다시 돌아올 겨울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어진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라는 구절에서 화자는 봄눈을 보며 봄기운을 느끼고 싶어 하는 한편 겨울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의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는 ‘흰 옷고름’이라는 시각적인 대상을 ‘향기로워라’와 같이 후각적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봄에 대한 화자의 설레고 반가운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에서는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해 ‘많은 도전’을 하는 눈의 모습을 ‘난분분 난분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이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다. 즉 ‘난분분 난분분’에 나타난 시어의 반복과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에 나타난 시어의 변형은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그려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의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에서는 눈이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 끝에 가지에 피워 낸 눈꽃을 ‘황홀’로 표현함으로써 결실을 얻는 기쁨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의 ‘아름다운 상처’는 의미상 모순되는 두 시어인 ‘아름다운’과 ‘상처’를 연결한 역설적 표현이다. 이를 통해 시련(한번 덴 자리)을 겪은 후 피어나는 봄꽃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문 이해하기

정지용, 「춘설(春雪)」

주제	춘설이 내린 자연에서 느끼는 봄의 생명력
특징	•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봄이 온 것을 생생하게 나타냄. • 영탄적 표현을 통해 봄을 맞이한 화자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03 (가)의 ‘어둠’은 ‘부정적인 현실’, ‘아침’은 ‘긍정적인 미래’로서 대조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정적인 현재의 모습을 벗어나 새로운 자아로 나아가려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나)의 ‘돌’은 화자가 부끄러워 버리고 싶은 ‘옹졸한 모습’, ‘동해바다’는 화자가 본받고 싶은 ‘너그럽고 관대한 모습’으로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너그럽게 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04 ‘홀로 침전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무기력한 자아의 모습을 의미하므로 고결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 오답 풀이 | ① (가)가 일제 강점기에 쓴 작품이라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육첩방은 남의 나라’는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화자가 자아 성찰을 통해 내적 갈등을 극복하고 부정적 현실을 이겨 내려 한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에서 현실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추측할 수 있다.

④ 화자가 희망적인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시대처럼 올 아침’은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고한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이루었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최초의 악수’는 두 자아가 화해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지문 이해하기

신경림, 「동해바다 — 후포에서」

주제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포용력 있는 삶의 태도
특징	•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성찰을 드러냄. • 자기 반성적 태도를 독백적 어조로 표현함.

2. 다양한 빛깔로 만나는, 문학

본책 250~253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④ 05 ③ 06 ④ 07 ②

01 (가)는 ‘흰꽃’, ‘분홍꽃’을 통해 복숭아나무를, (나)는 ‘푸른 길’, ‘푸른 잔디’를 통해 잔디, 풀잎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모두 색채어를 활용해 대상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나)는 ‘말소리가 저렇게 청량하라’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지만, (가)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는 ‘-습니다’와 같은 경어체를 활용하여 화자의 내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지만, (나)는 경어체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는 ‘싱싱한 풀꽃 냄새가 난다’에서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지만, (가)는 후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반복하여 나타나 있지 않다.

02 (가)의 화자는 처음에 복숭아나무에 대해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즉, 화자는 ㉠을 통해 복숭아나무를 지나치고 싶은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잔디가 밟혀 죽었을 거라고 걱정하고 있었다. 즉, 화자는 ㉡을 통해 ‘사람의 몸 속에 푸른 길을 내고 살아 있는’ 잔디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 지문 이해하기

복효근,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

주제	인간과 자연의 순환적 질서와 조화
특징	- 자연물이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전해 준다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냄. -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함.

03 이 시는 외롭게 살아가는 화자가 ‘흰 바람벽’에 비친 장면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의 자세를 다잡고 있다. 반어적 표현은 의도하는 의미와 반대로 표현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 시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흰 바람벽’, ‘어머니’, ‘글자들’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나’의 현재형 어미를 통해 화자가 상념에 젖어 있는 시적 상황이 부각된다.

③ 화자가 좁고 어두운 방에서 자신이 지나온 삶을 떠올리며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독백적 어조가 나타난다.

⑤ 시의 마지막 부분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 그리고 또 ‘프랑스식 잠’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라는 시구가 도치를 사용한 구문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고 고결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의식이 강조된다.

04 [A]에서 시적 대상은 어머니이고 [B]에서 시적 대상은 화자 자신이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화자의 상념, 어머니와 옛 여인에 대한 연상, 화자의 자기 성찰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A], [B] 모두 화자가 방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간 이동 양상은 없다.

② [A]에서는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이라는 시어를 통해 추운 겨울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B]에서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를 찾을 수 없다.

③ [A]에는 상승적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B]에서는 이전과 달리 화자가 자신을 ‘높’은 존재로 인식하는 부분이 보인다.

⑤ [A]에서는 어머니의 고달픈 삶을 떠올리며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환기하고 있다. 이는 화자의 그리움 심정을 드러낼 뿐 현실 비판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05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어찌 한갓 한미한 선비를 사위로 삼으려 하신단 말이오?’라는 부분을 통해 이생 부친은 자신의 가문이 최씨 가문에 비해 한미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씨 집안에서 이생을 불러 그에게 혼인 의사를 묻자 이생은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최씨가 향아를 시켜 이생의 이웃들에게 이생의 일을 물어보게 하였으며, ‘최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부분을 통해 향아가 이생이 영남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듣고 최씨에게 전달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생이 화답한 시를 발견한 최씨 부모가 최씨에게 이생이 누군지 묻자, ‘최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며 이생과의 만남을 말하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최씨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며 ‘중매의 예를 갖추어 이생의 집에 혼인 의사를 물었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06 최씨가 초췌해지는 것은 이생의 소식을 듣고 병을 얻게 된 ‘매일 저녁’ 이후의 일이므로, 최씨가 초췌해지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 뒤의 ‘최씨를 찾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를 통해 이생과 최씨의 만남이 반복됨을 드러내고, 이는 이생 부친이 이생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생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이어짐으로써 개연성을 부여한다.

② 이생이 귀가하는 시간이 ‘새벽’임을 특정하면서, ‘인연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생 부친의 뜻과는 이생이 다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③ ㉔의 앞에 제시된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로다.’를 통해 ‘지금 당장’에 이생 부친의 단호함이 함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그동안 반복된 이생과 최씨의 만남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⑤ 이생이 돌아오지 않은 기간을 제시하여 최씨와의 이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드러내고 있고, 그동안 최씨가 느끼는 이생에 대한 그리움의 깊이를 함축하고 있다.

07 [A]에서는 ‘바라는 바는 앞으로 장원급제하여 훗날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 [B]에서는 ‘어찌 끝내 연못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를 통해 모두 이생의 앞날이 긍정적인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며 자신의 의중을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A]에서 ‘잠시 바람’이 났다며 이생이 겪은 구체적 사건은 언급하지만 상대를 회유하고 있지는 않으며, [B]에서 이생이 겪은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다.

③ [A]에서 이생 부친은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다고 했을 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상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지는 않는다.

④ [A]에서 이생과 최씨의 혼인이 성사되었을 때 이생 부친이 입게 될 손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우려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 [B]에서도 혼인 성사 시 이생이 얻게 될 이익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A]에는 이생에 대한 이생 부친 자신의 주관적 평가만 드러날 뿐, 이생의 평판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며 상대에게 제안에 응할 것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B]에는 이생의 재주가 뛰어나다는 평판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생 부친에 대한 신뢰가 드러나지 않는다.

3. 역사와 함께 흐르는, 문학

본책 254~259쪽

01 ① 02 ④ 03 ③ 04 ③ 05 ⑤ 06 ① 07 ⑤ 08 ①
09 ② 10 ② 11 ⑤ 12 ⑤

01 (가)에서는 ‘늘 시비하는 소리’가 들리는 속세의 상황과 ‘물’ 소리가 가득한 산의 상황이 대조적으로 드러난다. (나)에서는 잠을 자고 싶어도 밀린 일이 많아 잘 수 없는 화자의 상황이 드러난다. (가)의 화자는 시비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물로 산을 둘러 버린 한가한 상황에 처해 있고, (나)의 화자는 잠을 자고 싶지만 잠들 수 없어 한탄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가), (나)는 서로 대조적인 상황에 처한 화자를 제시하여 시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02 (가)의 ‘물’은 ‘늘 시비하는 소리’가 들리는 속세를 거부하는 화자의 태도를, (다)의 ‘물’은 문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인내하며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3 ㉔에서 ‘물’은 무심히 흘러 논과 밭, 과수원을 운택하게 하고 있다. 무심히 흐르는 물에서 욕심 없음, 논, 밭, 과수원을 운택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을 연상할 수 있다.

④ 지문 이해하기

작자 미상, 「잠노래」

주제	밤새워 바느질하는 삶의 고달픔
특징	• 4음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 잠을 의인화하여 말을 거는 형식으로 전개함.

이태준, 「물」

주제	물의 덕성에 대한 예찬
특징	물에 대한 예리한 관찰을 통해 얻은 정서적 감동을 드러냄.

04 (가)와 (다)는 부재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나)는 임과 이별하는 순간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그리움과 아쉬움은 모두 화자가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다) 모두 임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5 (나)의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은 이별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한 부분으로, 이별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감각적으로 드러낸 부분이다. 그러나 자연물인 ‘꽃’에 화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어저’에서 영탄을, ‘모르던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② '제 구태어'는 '가라마는'과 관련하여 임이 행동의 주체임을, '보내고'와 관련하여 화자가 행동의 주체임을 중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임을 보내는 행위와 임을 그리워하는 심리를 대비시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다리를 저는 나귀가 빨리 가지 못하는 것을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통해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연장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이 드러난다.

지문 이해하기

안민영, 「임 이별 하울 적에」

주제	이별 상황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
특징	'나귀'를 이별을 지연시키는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부각함.

박문옥, 「내게는 원수가 없어」

주제	임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마음
특징	개와 닭을 사랑을 방해하는 대상으로 설정하여 연모의 마음을 해학적으로 표현함.

06 (가)에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와 같은 직유법과 '교목'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쓰였고, '낮은 거미집', '바람'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혹독한 현실과 시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도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산림처럼', '푸른 산처럼'과 같은 직유법이 사용되었으며 '푸른 하늘', '푸른 별' 등의 상징적 시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이상을 추구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7 <보기>에는 이육사에 대한 자료와 시의 제목인 '교목'의 사전적 의미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가)의 창작 배경이 일제 강점기이며, 교목이라는 소재로 시인의 의지와 열망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가)에 제시된 '교목'은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바람'은 교목을 흔들려고 하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기>에 제시된 시대 상황과 연관 지어 봤을 때, '바람'은 현실의 냉혹함, 곧 일제의 가혹한 탄압이나 외부의 유혹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국어사전에 제시된 '교목'의 사전적 의미와 인터넷 자료 중 '맹자'의 말의 의미를 백과사전에서 찾은 내용과 연결 지어 볼 때, 시의 제목인 '교목'은 시인의 절개와 기상을 표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이 시는 각 연이 3행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 행이 가장 긴 형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말아라.', '~아니라.', '~못해라'와 같이 종결 어미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 <보기>에 제시된 이육사 시의 특성인 정제된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이 해당 구조에서 드러난다.

③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육사는 평생을 빈궁과 투옥과 유랑의 생활을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낮은 거미집'은 외롭고 쓸쓸한 모습을 드러내는 시어로, 시인의 고난에 찬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끝없는 꿈길'은 화자가 부정적 상황에서도 끈기있게 추구하는 삶의 목표, 시인의 강한 의지와 혁명에 대한 열망과 연결된다.

지문 이해하기

신석정, 「들길에 서서」

주제	군센 삶에의 의지와 이상 세계 추구
특징	• 유사한 의미를 지닌 소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함. • '하늘'(1~2연) - '지구'(3~4연) - '푸른 별'(5~6연)로 소재가 변화함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08 (가)에서 이쁜이 어머니가 딸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그는 실신한 사람같이, 얼마를 그곳에 서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눈물이 뺨을 흐른다.'와 같은 행위로 제시하고 있고, 신전 집 사람들이 자신들이 몰락하여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남부끄럽다 해서, 고개나마 변변히 못 들고 빠른 걸음걸이로 천변을 걸어 나가, 그대로 큰길로 사라지는'과 같은 행위로 보여 주고 있다. (나)에서는 #69의 철호가 아내의 고생스러운 모습을 보고 #70의 철호가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섰'는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거나 살았던 곳을 떠나야 하는 이들의 서글픈 처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철호와 영호 사이에서의 갈등이 그들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이러한 갈등이 다각적으로 조명되고 있지는 않다.

③ (가)에는 인물의 회상 장면이 드러나 있지 않다. (나)에서는 #69. 피난소 수용소 안(회상)에서 철호의 회상 장면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는 않는다.

④ (가)와 (나) 모두 인물 간의 대화는 드러나지만 이를 통한 회화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에는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이 드러나 있지 않으나, (나)에는 #74의 영호와 철호가 취직에 대해 나누는 대화에서처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철호와 영호의 대결 의식이 드러나 있다.

09 서술자는 신전 집 사람들이 낙향할 것임을 이전에 언급하였음을 밝히고 있을 뿐, 해당 정보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독자의 망각에서 찾고 있지는 않다. 또한 (가)의 '제6절 몰락'에서 알 수 있듯이 점룡이 어머니가 제공한 신전 집이 낙향하리라는 정보는 그대로 실현되었다.

10 (가)에서 딸 이쁜이가 결혼해서 멀리 떠나는 모습은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딸에 대한 이쁜이 어머니의 애뜻한 사랑을 보여 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나)에서 철호와 영호의 논쟁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을 통해서도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가)의 짧게 느껴지는 ‘골목’은 이쁜이 어머니가 딸을 떠나보내기 아쉬워하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고, (나)의 빠져나오기 힘든 ‘골목길’은 영호가 살고 있는 해방촌의 환경이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며 영호 또한 시시한 동네라고 표현하여 이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가)에서 이쁜이 어머니가 딸과 헤어지며 흘리는 ‘눈물’에는 딸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나)에서 철호는 ‘어금니’가 푹푹 쑤시고 아프지만 당장의 생계가 걱정되어 어금니를 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금니’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아픔마저 견뎌 내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담겨 있다.

④ (가)에서 신전 집 사람들은 이십 년을 살아온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주인 영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를 통해 신전 집 사람들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 철호의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누더기를 꿰매고 있다. 이를 통해 철호네 가족이 매우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도회에서의 패잔자’는 신전 집 사람들로, 그들은 가세가 기울어 몰락하였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낙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치열한 도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의 영호는 취직하여 적은 월급을 받기보다는 법을 벗어나는 행위를 해 보겠다고 하며 취직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11 #70에서는 ‘철호가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섰’고, #71에서는 영호가 운전수와 대화하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이 두 장면을 침묵과 대화로 대비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영호의 소심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영호는 좁은 골목길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운전수에게 ‘시시한 동네까지 몰구 오느라고 수고했소.’라고 말하고 ‘천 환짜리 한 장을 꺼내 준다.’와 같이 행동하는 것으로 볼 때, 시원하고 거침없는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68에는 철호만 등장하는데, 이어지는 장면 #69에는 철호의 아내가 등장한다. #69에서 ‘철호㉔’를 삽입한 것은 철호의 아내를 바라보며 그녀에 대해 회상하는 이가 철호임을 알려 주기 위해서이다.

② #69의 피난민 수용소 안 장면에서 철호는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온 아내를 보고,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라며 혼잣

말을 한다. 또한 #69의 뒤에는 행복하게 지냈던 철호 아내의 과거 장면이 제시된다. 따라서 ‘철호㉔’에는 고생하는 아내에 대한 철호의 연민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③ #69에서는 ‘O·L’을 통해 교복을 입고 강단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아내의 모습과 결혼식 피로연장에서 신부 차림으로 노래를 부르는 아내의 모습이 교차되고 있다.

④ #70에서 철호는 침묵하지만 시가지는 황홀에 묻혔다고 제시되고 있다. 이는 철호와 거리의 모습을 대비하여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답답함 등을 느끼는 철호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12 ㉔에는 시간의 흐름이 분할되어 신전은 술집이, 그들의 살던 집은 하숙옥이 되는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가 제시되어 있지만 각각의 공간의 결합은 나타나지 않는다. #75에서는 철호와 영호가 대화하는 사건과 명숙이 이를 엿듣는 사건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있지는 않으며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택하여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오답 풀이 | ① ㉔에서는 이쁜이와 이쁜이 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제시하여 인물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고, #71과 #72는 ‘자동차 안’과 ‘철호의 방 안’이라는 다른 공간을 영호의 등장으로 연결하고 있다.

② ㉔에서 ‘바로 이날에’를 보면 같은 날에 두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㉔과 결합하고 있고, #73(철호의 집 부엌 안)과 #74(철호의 집 방 안)는 서로 다른 공간이지만 영호와 철호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결합하고 있다.

③ ㉔에서는 신전 집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이들에 대한 애달픈 감정을 서술하고 있고, #73~#75에서는 철호와 영호의 대화를 매개로 서로 다른 공간(철호의 집 부엌 안, 철호의 집 방 안, 철호의 집 골목)을 결합하고 있는데, #73(철호의 집 부엌 안)에 등장하는 인물인 ‘민호’와, #75(철호의 집 골목)에 등장하는 인물인 ‘명숙’이 #74(철호의 집 방 안)의 철호와 영호의 대화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④ ㉔과 ㉔은 같은 날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74와 #75 역시 이와 유사하다. 하지만 #74와 #75에서는 철호와 영호의 대화, 즉 인물의 목소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경우의 연결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4. 삶과 함께하는, 문학

본책 260~261쪽

01 ③ 02 ④ 03 ⑤

01 (가)에서는 화자가 부른 ‘노래’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앞내강 뽕뽕 얼어 조이던 밤’에 강을 건너가고 사막을 건너가 어디엔가 닿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나)에서는 ‘묘비’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불의 뜨거움을 견디고 살아남는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훌륭한 비석’, ‘귀중한 사료’ 등에서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세속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반어적 어조가 사용되지 않았다.

② (가)에서는 ‘달 밝은 밤’, ‘눈물 먹은 별들’ 등에서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표현한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④ (가)에서는 ‘내 ~ 노래는 ~ 갔소’의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청자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또 (가)와 (나) 모두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나타나 있으나, (가)에서는 풍자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02 (가)의 화자는 ‘선달 보름날 강이 얼어붙는 추운 밤, 강 건너 하늘 끝에 닿은 사막, 모래불,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등과 같이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해 있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절망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지도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앞내강 뽕뽕 얼어 조이던 밤’에서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겨울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처해 있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매우 암담하고 혹독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화자가 부른 노래가 건너간 강 저편을 ‘사막’으로 표현하여, 화자가 직면하게 될 상황이 사막과 같이 황량하고 삭막하며 고된 곳임을 표상하고 있다.

③ 화자는 강 건너간 노래가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는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인 ‘밤’과 희망을 의미하는 ‘무지개’를 대응시켜,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03 (나)의 6행에 제시된 ‘훌륭한 비석’은 반어적 표현으로, 화자는 ‘시’나 ‘소설’을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았던 인물을 부

정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부정적 인물을 기리는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니라, (나)를 쓴 시인의 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의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다)의 ‘시인들’은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를 참고했을 때 ‘노래’는 강과 사막을 건너 어딘가 가 닿고자 하므로 시인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노래’가 강을 건너간 이유를 ‘못 잇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가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묘비명’은 정신적 가치는 외면하고 물질적, 세속적 가치만을 추구하고 살았던 ‘그’를 기리는 것이며, 화자는 이를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나)를 쓴 시인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부정적 인물의 ‘묘비’가 남아 훗날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을 우려하며 역사와 시인이 무엇을 기록하고 남겨야 하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지문 이해하기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주제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
특징	• 회상을 통해 시상을 불러일으킴. •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함.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주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자기 성찰
특징	• 의미상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 정신적 가치가 경시되는 현실을 반어적 표현으로 비판함.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dashed lines) for the memo section.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dashed lines) for the memo section.